



Daum No.1 영작카페 「유소영의 영작기술」 제1탄!

초보를 위한 영작기술은 따로 있다

유소영의 영작기술

유 소 영 · 지음

유소영이
공개하는 쉬운
영작을 위한 3STEP

문장의
알짜배기
만드는 17가지
영작기법

표현 · 어휘력
부족을 해결해 주는
8가지 테크닉

초보를 위한 영상기술은 따로 있다

유소영의
영상기술

초보를 위한 영상기술은 따로 있다

유소영의 영상기술

유소영 지음

유소영의 영상기술

초판 1쇄 인쇄 2005년 3월 5일

초판 1쇄 발행 2005년 3월 9일

지은이 유소영

발행처 도서출판 이비컴

발행인 강기원

기 획 이병일

편 집 나인플렉스

마케팅 김동중, 이은미

주 소 130-811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7-1 302호

대표전화 (02)2254-0658

팩 스 (02)2254-0634

전자우편 help@bookbee.co.kr

등록번호 제6-0596호

등록일자 2002.4.9

ISBN 89-89484-73-1 13740

웹사이트 http://www.bookbee.co.kr

© 유소영, 2005

값 11,000원

파본이나 잘못 인쇄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저자와의 협의하에 인지는 생략합니다.

책을 시작하며

이 책은 카페 〈유소영의 영작기술cafe.daum.net/bostonediting〉 1만 회원들의 영작에 대한 노하우가 담긴 책입니다.

영작은 말 그대로 ‘영어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작에 대해서 이미 많은 교수법과 책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작 초보인 우리들에게는 너무 원론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 생각하라! 많이 써라! 좋은 표현을 많이 외워라!”

이렇게 말이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어로 생각하고 좋은 표현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영작이 힘든 것은 왜일까요?

그간 카페를 운영하면서 영작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들어보고 쉬운 영작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초보의 눈높이로 영문법을 바라보고, 초보가 문의하는 글들을 분석해 어떤 패턴에 초보들이 약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영작을 하려고 하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작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그 명쾌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작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의사의 전달’이 아닐까요? 그럼 의사의 전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멋들어진 문장, 세련된 글, 원어민과 같

은 버터 냄새나는 표현들일까요? 영작의 고수 분들에게는 맞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영작 초보인 우리들에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내가 하고픈 이야기를 영어로 써서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키워야 이메일도 쓰고, 무역서신도 작성하고, 펜팔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초 영작 능력은 기존의 ‘표현 중심’, ‘문법 중심’, ‘원어민 입장에서’의 영작 교습법을 통해서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외워도 막상 써먹기 어려운 표현들, 문법 지식, 그리고 수십 번 강조해도 실제로 와 닿지 않는 ‘영어식 사고’의 막연함. 이런 것들이 바로 영작 초보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일 겁니다.

이 책은 철저히 ‘기초 영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되었습니다. 기존의 영작 교습 책과는 달리 이 책은 영작 초보 분들의 참여로 초보의 생각과 관점에서 쓰였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준비한 〈유소영의 영작기술〉은 1만 카페 회원들의 영작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이러한 노하우를 같이 공유해 보세요. 틀림없이 영어로 나의 의사를 전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05. 2. 3

유소영 씀

차례

책을 시작하며 _ 4

Part 1 • 문장의 알짜배기를 만들어주는 17가지 영작기법

영작의 관점에서 문법을 보자 _ 14

Unit 01 • 주어 만들기 1: to부정사/동명사/that절로 주어 만드는 법 _ 15

Unit 02 • 주어 만들기 2: what절로 주어 만드는 법 _ 20

Unit 03 • 주어 만들기 3: 시간 · 거리 · 날씨의 표현에서 주어 만들기 _ 23

Unit 04 • 주어 만들기 4: '사람이 한 명 있다' 에서 주어는? _ 26

Unit 05 • 동사 만들기 1: 시제 표현하는 법 _ 29

Unit 06 • 동사 만들기 2: 동사의 의미를 결정하는 법 _ 34

Unit 07 • 동사 만들기 3: 감정의 표현 방법 _ 43

Unit 08 • 목적어 만들기 1: 동작의 의미가 있는 목적어 _ 48

Unit 09 • 목적어 만들기 2: 명사절로 목적어 만들기 _ 52

Unit 10 • 보어 만들기: 주어 ·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법 _ 58

Unit 11 • 문장의 알짜배기를 다시 정리하기: 주어/동사/목적어/보어 _ 63

Unit 12 • 수식어 영작하는 법 1: 명사를 '주어+동사' 로 수식할 때 _ 68

Unit 13 • 수식어 영작하는 법 2: 웬만한 수식은 부사로 할 수 있다 _ 74

Unit 14 • 수식어 영작하는 법 3: 전치사 구로 수식하기 _ 79

Unit 15 • 수식어 영작하는 법 4: 동사로 명사를 꾸며줄 때 _ 87

Unit 16 • 희망사항을 영작하는 법 1: 만약이라고 해서 모두 가정문은 아니다 _ 93

Unit 17 • 희망사항을 영작하는 법 2: 시제를 고쳐서 가정법 유도하는 법 _ 96

Part 2 • 초보자를 위한 영작 테크닉 8가지

쉬운 영작을 위한 Basic Process _ 102

초보자를 위한 3단계 영작 _ 103

Unit 01 • 안 보이는 주어 찾아서 보여주기 _ 106

Unit 02 • 애매한 댕음말 명쾌하게 만들기 _ 111

Unit 03 • 동사는 뜻만 통해도 된다 _ 116

Unit 04 • 안 보이는 목적어 찾아서 보여주기 _ 121

Unit 05 • 의미를 압축하여 간단하게 바꾸기 _ 126

Unit 06 • 수식어를 제대로 이용해 복잡한 문장 간단하게 하기 _ 131

Unit 07 • 앞뒤 사정을 명확히 밝혀야 쉽게 영작할 수 있다 _ 137

Unit 08 • 사물주어로 바꾸어 문장을 간단하게 하기 _ 142

Part 3 • 나도 짧은 에세이를 쓸 수 있다

Part 3 소개 _ 150

실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_ 150

Unit 01 • 제 소개를 합니다	151
Unit 02 • 우리 가족은요...	156
Unit 03 • 시험 끝나고 영화 한편...	160
Unit 04 • 소개팅에 나갔는데...	165
Unit 05 •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합시다	170
Unit 06 • 졸업을 한 후에 뭘 할까?	175
Unit 07 • 야, 바다여행이다!	181
Unit 08 • 로또에 당첨되면 음식점을 차리고 싶어요	186
Unit 09 • 한국 제일의 명절 추석	191
Unit 10 •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195
Unit 11 • 나의 하루	201
Unit 12 • Smoking? Non-smoking?	206
Unit 13 • 나의 이성 친구를 소개합니다	210
Unit 14 • 영화 이야기	215
Unit 15 • 영어 동화	220
Part 3을 마치면서	224

부록 :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영작표현 모음 225

Self-writing Answers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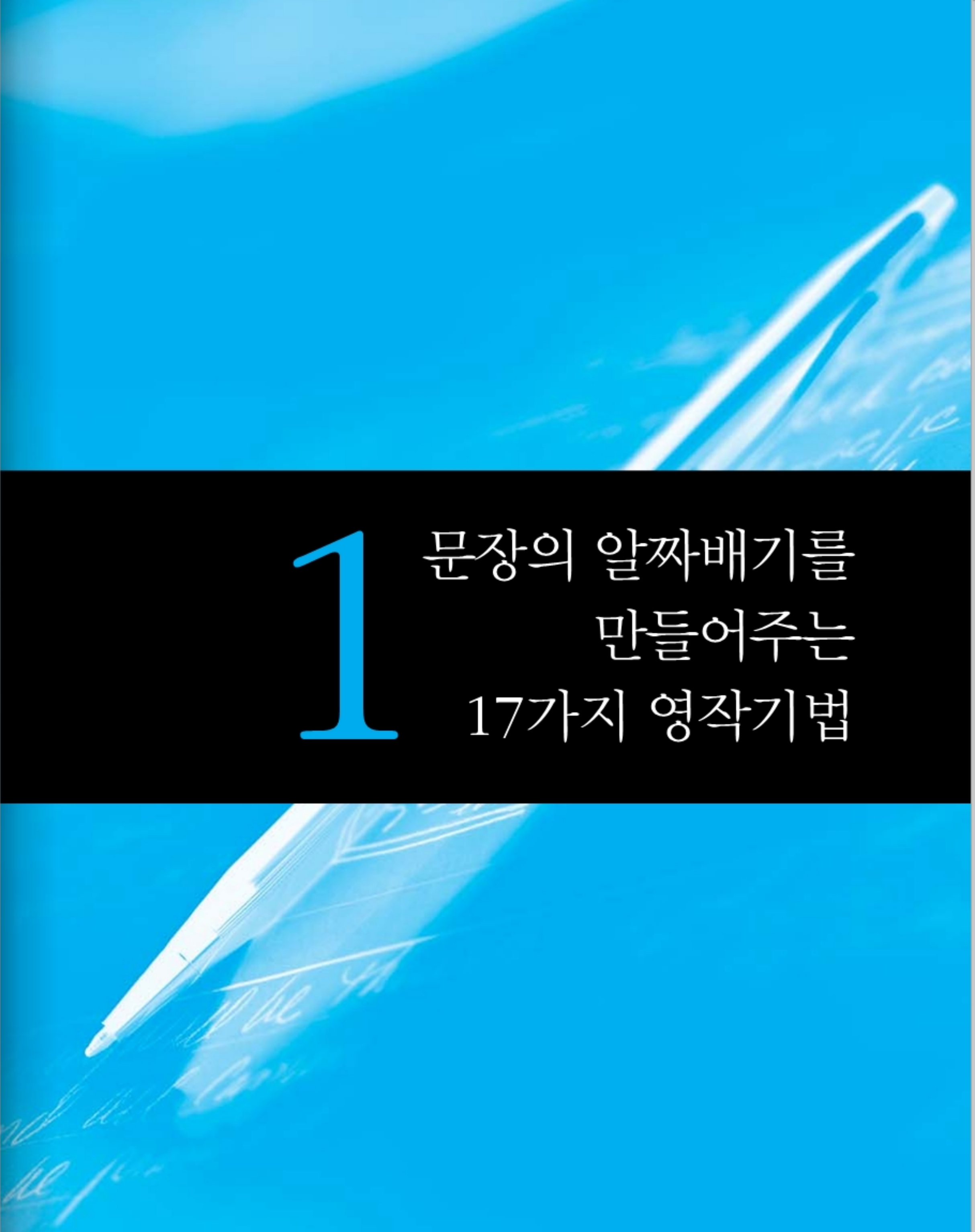
영작기법 목록

영작기법 01	'동작'의 의미가 들어가는 주어는 동명사/to부정사로 해결한다.	16
영작기법 02	긴 주어는 it으로 시작한 후 to부정사/that절로 연결합니다.	18
영작기법 03	사람 궁금하게 만드는 문장은 what절로 주어를 만든 후 궁금증을 풀어준다.	21
영작기법 04	시간, 거리, 날씨 등등 자연과 관련된 표현은 주어로 it을 쓴다.	24
영작기법 05	'(사람, 사물)이 있다/없다'라는 표현이 필요할 땐 There is(/are)...를 떠올리자.	27
영작기법 06	'~하고 있다'를 영작할 땐 늘 있는 일인지 일시적인 일인지 확인하자.	31
영작기법 07	과거의 동작이 현재까지 이어져 올 때는 '현재완료' 시제를 쓰자!	32
영작기법 08	동사 하나만 써서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면 조동사를 떠올리자.	40
영작기법 09	감정이나 상황의 원인을 설명할 땐 수동태로 써주자.	46
영작기법 10	과거·현재에 연관된 것은 동명사로, 앞으로 일어날 일은 to부정사로 목적어를 만들자.	50
영작기법 11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등의 표현이 들어가는 목적어는 의문사를 이용해 만들자.	54
영작기법 12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whether or not으로!	56
영작기법 13	보어를 이용하면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할 수 있다.	61
영작기법 14	'주어+동사'는 모든 영작문의 출발점이다.	64
영작기법 15	주어와 동사를 썼는데 의미가 안 통하면 보어를 넣자.	64
영작기법 16	동사 뒤에 '~을/를'이 오는지를 따져보자.	65
영작기법 17	선물을 준다고? 그럼 누구에게 뭘 주는지 써주자.	65
영작기법 18	주어/동사/목적어까지 썼는데 좀더 의미를 보충해 주고 싶다면, 보어를 떠올리자.	66

영작기법 19	'주어+동사' 수식어가 명사를 꾸며 줄 때는 관계사절을 떠올리자.	72
영작기법 20	복잡한 수식어가 동사/형용사/문장전체를 꾸며 줄 때 부사절로 연결하자.	77
영작기법 21	수식어구가 명사를 꾸며 줄 때 전치사로 연결하자.	81
영작기법 22	수식어구를 부사처럼 쓰고 싶으면 전치사를 쓰자.	85
영작기법 23	따분한 영화는 boring movie, 영화 때문에 따분해진 나는 bored SoYoung.	91
영작기법 24	가정문 영작할 땐 시제를 하나씩 앞당긴다.	98
영작기법 25	숨어 있는 주어를 찾아서 보여주자.	107
영작기법 26	이중 표현의 맺음말은 간단하게 정리하자.	112
영작기법 27	우리말 동사 부분은 기본 뜻만 전달하자.	117
영작기법 28	숨어 있는 목적어를 찾아서 보여줘라.	122
영작기법 29	수식하는 문장이 길면 간단한 한두 마디로 바꾸자.	127
영작기법 30	위치, 장소, 이유 등의 수식어절은 전치사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하자.	128
영작기법 31	복합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간단하게 하자.	129
영작기법 32	콤마를 사용하여 수식어를 간단하게 하자.	134
영작기법 33	관계사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하자.	135
영작기법 34	전후 관계가 명확한 문장으로 바꾸자.	138
영작기법 35	사물주어를 쓰면 문장이 세련되고 간결해진다.	144

Word Expression 목록

대학생활과 관련된 표현	155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형용사	155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표현	159
movie/film/cinema	164
데이트와 관련된 표현	169
건강과 관련된 표현	174
직업과 관련된 표현	180
여행과 관련된 표현	185
음식점과 관련된 표현	190
명절과 관련된 표현	194
미국의 주요 명절	194
사건/사고와 관련된 표현	200
일상생활과 관련된 표현	205
의사 표현과 관련된 표현	209
사람의 외모를 묘사할 때 쓰는 표현	214
영화와 관련된 표현	219
주요 동화책 영문 제목	223



1

문장의 알짜배기를
만들어주는
17가지 영작기법

영작의 관점에서 문법을 보자

영작할 때 문법 지식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어떤 이들은 중학교 정도의 문법만으로도 충분히 영작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 역시도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학교 수준의 문법만 소화한다면 충분히 영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문법을 영작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만 조금 한다면 말입니다. 여태껏 우리가 공부해 왔던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계사, 문장의 5형식 등의 문법 내용을 영작을 위해 조금 다른 눈으로 보자는 것이지요.

그간의 대부분의 영작책들은 문법 사항에 맞게 영작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는 영작에 맞게 문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Part 1에서는 영작을 위해서 어떤 문법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그 외의 부수적인 문법의 설명은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을 들자면, 영작을 writing이 아닌 making으로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우리말처럼 생각나는 대로 '바로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쓰는 것은 영어식 사고방식을 체득한 영작 고수나 가능하지 초보들은 어렵습니다. 영작 초보에게는 쉽게 풀어 쓰고 그 표현을 문장의 뼈대로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쉬운 영작'의 핵심은 '문장의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술 시간에 머리/몸통/팔다리 등을 하나씩 만들어 완성품을 만들어내듯이, 주어/동사/목적어 덩어리들을 하나씩 '만들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 하지 마세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덩어리씩 영작한 다음 하나씩 이어 붙인다고 생각하면 덜 부담스러울 겁니다. Part 1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 덩어리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작은 문장의 알짜배기, 즉 주어/동사/목적어/보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Unit 01

주어 만들기 1

to부정사/동명사/that절로 주어 만드는 법

영작할 때 주어를 만드는 것은 쉬워 보입니다. I, you, book, computer... 이렇게 아무 명사를 이용해 간단하게 주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럼 명사만 주어가 되냐고요? 물론 아닙니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나 긴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주어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내용을 주어로 쓰기 위해선 약간의 변형이 필요합니다. **주어로 쓰고 싶은 부분은 반드시 명사의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한다면 명사로 시작하지 않는 내용도, 문장 형식의 덩어리도 얼마든지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1 • 동사를 주어로 쓰고 싶으면 동명사, to부정사로 만듭니다

'달리기'를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running이라고 하죠. 동사 run을 변형시켜 명사처럼 만든 것인데 이를 '동명사'라고 합니다. 명사는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할 수 없고, 동사는 주어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 run을 동명사 running으로 변형시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문장에서 확인해 보지요.

Running / is good for health. 달리는 / 건강에 좋다.

Listening to music / is my hobby. 음악을 듣는 것은 / 나의 취미이다.

동명사뿐 아니라 to부정사 역시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문법책에서는 이것을 to부정사가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To study English / is important for me.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 나에게 중요하다.

To go to France / is my dream

프랑스로 가는 것은 / 나의 꿈이다.

그럼 어떨 때 동명사를 주어로 쓰고 어떨 때 to부정사를 주어로 쓰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to부정사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명사는 과거나 현재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을 듣는 것이 나의 취미라고 할 때는 listening to music이 어울리고, 나의 꿈, 즉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to부정사를 써서 to go to France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영작기법
01

‘동작’의 의미가 들어가는 주어는 동명사/to부정사로 해결한다.

2. 문장을 주어로 만들 땐 that절을 이용합니다

〈that + 주어 + 동사〉 형식을 ‘that절’ 이라고 합니다. 이 that절을 쓰면 복잡한 내용도 주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문장을 주어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나의 문장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실을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을 때 ‘that절’ 을 쓰면 효과적입니다.

다음의 예를 보세요.

That I love her / is true.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 사실이다.

That she majored Spanish / is unbelievable.

그녀가 스페인어를 전공했다는 것은 /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실제로 that절 형식이 주어로 쓰여 맨 앞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어는 주어가 길게 늘어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길어진 주어를 뒤로 빼고, 간단하게 it이 주어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볼까요?

That I love her is true

⇒ It is true that I love her.

That she majored Spanish is unbelievable.

⇒ It's unbelievable that she majored Spanish.

앞에서 to부정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to부정사로 시작하는 주어가 길어지면 it을 앞에 놓고 진짜 주어를 뒤로 빼버리는 거죠.

To love somebody is difficult.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 It is difficult to love somebody.

예문을 보니까 that을 사용하면 문장 형식도 얼마든지 주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죠? 주어를 만들 때 명사나 대명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주어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도록 하지요.

영작기법
02

긴 주어는 it으로 시작한 후 to부정사/that절로 연결합니다.

 it으로 시작하는 관용어구

진짜 주어인 that절을 뒤로 보내고, it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을 아래에 모았습니다. 따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 it seems(/appears) that... ~인 것 같다
It seems that he was not there. 그는 거기에 없었던 것 같다.
- it happens that... 우연히 ~하다
It so happened that I met her. 우연히 어쩌다가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 it is said that... (사람들이) ~라고 얘기하다, ~라고들 한다
It is said that he is very ill. 그는 매우 아프다고 한다.

Self-writing

1 운동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2 잠자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하다.

3 피아노를 치는 것은 즐겁다.

4 영화를 보는 것은 나의 취미이다.

5 담배를 끊는 것은 어렵다.

6 그가 파리에 갔다는 것은 확실하다.

7 그들이 나를 도와주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앞 장에서 나온 '절'이란 문장 속의 또 다른 문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명사절'이란 '명사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문장'을 말하는 거겠지요? 앞에서 살펴본 that절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 주어로 쓰이는 절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요?

1 • what절과 that절의 차이점 : 궁금하다 vs 궁금하지 않다

what으로 시작하는 절도 주어로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영작 초보가 '주어 만들기'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what절입니다.**

that절과 what절을 어떻게 구분해서 쓰느냐가 관건인데요, **that절은 문장의 구성 요소를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이고, what절은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우선 아래의 두 구문을 구분해 보지요.

- A. 내가 어제 밥을 먹었다는 것
- B. 내가 어제 먹은 것

두 구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A]는 자체적으로 의미가 완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B]는 '뭘' 먹었다는 것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네요.

앞에서 설명한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의 차이점이란 바로 이 궁금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문을 영작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that** I ate rice yesterday

B'. **what** I ate yesterday

예문을 좀 더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 (뭘 좋아해?) 영화다.

→ **What I like** is movie.

그녀가 숨기는 것은 / (뭘 숨겨?) 내게로의 사랑이었다.

→ **What she hides** is love for me.

듣는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 '뭘'은 뒤따라오는 내용들에 의해 궁금증이 풀리게 되네요.

여기까지 살펴본 what절은 that절만큼이나 유용하게 쓰입니다. 특히 what절을 잘 쓰면 복잡한 문장을 깔끔하게 영작할 수 있으니 많이 연습해두세요.

사람 궁금하게 만드는 문장은 what절로 주어를 만든 후 궁금증을 풀어준다.

Self-writing

1 우리가 조금 늦은 것은 사실이다.

2 그녀가 부자인 것은 틀림없다.

3 내가 오늘 공부한 것은 수학이다.

4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5 Jen이 싫어하는 것은 고양이이다.

Unit 03

주어 만들기 3

시간 · 거리 · 날씨의 표현에서 주어 만들기

우리말과 영어는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말에서는 자연에 대한 존경심이 많은 것 같은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무슨 말이나 고요? 아래 글을 보면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영어 문법 시간에 많이 나오는 예문인데요. '비가 오고 있다.'를 영작해 보죠.

우리말은 '비'를 당당히(?) 주어로 표현해 주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문장에서 주격조사인 '은, 는, 이, 가'로 시작하는 단어라고 무조건 영어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비가 오고 있다'라는 문장과 같이 날씨를 표현할 때에는 우리말의 주어 '비'에 해당하는 자리에 형식주어 *it*을 대신 써 줍니다.

It is raining. 비가 오고 있다.

It is warm today. 오늘은 따뜻하다.

아래 예문을 보니 자연뿐만이 아니라 시간, 거리 등의 표현에서도 *it*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군요.

[시간]

It is two o'clock. 2시다.

It took 5 days to finish my homework. 숙제를 끝마치는 데 5일 걸렸다.

It will be summer soon. 곧 여름이 될 거다.

[거리]

It is 20 kilometers to the airport. 공항까지 20 킬로미터다.

[날씨]

It looks like rain. 비가 올 것 같다.

It is fine today. 오늘 날씨가 좋다.

[막연한 상황, 상태]

It is dark in the classroom. 교실 안이 어둡다.

How is it going with you? 요새 어떻습니까?

문법적으로 비인칭주어라고 하는 대명사 *it*은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많이 생소할 겁니다. 그렇다고 '시간, 거리, 날씨는 *it*으로 주어를 쓴다'라고 문법 공식처럼 외우지 말구요, 영어는 *it*을 참 다양하게 쓰는구나라고 이해해 두세요. 'it=그것'이라는 단순한 공식에서 벗어나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충분히 연습해 놓으면 좋겠죠?

영작기법
04

시간, 거리, 날씨 등 자연과 관련된 표현은 주어로 *it*을 쓴다.

Self-writing

1 어제 눈이 내렸다.

2 오늘은 매우 춥다.

3 내일은 날씨가 매우 좋을 것이다.

4 새 학교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5 여기에서 기차역까지 1시간 걸린다.

'사람이 한 명 있다'를 어떻게 영작할까요? '사람'은 human이고, '있다'는 be 동사니까 A human is. 이렇게 써놓고 보니 뭔가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날씨 등을 표현할 때는 it을 주어로 쓴다면,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에는 there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앞장에서 본 it은 분명하게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지만, there의 경우는 문장 맨 앞에 온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주어의 기능을 하는 건 아닙니다. there 뒤로 '동사+주어' 구문의 순서가 바뀌어 따라오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단/복수 구분을 잘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 명(개) 있으면 There is..., 여러 명(개) 있으면 There are...를 쓰고 바로 뒤에 진짜 주어를 보여 주면 됩니다. There is(/are)... 구문에서 단수, 복수 구분하는 건 실수하기 쉬우니까 주의하세요.

사람이 한 명 있다.

➡ There is a man.

There is... 구문에서 there를 문법책에서는 '유도부사'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문법용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 있다', '~ 없다'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there를 쓴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There is(/are)로 시작하고 그 뒤에 진짜 주어를 보여주면 OK지요. 예를 볼까요?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있다.

There are many students in the classroom.

진짜 주어

그럼 '우리 가족은 5명이다.'는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My family are 5.

이렇게 하면 될까요? 물론 안 됩니다. 'A is B'는 A=B라는 말입니다. 즉, I am 유소영은 '나=유소영'이라는 뜻이죠. '우리 가족은 5명이다'란 말은 '가족에 5명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A is B라 쓰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약간 변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은 5명이다.

영어식 변형 내 가족 안에는 5명이 있다.

➡ There are 5 members in my family.

진짜 주어

'있다', '없다'라는 표현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도 해당됩니다. '책이 한 권 있다'나 '사람이 한 명 있다'나 똑같이 there를 써서 주어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책이 한 권 있다.

➡ There is a book.

정말 쉽죠?

Self-writing

1 공원에 3마리의 고양이가 있다.

2 책상 아래에 쥐들이 있다.

3 시청 앞에 공원이 있다.

4 내 가방 안에 책들이 있다.

5 서점 옆에 레스토랑이 있다.

Unit 05

동사 만들기 1

시제 표현하는 법

동사는 주어와 함께 문장 전체의 '기본 틀'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데요. 영작할 때 동사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동사가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무쌍한 동사, 먼저 시제를 위한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 우리말에 있는 시제, 우리말에 없는 시제

동사가 문장 안에서 쓰일 때는 반드시 '시제'에 맞는 형태로 바뀌 줘야 합니다. 동사원형은 단어일 뿐, 문장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먼저 study라는 동사를 가지고 영어의 기본 시제를 정리해 봅시다.

I will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미래)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현재)
I am studying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진행)
I have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해 왔다.	(현재완료)
I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했다.	(과거)
I had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했다.	(과거완료)

물론, 문법적으로 구분해 놓으면 우리말 시제에다 '현재진행'과 '현재완료' 그리고 '과거완료' 세 가지만 추가하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영작을 할

때 어떤 시제를 선택해야 할지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과 영어의 시제에 대한 뉘앙스와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시제의 종류를 알고 있다고 해서 문장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2 • 단순현재와 현재진행형 구분하기 : 늘, 항상 vs 지금 이 순간

초보가 영작을 할 때 가만 보면 현재진행형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고 있다’라는 우리말 표현을 무조건 -ing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내가 생각 없이 -ing를 썼구나 하실 겁니다.

우선 예문을 보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지요. 두 가지 모두 현재시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I **drink** vitamin to maintain health.

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비타민을 먹는다.

I **am drinking** vitamin.

나는 비타민을 먹고 있다.

• 약을 먹을 때는 eat나 have 가 아닌 drink나 take를 씁니다.

첫 번째 문장은 ‘평소에’ 비타민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지금 이 순간에 먹고 있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단순현재시제는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현재진행은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행위, 동작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을 꼭 집어 이야기할 때만 진행형을 써야 하며, 이를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행동에만 진행형을 쓰세요. 그리고 평

소의 습관이나 행동 즉, 일반적인 것들은 현재형으로 쓰고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를 영작할 때 ‘돌고 있다’에만 신경 쓰다보면 진행형으로 쓰기 쉽습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은 늘 있는 행위, 사실이므로 현재형으로 영작을 하는 센스가 필요하죠.

The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

The Earth is revolving around the Sun.이라고 영작하면 그럼 옛날에는 안 돌았다는 얘기냐, 하고 누군가 반문할 수도 있겠죠?

영작기법
06

‘~하고 있다’를 영작할 땐 늘 있는 일인지 일시적인 일인지 확인하자.

2 • 현재완료와 과거 구분하기: 아직 안 끝났다 vs 완전히 끝났다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를 영작하면 아래처럼 두 가지로 영작할 수 있습니다.

I have lost my watch.

I lost my watch.

두 문장 모두 우리말로는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입니다. 근데 분명히 두 문장의 시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현재완료는 간단히 말해 ‘과거의 동작+현재의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완료가 쓰인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시계를 잃어버려서(과거의 동작)+현재 시계가 없다(현재의 의미)’는 뜻이 되는 거고, 단순과거가 쓰인 두 번째 문장은 ‘과

거에 시계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로 문장의 의미가 끝나버립니다.

그럼, 시제와 관련된 문장을 좀더 영작해 보도록 하죠. 아래 문장을 볼까요?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공부했다.

since와 have studied가 쉽게 떠올려 지나요? 이 두 단어가 쉽게 떠올려지면 곧 조금 딱지가 떨어질 것 같네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since ~이래로', 'have studied 공부해왔다' 식으로 단편적으로 암기해왔다면, 영작할 때 단어 선택 능력이 떨어집니다.

'영어를 공부했다'는 사실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문장의 시제는 현재완료로 써주고, 과거의 특정 시점을 밝혀주기 위해 '~이래로, ~때부터'라는 뜻을 가지는 since 구문을 써야 한다는 거죠.

I have studied English **since I was in high school.**

즉,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고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공부를 해왔다) 이어지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현재완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했다'는 과거시제로, '~해왔다'는 현재완료 식으로 단순하게 연결시키지 말고, 문장의 전후관계를 잘 살펴 올바른 시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작기법
07

과거의 동작이 현재까지 이어져 올 때는 '현재완료' 시제를 쓰자!

Self-writing

1 일요일에도 영업을 한다.

2 나는 건강을 위해 달리기를 한다.

3 지금 밥 먹고 있어.

4 나는 10살 때부터 영어를 공부해 왔다.

5 그녀가 사준 시계를 잃어버렸다.

우리 대부분은 영어 단어를 익힐 때 기본형을 알아둡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동사원형을 익히는 거죠. '달리다' 하면 run,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만을 익혀두니 영작을 할 때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에 찢찢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형은 말 그대로 원형일 뿐, 실제 영작할 때는 상황에 맞게 동사를 변형시켜야 합니다.

'달리다'의 경우를 보더라도 '달리다', '달려야 한다', '달렸으면 좋겠다', '달리면 안 된다', '달렸다', '달리고 있다' 등등 정말 많은 표현이 '달리다'에서 파생될 수 있는데 우리는 겨우 'run=달리다' 한 가지 경우만 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달리다'라는 동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조동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배운 동사의 시제도 동사의 의미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조동사는 이보다 훨씬 더 동사의 의미를 죄지우지 한답니다.

1 • 조동사란?

조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를 말합니다. 문법적으로 조동사는 이해하기 쉽고 간단합니다. '조동사+동사원형'만 기억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조동사에는 동사의 뜻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I stop smoking. 나는 담배를 끊는다.

I will stop smoking. 나는 담배를 끊을 거다.

첫 문장은 '담배를 끊는다'라고 간단하게 말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조동사 will을 넣어보니 의미가 확 달라지죠?

조동사 각각의 기본 의미는 이미 알고 있을 테니, 여기서는 영작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조동사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 의무의 조동사 must/should 구분해 쓰기

'~해야 한다'라는 뜻의 조동사는 영작에서 특히 많이 쓰입니다. 영작할 때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You must stop smoking.

You should stop smoking.

두 문장은 똑같이 '너는 담배를 끊어야 한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분명, 다른 조동사를 썼네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must는 의무의 조동사 중 가장 '쎈' 친구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아주 강한 의무를 표현할 때 must를 씁니다. should는 그보다 '덜한' 의무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구요. 그러니까 must를 쓴 문장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것이고, should를 쓴 문장은 '웬만하면 끊는 것이 좋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You must stop smoking.

(위암에 걸린 환자에게)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을 겁니다.

You **should** stop smoking.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날걸?

그러니까 강하게 나의 주장을 말할 때는 **must**를 쓰고, 완곡하게 말할 때는 **should**를 쓰면 되겠네요.

3 • **must not / don't have to** 구분하기

A. 너는 지금 떠나면 안 된다.

B. 너는 지금 떠날 필요는 없다.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have to**는 ‘~해야 한다’는 의미로 **must**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부정문은 뜻이 다릅니다. 긍정문일 때는 의미가 같은데, 부정문일 때는 다른 의미라니 이상하죠? 헷갈리는 표현이니 잘 알아두세요. 일단, 두 문장을 영작하면,

A'. You **must not** leave now.

(‘~해야 한다’의 부정이니까 ‘~하면 안 된다’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B'. You **don't have to** leave now.

have to가 **must**랑 같은 뜻이니까 **don't have to**도 **must not**처럼 쓰일 것 같죠? 그러나 **don't have to**는 **need not to** 즉, ‘~할 필요가 없다’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면, ‘너는 지금 떠날 필요가 없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 **must not** ~하지 말아야 한다

• **don't have to** ~할 필요가 없다

4 • 추측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조동사

(1) 일반적인 추측의 조동사

일반적인 추측의 조동사로는 **may/might/could**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각각의 뉘앙스나 의미상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일일이 구분해 쓰려면 더 헷갈립니다. 가장 빨리 떠오르는 것을 쓰세요.

그는 한국에서 살 수 있다.

He **may/might/could** be in Korea.

(2) 강한 추측의 조동사 **must/cannot**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확실할 땐? **must/cannot**을 쓰면 됩니다. **must/cannot**은 추측이긴 하지만,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확신’이 들 때 쓸 수 있는 조동사입니다.

그는 분명 한국에 있을 것이다.

He **must** be in Korea.

must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의무’의 조동사로 쓰일 뿐 아니라 지금처럼 ‘강한 추측’의 조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강한 추측인데, 부정문으로 쓰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강한 추측의 부정이라고 했으니까 must not을 쓰면 될까요? 안 됩니다. must not은 앞에서 본 것처럼 ‘~안 된다’라는 뜻이니까요. must의 강한 부정 ‘~일리 없다’라고 할 때는 cannot을 써야 합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그는 한국에 있을 리가 없다.

He **cannot** be in Korea.

그는 한국에 있으면 안 된다.

He **must not** be in Korea.

5 • ~하곤 했다: 습관의 조동사 would / used to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었죠? would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 used to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으로 구분된다고요. 그런데 규칙적, 불규칙적으로 구분만 했지 실제로 어떤 경우에 쓰는지 따져보지 않았었지요. 다음 예를 볼까요?

C. I **would** collect stamps when I was a kid.

D. I **used to** collect stamps (when I was a kid).

둘 다 ‘나는 어렸을 때 우표를 모으곤 했다.’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두 문장은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would를 쓰면 ‘일정한 어느 때에 ~하곤 했다’라는 뜻이 있고, used to를 쓰면 ‘과거에 ~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C]에서처럼 ‘내가 어렸을 때’라는 과거의 특정 시점이

들어가는 경우엔 일반적으로 would를 많이 쓰고, [D]처럼 used to를 쓰면 ‘우표를 모으곤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6 • 그외 영작할 때 도움이 되는 조동사 용법

조동사의 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외우진 마세요. 입으로 되뇌면서 최대한 본인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만들어 보세요.

(1) should have -ed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못했다)

널 만났어야 했다. (못 만나서 아쉽다는 느낌을 전할 때)

I should have met you.

(2) could have -ed ~했을 수도 있다 /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합격할 수도 있었다. (불합격했음)

I could have passed the exam.

(3) may(/might) have -ed ~했을지도 모른다

그가 왔을지도 모른다.

He may have come.

(4) must have -ed ~했음에 틀림없다

그가 그 돈을 훔친 것이 틀림없다.

He must have stolen the money.

(5) can't(/couldn't) have -ed ~했을 리가 없다

그가 그 돈을 훔쳤을 리가 없다.

I can't have stolen the money.

(6) would have -ed ~했을 것이다

그가 그 돈을 훔쳤을 것이다.

He would have stolen the money.

위의 표현들은 조동사에 현재완료 시제가 덧붙여진 것입니다. 현재완료 시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완료=과거의 동작+현재의 의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조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덧붙여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추측을 하거나 아쉬움을 나타내기 위해 자주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각 조동사의 개별 의미와 완료 시제의 특성을 잘 생각해서 기억하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이상 조동사를 이용해 동사의 의미를 좌지우지(?)해 보았습니다. 영작을 할 때 동사 하나만 써서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면 조동사를 떠올려 보세요. 조동사의 풍부한 표현이 동사의 의미를 살립니다.

영작기법
08

동사 하나만 써서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면 조동사를 떠올리자.

! 알아두면 좋은 조동사 관련 관용 표현들

- would rather A than B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I **would rather** stay **than** go. 안가고 차라리 머물러 있겠다.
- would like to v ~하고 싶다
All of us **would like to** get rich.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 may(/might) well...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마 ~일 것이다
You **may well** be right. 네가 옳은 것은 당연하다.
- may(/might) as well A than B B 하느니 A 하는 것이 낫겠다.
One **may as well** know nothing **than** know things by halves.
반만 아느니 모르는 것이 낫다.
- cannot help -ing / cannot but v ~하지 않을 수 없다
I **couldn't help laughing** at his stories. 그의 이야기에 안 웃을 수가 없었다.

Self-writing

1 지금 출발할 필요는 없다.

2 그녀는 안 올지도 모른다.

3 그녀가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있을 리가 없다.

4 그 경기를 이길 수도 있었다.

5 네가 시험에 떨어졌을 리가 없다.

Unit 07

동사 만들기 3

감정의 표현 방법

영작을 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 감정을 묘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 표현은 보통의 영작책에서는 형용사와 같이 설명하지만, 여기에서는 동사와 함께 다루겠습니다. 동사와 함께 다루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쉽거든요.

보통 우리 감정은 외부에서 자극받아 생긴 것이므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은 수동태 형식이 많습니다.

그럼 먼저 수동태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감정 표현을 하는지 알아보죠.

1 • 수동태는 능동태를 바꾼 것이 아니다

학교 영어 시간에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지요. 수동태를 막연히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동태는 능동 문장에서 파생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수동태 자체의 개념을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수동태 문장을 쓸 때 능동태를 먼저 쓰고 변환하는 식으로 영작을 하는 번거로움은 이제 그만 잊어버리자구요. 수동태 문장은 그냥 수동태 문장으로 받아들이어서 쓰면 됩니다. '어떤 것에 의해 어떻게 되었다'고 말이지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되었다, 어떤 것에 의해

➡ 이건 만들어졌다, 그에 의해

➡ It was built by him.

2 • 사람의 감정 표현은 수동태로 쓰자

기쁘다, 슬프다, 행복하다 등등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이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능동) 아니라 외부 상황에 의해 반응되는 것(수동)이지요.

네가 성공해서 기뻐.

➡ I am pleased with your success.

'기쁘다'는 감정은 상대방의 성공을 보고 생겨난 것이지,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란 거죠.

3 • 수동태 문장에 전치사 by만 있는 건 아니다

능동태를 수동태로 만들 때, [전치사 by + 목적격] 형식이 따라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동형 문장 다음에는 무조건 by를 써야 할 것같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전치사 구문이 올지는 '문맥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It was built by him.

위 문장은 그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거니까 전치사 by가 어울립니다.

I'm pleased with his success.

이 문장은 그의 성공에 '대해서' 기쁘다는 감정이 생긴 거니까 with를 쓴 거고요.

이렇게 문맥에 따라 쓰이는 전치사는 다릅니다. [수동형 + 전치사] 형식으로 자주 쓰이는 구문은 따로 익혀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 be based on ~에 의한다 (기반한다)

It is based on a sound foundation. 이것은 기초가 튼튼하다.

■ be composed of ~로 구성되어 있다

A community is composed of individuals.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로 되어 있다.

■ be crowded with ~로 붐비다

It's crowded with lots of people. 사람들로 붐빈다.

■ be disappointed with ~에 실망하다

He was very disappointed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그는 부시정부에 실망을 많이 했다.

■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을 가지다

I am very(/much) interested in music. 나는 음악에 많은 흥미가 있다.

■ be known as ~로 알려져 있다

She **is known as** a pop singer. 그녀는 팝송 가수로 알려져 있다.

■ be known for ~로 유명하다

The hotel **is known for** its excellent cuisine.

이 호텔은 훌륭한 요리로 유명하다.

■ be pleased with ~에 기뻐하다

I **was pleased with** your success. 나는 너의 성공에 기뻐다.

■ be satisfied with ~에 만족하다

I'm not **satisfied with** the terms. 난 그 조건들에 만족하지 않는다.

■ be surprised at ~에 놀라다

I'm **surprised at** you. 네게 놀랐다.

초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수동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벌써 다 설명한 걸요. 다시 정리하면,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원인을 설명하는 문장은 수동태로 한다는 것입니다.

영작기법
09

감정이나 상황의 원인을 설명할 땐 수동태로 써주자.

Self-writing

1 그녀는 똥똥해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했다(ashamed).

2 나는 지금도 내 방에서 혼자 자는 것이 무섭다(afraid).

3 난 이런 결과에 만족 못해.

4 그 소식에 우리는 놀랐다.

5 그는 천둥소리에 겁먹었다.

6 그녀가 내 제안을 거절해서 난 당황했다.

지금까지 주어하고 동사 만드는 법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목적어 만드는 법을 볼까요? 목적어는 주어처럼 ‘명사’와 ‘명사 형태’를 목적어로 씁니다. 그래서 앞의 주어 부분에서 다룬 ‘동사를 명사의 형태로 만드는 법’, ‘문장을 명사의 형태로 만드는 법’ 등의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1 • 주어만큼 다양한 목적어의 형태

I don't mind **doing housework** at all. (동명사 구문)

나는 집안일을 하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는다.

Remember **to post this letter**, will you? (to부정사 구문)

이 편지 부치는 것 잊지마, 알았지?

I said to myself **that he was lying to me**. (접속사 that절)

나는 그가 내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혼잣말했다.

위처럼 동명사, to부정사 구문이나 that절 같은 하나의 문장도 목적어로 쓸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Unit 1 주어 만들기〉부분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즉 ‘명사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구문은 목적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럼 하나씩 볼까요?

2 • to 부정사/동명사로 목적어 만들기

달랑 명사 하나로 목적어 만드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영작을 하다 보면, to부정사나 동명사를 이용해 동작의 뜻이 담겨진 목적어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Unit 1에서 주어를 만들 때 공부했었죠?

그런데 주어를 만들 때는 to부정사나 동명사를 가리지 않고 쓰는 데 반해 목적어를 만들 때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목적어는 동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동사의 뜻에 따라 to부정사를 쓰기도 하고 동명사를 쓰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보통 미래에 관련된 표현은 to부정사를 쓰고, 현재나 과거에 대한 표현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쓴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구요? 아래에 예문을 보시면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나는 담배 피우는 것을 멈췄다. (담배를 끊었다)

➡ I stopped smoking.

나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멈췄다.

➡ I stopped to smoke.

미래에 연관된 표현(담배 피우기 위해)은 to부정사를, 현재나 과거에 연관된 표현(담배 피우기를)은 동명사를 쓰고 있네요.

지금 우리가 다룬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아래처럼 ‘목적어로 to부정사를 좋아하는 동사’, ‘목적어로 동명사를 좋아하는 동사’ 등을 무슨 법칙처럼 나눠서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목적어로 to부정사를 쓸지 동명사를 쓸지 고를 수 있습니다.

■ 목적어로 to부정사를 좋아하는 동사들

want, decide, demand, plan, hope, agree, ask...

■ 목적어로 동명사를 좋아하는 동사들

avoid, admit, enjoy, deny, quit, give up...

want라는 동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말로 ‘~을/를 원하다’로 해석이 되는데 ‘원한다’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원하는’ 것이니 to부정사가 목적어로 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I want **to be a doctor**.

나는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동사 admit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을 인정하다’라는 뜻은 이미 발생한 일, 벌어진 행위를 인정하는 거니까 목적어로 동명사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He admitted **having done it himself**.

그는 자기가 그것을 했다고 인정했다.

영작기법
10

과거 · 현재에 연관된 것은 동명사로, 앞으로 일어날 일은 to부정사로 목적어를 만들자.

Self-writing

1 그녀는 일을 그만 두기로 결심했다.

2 그는 낚시하는 것을 즐긴다.

3 그는 가르치는 일을 그만둘까 생각 중이다.

4 그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부정했다.

5 그녀는 나에게 그를 나의 집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6 그는 일요일에 서울을 떠나려고 계획했다.

1 • 의문사를 이용한 목적어

what, when, how 등의 W/H 구문은 흔히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등의 표현이 들어가는 의문사 절은 영작할 때 목적어로도 자주 쓰입니다.

우선 아래 예문을 먼저 볼까요?

그가 뭘 만들 건지 모르겠어.

위 문장을 좀더 영작하기 편하게 변형하면,

나는 그가 무엇을 만들 건지 모르겠다.

위 문장을 찬찬히 살펴보니 내용상 2개의 문장이 보이네요. '나는 모르겠다' 와 '그가 무엇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네요. 그럼 순서대로 한번 영작을 해볼까요?

A. 나는 모르겠다.

B. 그가 무엇을 만들 것인지

[A]는 쉽죠? I don't know.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B]를 볼까요? [B]를 문장으로 풀어 써보면 '그가 무엇을 만들 것이다 → he will make what(무엇)'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B] 부분은 위 문장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문사 what을 맨 앞으로 보내어 명사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what he will make,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을 I don't know 뒤에 붙이면,

I don't know what he will make.

목적어

의문사 what을 이용한 절이 I don't know의 목적어로 쓰인 것을 유심히 보세요.

그럼 아래 예문도 한번 영작해 볼까요?

어떻게 운전하는지 가르쳐줘.

이 문장은 '나에게 가르쳐주다' 와 '어떻게 운전하는지'가 합쳐진 문장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문장을 두 개로 쪼개서 영작해 봅시다.

A. 가르쳐줘

B. 내가 어떻게 운전할 수 있는지

A'. Please, teach me

B'. I can drive a car how

[B']에서 의문사 how를 앞으로 보내 teach me 뒤에 붙이면,

Please, teach me **how I can drive a car.**

역시 의문사 how를 이용한 절이 teach me의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how절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how to 구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how I can drive a car ➡ how to drive a car

이렇게 말이지요.

그 외에도 when, why 등으로 시작하는 의문사절 역시 목적어로 쓸 수 있습니다.

Tell me **when the movie starts.**

영화가 언제 시작할지 말해줘.

I want to know **why I have problem in sleeping.**

잠자는 데 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

결론적으로 의문사의 뜻만 알면 이를 응용해 얼마든지 길고 복잡한 목적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등의 의문은 우리가 살면서 항상 접하는 것이니 당연히 영작할 때도 쓸 일이 많겠죠? 많이 연습해 두세요.

영작기법
11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등등의 표현이 들어가는 목적어는 의문사를 이용해 만들자.

2 • ~인지 아닌지를 영작하는 whether(if)절

상황이 불확실하면 '일까', '아닐까' 하고 고민합니다.

'합격일까, 아닐까', '그 애가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고민이 많아지면 친구한테 이메일도 써보고 밤에 혼자 일기도 써보고 하면서 마음을 달래는데요. 이렇게 나의 심정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아래 글을 영작해 보세요.

합격일까, 아닐까 궁금하다.

딱히 어떤 표현을 이용해 영작할지 모르겠다면 그 유명한 whether or not이 섭섭해 하겠네요. whether or not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일까 아닐까?' 라고 외웠던 것이 아니라 막연히 '~인지 아닌지' 라고만 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를 좀더 유연하게 쓰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영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합격일까, 아닐까 궁금하다.

➡ 나는 궁금하다 합격인지 아닌지

상황이 불확실할 때 쓰는 표현인 whether or not을 적용하면,

I wonder whether I will pass the exam or not.

별로 어렵지 않죠? 예문을 몇 개 더 볼까요?

그 애가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I wonder **whether he likes me or not**.

그녀가 올지 안 올지 궁금하다

I wonder **if she will come or not**.

그 애가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녀가 올지 안 올지 등등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whether or not**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명사나 명사 형태만이 목적어가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 본 **whether** 구문 역시 명사 형태 즉, 명사절로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 형태이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도 있구요.

그가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Whether he likes me or not is not important.

한 가지 알아둘 점은 **whether**절은 주어, 목적어 둘 다 쓸 수 있지만 **if**절은 목적어로만 쓸 수 있습니다. 잘 구분해 쓰도록 하세요.

It's not important **if he likes me or not**. (○)

If he likes me or not is not important. (×)

영작기법
12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whether or not**으로!

Self-writing

1 이 전화 어떻게 쓰는지 알려줘.

2 방과 후에 뭘 할 건지 적어라.

3 그는 언제 떠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4 왜 늦었는지 말해!

5 네가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는 내일 알려줄 수 있다.

주어와 목적어를 배웠으니 이제는 이것들을 보충 설명해 주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I am.이라는 문장을 한번 볼까요? 주어(I)와 동사(am)가 갖춰졌는데도 의미상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군요. 그럼 I am smart.라고 해보죠. 이젠 좀 뜻이 통하는 것 같아요? 형용사 smart를 넣으니까 주어 I가 어떻다는 설명이 되는군요. 바로 이 smart가 보어입니다. 주어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주격보어'가 되는 거구요.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목적어를 설명하는 보어는 '목적격보어'라 합니다.

영어의 품사 중에서 보어는 그 자체로 설명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주어나 동사처럼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단지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1 • 보어로 주어 설명하기: 주격보어

She looks young.

그녀가 어때 보인다고요? 젊어 보인다는군요. 주어 she를 설명해 주는 보어로 형용사 young이 왔습니다. 이처럼 형용사로 주어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형용사 외에 명사 또는 명사 형태로도 주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문을 보세요.

She is a famous actress. (주격보어: 명사 형태)

그녀는 유명한 배우이다.

My favorite hobby is reading a book. (주격보어: 명사 형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독서이다.

My dream is to become a doctor. (주격보어: 명사 형태)

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The question is who will take up the dangerous task. (주격보어: 명사 형태)

문제는 그 위험한 일을 누가 맡을 것인가이다.

He became a doctor. (주격보어: 명사)

그는 의사가 되었다.

Her dress is beautiful. (주격보어: 형용사)

그녀의 드레스는 아름답다.

You look happy. (주격보어: 형용사)

넌 행복해 보여.

예문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듯이, 주격보어는 동사만으로 의미가 완성되지 않을 때 필요합니다. be, become 등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어의 형태가 형용사, 혹은 명사 형태로 와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십시오.

2 • 보어로 목적어 설명하기: 목적격 보어

보어는 주어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도 설명해 줍니다. 보어로 목적

어를 설명하는 법은 좀 까다로우니까 자세히 보는 것이 좋겠네요.

I think him **honest**.

나는 그를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를(him) 생각하는데, 그가 정직하다(honest)고 생각하고 있네요.
him(목적어)을 honest(목적보어)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어+동사+
목적어+목적보어’의 순서로 쓰면 됩니다.

He found Kate **sitting on a chair**.

그는 케이트가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위 문장의 목적격 보어는 좀 복잡해 보이네요. 일단 목적어까지 끊어보죠. He found Kate.가 되겠죠? 그리고 케이트가 ‘뭘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어
서 현재분사 구문인 sitting on a chair로 목적격 보어를 써주었습니다. 예문을
좀 더 볼까요?

They call me **Alice**. (목적격 보어: 명사)

그들은 나를 Alice라고 부른다.

I recollect him **saying so**. (목적격 보어: 현재분사)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이 생각난다.

I left the door **unlocked**. (목적격 보어: 과거분사)

나는 문을 열어놓은 채 나왔다.

The news made me **happy**. (목적격 보어: 형용사)

그 뉴스는 나를 행복하게 했다.

His rude remarks left me **in a very bad mood**. (목적격 보어: 전치사구)

그의 거친 언급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목적격 보어는 주로 make, let, help 등의 사역동사나 hear, listen to 등의 지
각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에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형용사나 명사뿐만
아니라 분사구문, 전치사 구문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적보어로 만들면 문장이 복잡해진다고 어렵게 생각
하지 마세요. 목적어까지 만들었을 때 목적어를 설명해 줄 뭔가를 보어라고 생각
하고, 의미대로 쓰면 됩니다.

영작기법
13

보어를 이용하면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할 수 있다.

Self-writing

1 난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 우리는 그를 회장으로 뽑았다.

3 차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4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났다.

5 그녀에게 파티에 가지 말라고 했다.

6 뭐, 신나는 일 없냐?

Unit 11

문장의 알짜배기들 다시 정리하기

주어/동사/목적어/보어

처음 서문에서 '영작은 문장의 알짜배기(주어/동사/목적어/보어)를 만들어가는 것' 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우리는 문장의 알짜배기를 만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문장의 알짜배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영작이 가능합니다. 조합만 잘하면 되니까요. 어떤 문장은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가능하고, 어떤 문장은 보어나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러한 조합인데요, 문법책에서 '문장의 5형식' 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아, 문장의 5형식 또야? 그걸 얼마나 많이 공부했었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겹게 공부했죠? 그런데 우리 초보들은 여태까지 1형식부터 차례대로 외우기만 했지 정작 영작할 때 무슨 형식의 문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작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만 잘 파악하면 쉽게 영작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여기서는 주어/동사/목적어/보어의 문장의 4가지 알짜배기를 가지고 형식에 맞게 영작하는 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 • 주어/동사

She runs. 그녀는 달린다.

무지 간단하고 짧은 문장입니다. 간단해도 완벽한 문장이죠. [주어+동사]가 들어가면 일단 영작문의 절반 이상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어+동사’는 모든 영작문의 출발점이다.

2 • 주어/동사/보어

He is.

주어, 동사만으로는 의미가 안 통하죠? 그럴 땐 보어를 넣어 보세요. ‘그가 어떻게’는 식으로 더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럼 ‘그는 잘생겼다.’라고 해봅시다.

He is handsome.

주어와 동사를 썼는데 의미가 안 통하면 보어를 넣자.

3 • 주어/동사/목적어

He likes. 그는 좋아한다.

주어와 동사로 일단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뭘 좋아하는지’를 말해주면 좋을 텐데요. 그럼 ‘그는 수영을 좋아한다.’고 해보죠.

He likes swimming.

문법책에 보면 자동사/타동사를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굳이 구분해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와야 자연스런 문장이 된다면, 그 문장 속 동사가

바로 타동사입니다.

동사 뒤에 ‘~을/를’이 오는지를 따져보자.

4 • 주어/동사/목적어/목적어

그가 내게 책을 줬다.

He gave a book to me. / He gave me a book.

a book과 me, 두 개의 목적어가 나왔네요. 문법적으로 give와 같이 목적어를 두 개 가져오는 동사를 수여동사라고 하지요.

선물을 준다고? 그럼 누구에게(목적어) 뭘(목적어) 주는지 써주자.

5 • 주어/동사/목적어/보어

He saw me. 그는 나를 보았다.

이 상태로 문장을 끝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좀더 자세하게 써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보았는데, 뭘 하고 있는 나를’ 처럼 말이죠. 이때 보어를 떠올리면 됩니다.

He saw me swimming. 그는 내가 수영하고 있는 걸 보았다.

이상으로 문장의 알짜배기들이 어떤 식으로 조합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작 초보들은 문장의 5형식을 미리 염두에 두고 영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장은 3형식으로 해야겠다' 라고 결정한 뒤 주어, 동사, 목적어를 따로따로 영작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습관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요소를 구분해서 생각하지 말고 주어와 동사를 기본 틀로 만들고 필요한 알짜배기를 하나씩 채워나가보세요. 저절로 문장이 완성될 것입니다.

Self-writing

1 나는 맹세한다.

.....

2 그는 부산 출생이다.

.....

3 그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

4 그녀에게 콘서트 티켓을 줬다.

.....

5 그녀가 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

지금까지 문장의 알짜배기와 조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어문장에 대한 큰 틀을 이해한 것이고, 영작의 가장 중요한 밑천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장의 알짜배기만 가지고 영작을 하려니 좀 심심하기도 하고 의미가 풍부하게 살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문장의 알짜배기에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식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식어란 꾸며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수식어를 잘 쓰면 문장이 훨씬 생생한 느낌을 줍니다. 초보가 영작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문장의 알짜배기가 아닌 바로 수식어이지요. 앞으로 여러 Unit를 통해 수식어를 공부하려 합니다. 관계사, 전치사, 부사절 등등...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것들이 얼마나 쉽게 이해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1 • '주어+동사'로 명사 수식하기

'주어+동사'로 명사를 수식한다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절'이란 놈과 '구'란 놈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식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하고 '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절은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긴 글을 말하고, 구는 두 단어 이상의 긴 글이긴 한데 '주어+동사'의 형태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형용사처럼 단어 하나로 이루어진 간단한 수식어도 있지만, 어떤 수식어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아래 예문을 볼까요?

A. 멋진 차

B. 내가 어제 너한테 준 차

[A]는 '멋진'이라는 한 단어로 '차'를 수식하고 있고, [B]는 밑줄 친 부분이 '차'를 수식하고 있네요. 다시 말해 [A]에서 수식어는 형용사로, [B]에서 수식어는 문장(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 분사, 그리고 문장 등이 있는데, 이중 형용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간단히 명사 앞에 놓으면 됩니다.

멋진 차 → nice car

재미있는 이야기 → interesting story

유명한 장면 → famous scene

쉽지요?

그런데 앞의 [B] '내가 어제 너한테 준 차'에서는 주어(내가)와 동사(주었다)가 명사(차)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절이 명사를 수식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말은 수식어가 아무리 길더라도 수식어는 수식받는 대상 앞에 위치하지만, 영어는 수식어가 좀 길다 싶으면 수식받는 대상 뒤로 간다.

그러니 절로 된 수식어는 당연히 꾸밈을 받는 대상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B]를 영어식으로 풀어 보면,

차 - 내가 어제 너한테 준

이렇게 됩니다. 우선 '차' 라고 써 놓고 그 차가 무슨 차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을' 사용해서 단어와 문장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을'에 해당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관계사라는 친구입니다.

관계사!! 학교에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영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전 관계사를 꼽습니다. 관계사는 문장을 복잡하고 길게 늘이기 때문에 헷갈린다고요? 맞는 말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관된 짧은 문장이 정리되지 않고 따로따로 나뉘어 있으면 오히려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관계사절을 쓰면 두 개의 연관된 문장을 하나의 긴 문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간결한 영작을 할 수 있지요.

관계사를 이용한 문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면 영작 초보의 딱지를 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관계사를 좀더 자세히 볼까요?

2 • 관계사 who/which/that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영어식 변형 사람 - 내가 사랑하는

→ the man who(m) I love

내가 사고 싶었던 차

영어식 변형 차 - 내가 사고 싶었던

→ the car which I wanted to buy

내가 좋아하는 책

영어식 변형 책 - 내가 좋아하는

→ the book that I like

맨 아래 구문을 볼까요? 책은 책인데 '내가 좋아하는 책' 이라고 말하고 있군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니 '주어+동사'가 다 들어가는 절입니다. 절의 형태는 대부분 뒤에서 수식하니까 뒤로 빼고 '관계사'를 이용해 연결했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사를 골라 써야 하나요? 꾸며주는 말이 사람일 때는 who를 써주면 되구요, 사물일 때는 that, which 두 개 다 쓸 수 있습니다. 또 꾸며주는 말이 시간, 장소, 이유일 때는 각각 when, where, why를 씁니다.

3 • 관계사 when/where/why

시간/장소/이유와 관련하여 문장이 단어를 수식하는 글도 관계사를 이용해 쉽게 영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문으로 어떻게 관계사를 연결하는지 한번 보죠.

나는 시험에 합격한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영어식 변형 나는 잊지 못한다 그 순간 - 내가 시험에 합격한

→ I don't forget the moment when I passed the exam.

어때요? when으로 수식어구를 만드는 방법은 관계사 who를 쓸 때와 똑같죠? 두 문장을 when을 이용하여 훌륭하게 연결하였습니다.

이대로도 참 멋진 영작이죠. 그런데 한번 더 살펴보면 the moment와 when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the moment가 곧 when인데, the moment를

생략하면 더 세련된 문장이 됩니다.

I don't forget when I passed the exam.

예를 하나 더 보죠.

어제 어디다가 열쇠를 뒀는지 모르겠다.

영어식 변형 나는 모른다 그 장소를 - 내가 열쇠를 뒀던

➔ I don't know **the place** where I put the key.

➔ I don't know where I put the key.

영작 초보들도 대부분은 관계사에 대해 기초적인 용법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관계사를 쓰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막상 영작할 때 관계사를 떠올리기만 하면 어렵고 막막해지기 쉬운 거구요.

관계사절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문장 안에서 이 관계사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의 문장이 명사를 꾸며 줄 때는 명사 뒤에서 관계사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설명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영작기법
19

'주어+동사' 수식어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관계사절을 떠올리자.

Self-writing

1 어젯밤에 본 축구 경기는 지루했다.

2 너한테 맨날 전화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 말해봐.

3 네가 원하는 것을 골라.

4 언제 떠날 건지 말해줘.

5 나는 그가 왜 학업을 그만 뒀는지 안다.

1 • 부사는 수식의 달인이다

부사는 여러 가지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밖에 수식할 수 없지만 부사는 동사, 형용사, 문장 전체 그리고 다른 부사들을 수식합니다. 이만하면 수식의 달인이라 할 수 있겠죠?

앞에서 관계사를 간단히 요리한 것처럼, 이번에는 수식의 달인인 '부사'를 간단하게 요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는 수영을 잘한다.

영어식 변형 그는 수영을 한다 **잘**

He swims **well**.

그는 수영을 매우 잘한다.

영어식 변형 그는 수영을 한다 **매우** 잘

He swims **very** well.

위의 문장들은 '그는 수영을 한다.' 만으로도 문장이 성립됩니다. 여기에 '(매우) 잘'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그의 수영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주네요. 이렇듯 부사는 문장 내에서 생략되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부사는 꾸며주는 역할만을 하며, 문장의 뼈대를 이루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약간 복잡한 부사로 수식하는 것을 볼까요?

2 • 복잡한 부사로 영작하기

A. 그는 수영을 잘한다.

B. 그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해왔기 때문에 수영을 잘한다.

A'. He swims well.

B'. He swims well **because he has been swimming since he was young.**

[A']를 보면 well(잘)이라는 부사로 swim(동사)을 간단하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B']에서는 well(잘)이란 부사로 동사 swim을 꾸미고 있으면서 또 because 이하의 문장으로 앞 문장 전체를 꾸미고 있습니다. 즉, 문장이 문장을 꾸며주고 있는데, 이런 문장(절)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라는 거죠. 이처럼 부사절을 활용하면 아무리 복잡한 문장이라도 쉽게 영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사절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고요? 부사절도 형식상 하나의 문장이니 기본적으로 '주어+동사' 형식을 취해야 하고, 여기에 상황에 맞는 접속사만 붙여 주면 됩니다.

■ 부사절의 기본 형식: 접속사+주어+동사

그들이 콘서트를 본 후에

➔ after they watched the concert

비가 그쳤을 때

➡ when the rain stopped

그럼 부사절이 포함된 문장을 한번 영작해 볼까요?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이 책을 읽으렵.

영어식 변형 이 책을 읽으렵 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꾸밈말이 기니까 뒤로 댔죠?)

우선 '이 책을 읽으렵' 을 영작하면 why don't you read this book이 됩니다.

밑줄 친 '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은 전체 문장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절로 만들어서 연결합니다. 부사절을 만들 때는 '접속사+주어+동사' 로 하면 된다고 했죠?

동안 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 while I prepare dinner

이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면

Why don't you read this book while I prepare dinner?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정리가 되지요?

접속사의 종류

(1)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할 때

while ~하는 동안

before ~전에

whenever ~할 때마다

as ~하면서

after ~후에

as long as ~하는 한

as soon as ~하자마자

(2)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as/since ~때문에

(3)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

although / even though / though 비록 ~일지라도

while 반면에

(4) as를 이용한 접속사

(just) as ~처럼, ~대로

as if 마치 ~처럼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영작을 할 때 꾸며주는 말과 꾸밈 받는 말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배운 부사도 꼭 눈여겨보세요.

영작기법
20

복잡한 수식어가 동사/형용사/문장전체를 꾸며 줄 때 부사절로 연결하자.

Self-writing

1 그는 매우 빨리 배운다.

2 이 차는 무지막지하게 비싸다.

3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숙제를 마쳐야 한다.

4 그녀가 요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거실을 청소했다.

5 그는 비록 부유하지만,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Unit 14

수식어 영작하는 법 3

전치사구로 수식하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식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형용사와 부사에서 출발합니다.

좋은 차 (형용사)

예쁜 아기 (형용사)

매우 슬프다 (부사)

빨리 달린다 (부사)

그런데 아래처럼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수식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태풍에 놀란 사람들

빵을 배달하는 차

위의 예는 꾸며주는 말이 조금 길어졌지만 ‘주어+동사’의 형태가 아니니까 절은 아니구요. 그렇습니다, 바로 ‘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이와 같은 ‘수식어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치사를 이용한 수식어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 전치사를 이용해 명사 꾸미기

영어의 품사 중 하나로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는 전치사. 전치사는 영작할 때 표현하기 가장 어려운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말로로는 간단하게 '조사' 정도로 설명이 끝날 영역이지만, 영어의 전치사는 간단한 용법 설명을 떠나 고유의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앞에서, 영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관계사를 꼽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에서 설명하는 전치사 역시 관계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등 문장의 알짜배기를 잘 알고 있어도 영작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관계사와 전치사를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작을 할 때 전치사가 중요한 이유는 복잡하게 수식하는 말들을 전치사를 이용해 쉽게 영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사나 부사절을 이용할 때보다 간단하게 말입니다.

일단 아래 예문을 통해서 전치사로 수식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나는 건물 앞에 있는 빨간 차를 좋아한다.

한 문장 안에 '주어+동사'가 2개씩 있는 복잡한 문장이네요.

밑줄 친 '건물 앞에 있는'이 '빨간 차'를 수식하고 있는데, 수식어가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절로서 좀 낯섭니다. 길면 어떻게 하죠? 뒤로 빼면 되죠.

영어식 변형 나는 좋아한다 빨간 차 - 건물 앞에 있는

→ I like the red car, which is in the front of the building.

앞에서 배운 관계사 용법과 똑같죠? 그다지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좀더 살펴보니 우리가 문법 시간에 자주 배웠던 내용, 즉 '관계사+be 동사의 생략'이 머리 속을 지나갑니다. 위 문장에서 which is를 빼보죠. which is는 red car와 같은 것이니까 생략이 가능합니다. 우리말로 '건물 앞에 있는 빨간 차'를 줄이면 '건물 앞의 빨간 차'가 되잖아요. '건물 앞에 있는 빨간 차'는 '절'이라서 관계사를 이용해 영작을 했구요. '건물 앞의 빨간 차'는 '구'라서 전치사를 이용합니다. 전치사를 이용해서 영작을 완성하면,

→ I like the red car in front of the building

또 다른 예를 보면서 위의 영작 개념을 확실하게 내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책상 위에 있는 책은 내 것이다.

영어식 변형 책 - 책상 위에 있는, 내 것이다.

→ The book, which is on the table, is mine.

→ The book on the table is mine.

어때요? 전치사를 이용하니 명사를 쉽게 수식할 수 있죠? 관계사와 비교하면서 연습해 두세요.

영작기법 21 수식어구가 명사를 꾸며 줄 때 전치사로 연결하자.

2 • 전치사를 이용해 동사나 문장 전체 꾸며주기

전치사를 이용하면 영작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앞에서는 전치사로 명사를 쉽게 수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치사를 이용

해 동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법을 배워보죠.

동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와 부사절이 한다고 했습니다. 부사절은 긴 문장이니까 좀더 까다로웠었죠? 그런데 전치사를 이용하면 부사절처럼 긴 문장으로 하는 수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문법적으로는 '전치사구' 라고 합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그는 사업차 일본에 갔다.

영어식 변형 그는 일본에 갔다. 사업차

영작을 하려니 '사업차' 라는 표현이 걸리는군요. 쉽게 '사업을 위해' 라고 해봅시다. '~을 위해' 는 **for**를 쓰면 되니까, '사업을 위해' 는 for business 하면 되겠네요.

He went to Japan **for business**.

예를 더 보죠.

크리스는 해변에서 태양을 즐기고 있다.

영어식 변형 크리스는 태양을 즐기고 있다. 해변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필요하네요. **on**을 씁시다.

Chris is enjoying the sun **on** the beach.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곳에 서 있었다.

영어식 변형 그는 그곳에 서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손을 넣은 채' 에서 '~채' 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떤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표현할 때는 **with**를 많이 쓰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 잘 익혀 두세요.

He stood there **with** his hands in his pockets.

지금까지 전치사를 어떻게 쓰는지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전치사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꼭 사전을 찾아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전치사는 뜻을 알고 있어도 영작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of는 '~의' 로, at은 '~에' 등으로 하나의 뜻만 단순히 외우지 말고 각각의 전치사가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꼼꼼히 따져보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치사 사용의 예

(1) 시간

- **at**: 짧은 시점을 말할 때 씁니다.

at first, at noon, at dawn, at midnight, at the end of

- **in**: at보다는 긴 시점을 말합니다.

in summer, in 2004, in a week(일주일 이 지나면)

- **on**: 특정한 때를 가리킬 때 씁니다.

on my birthday, on a rainy day

- **by**: ~까지

I have to report it by tomorrow. 나는 내일까지 그것을 보고해야 한다.
(동작의 연속성은 없습니다. 보고하는 것은 한순간이지요.)

- **until**: ~까지

I will wait for him until tomorrow. 나는 내일까지 그를 기다리겠다.
(동작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 **for**: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씁니다.

for 2 months, for 5 days

- **during**: 구체적인 숫자가 아닌 기간을 뜻하는 단어와 함께 씁니다.

during vacation, during weekends

(2) 위치

- **across**: 가로지르는

I walked across the river. 강을 가로질러 건넜다.

- **along**: ~을 따라

I walked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 걸었다.

- **between**: 둘 사이에

between you and me

- **among**: 셋 이상일 때

A lot of birds are singing among trees.

많은 새들이 나무 사이에서 노래하고 있다.

- **to/into**: ~한 결과가 되다

She was hungry to death. 그녀는 굶어서 결국 죽었다.

Water is frozen into ice.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었다.

(3) 장소

- **at**: 좁은 장소

at the station, at the door, at the class room

- **in**: 넓은 장소

in Seoul, in the world

영작기법
22

수식어구('주어+동사'의 형태가 아닌 것)를 부사처럼 쓰고 싶으면 전치사를 쓰자.

Self-writing

1 난 강을 따라 걷는 것을 좋아한다.

2 이 환자는 외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3 나는 빨간 재킷을 입은 저 사람을 좋아한다.

4 나는 그녀에게 그것을 사지 말라고 설득했다.

5 난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일을 강요할 순 없어.

Unit 15

수식어 영작하는 법 4

동사로 명사를 꾸며줄 때

앞장에서 다양한 전치사구로 문장을 수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또 다른 녀석, '분사구문'을 배울 차례입니다. '분사구문'까지 배우면 수식에 대한 대부분의 영작기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기운을 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1 • 동사가 명사를 꾸며준다 : 현재분사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사용되는 명사를 예쁘게 치장하기 위해 흔히 형용사를 씁니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동작을 나타내 주는 말은 아니죠.

아래 예문을 볼까요?

A pretty girl sat over there.

'예쁜 소녀가 저기 앉아 있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pretty(예쁜)가 형용사로서 girl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작을 하다 보면 명사의 동작을 표현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

위의 글은 형용사 하나만으로 수식어를 만들기 어렵네요. 앞에서 배운 관계사절을 이용해서 만들어볼까요?

영어식 변형 사람 - 신문을 읽고 있는

A person **who is reading newspaper**

‘신문을 읽고 있는’이라는 표현이 기니까 뒤로 빼고 관계사를 이용해 연결해 줬죠? 그리고 ‘관계사+be동사’는 생략해도 되니까,

A person reading newspaper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을 분사 형태의 구로 만들어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이를 분사구문이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을 영작할 때 먼저 관계사절로 꾸밈말을 만들었다가 이를 다시 분사구문으로 바꾸지 않고, 바로 분사구문으로 꾸밈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예를 분사구문을 이용해서 바로 영작해 볼까요?

빵을 배달하고 있는 아저씨

➡ A man **delivering bread**

쉽게 되지요?

2 • 동사를 이용해서 명사의 ‘상태’를 꾸미는 법(~하게 된): 과거분사

앞에서 ‘~하고 있는’이라는 동작을 영작할 때는 reading, delivering 등의

-ing형을 썼습니다. 이처럼 명사의 행위나 동작을 수식하기 위해 동사를 -ing로 변형한 것을 ‘현재분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동사를 이용해서 명사의 ‘상태’를 꾸며주는 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문부터 한번 보지요.

우리는 태풍에 놀란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태풍에 놀란 사람들은 ‘놀란 상태’겠네요. 즉 태풍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사람들은 태풍에 의해 놀란 상태입니다. 헛갈리나요? 무엇이 행위를 했는지, 무엇이 행위의 대상인지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를 쓸 때 매우 중요하니까요. 사람들이 태풍에 놀람을 ‘당한 것’이니까 수식어구는 과거분사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영작을 해보면,

우리는 인터뷰했다 사람들을 - 태풍에 놀란

We interviewed people **who were surprised by the typhoon.**

➡ We interviewed people **surprised by the typhoon.**

‘태풍에 놀란’이 ‘사람들’을 수식해 주고 있는데, 수식해 주는 글이 기니까 뒤로 빼서 ‘사람들 - 태풍에 놀란’이 되었네요. 만약에 간단히 ‘놀란 사람들’을 영작한다면 수식어를 뒤로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surprised people**이라고 하면 되죠. 즉 과거분사 surprised가 다른 형용사처럼 꾸며주는 말 앞에 오게 되는 거죠.

We interviewed the surprised people.

현재분사(-ing)와 과거분사(-ed)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행위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파

악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현재분사와 과거분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나요? 그럼 좀더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3 • 놀라운 사람들과 놀란 사람들

신문이나 TV를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혹 나옵니다. 어린나이에 하버드를 합격했다는 등 말입니다. 별로 놀랍지 않다고요? 어쨌든 우리를 놀라게 한 사람들을 소개할 땐 어떻게 영작을 하면 될까요?

평범한 줄 알았던 크리스가 15살에 하버드에 합격했다. 그는 친구들을 놀라게 했고, 친구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스토리가 이렇다면,

크리스가 친구들을 놀라게 했고(Chris made friends surprised), 친구들은 놀랐고(Friends was surprised), 그래서 크리스는 놀라운 사람이네요.(Chris is a surprising person)

친구들은 놀람을 '당한 상태'니까 과거분사를, 크리스는 '놀라운 사람' 이니까 현재분사를 씁니다.

아래 예문을 보면 훨씬 명쾌해질 겁니다.

어제 영화를 봤는데, 재미없어 죽는 줄 알았어. 너무 따분하더라고. 날 그렇게 따분한 상태로 만든 영화는 참 오랜만이었어. 날 따분한 상태로 만든 따분한 영화.

그 영화가 날 따분하게 만들었고(The movie made me bored), 난 따분한 상태가 되었고(I'm bored), 그 영화는 따분해(The movie is boring).

상황 파악이 되나요? 따분한 영화를 보고 극장 밖에 나서면서 I'm boring.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I'm boring은 I make others bored 즉, 다른 사람을 따분하게 만드는 따분한 사람이라는 말이니깐요. 그러니까 I'm bored. 해야겠죠?

영작기법
23

따분한 영화는 boring movie, 영화 때문에 따분해진 나는 bored SoYoung.

Self-writing

1 데스크에 앉아 있는 저 여자가 이 가게의 주인이야.

2 저기 사과를 고르고 있는 여자가 우리 엄마야.

3 깜짝 놀랄 뉴스가 곧 발표될 거다.

4 불만족스러운 돼지가 되긴 싫어.

5 고객한테서 반송된 물품들은 따로 분리해 놔라.

Unit 16

희망 사항을 영작하는 법 1

만약이라고 해서 모두 가정문은 아니다

if절도 부사절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문법 시간에 if절을 따로 떼어서 배우는 것은 그만큼 헷갈리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는 듯싶다가도 막상 쓰려면 헷갈리는 if절을 우리도 따로 떼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if절을 배우기 위해선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가정법 공식 어찌고 하면서 배웠던 것은 잠시 접어두고, 다음을 볼까요?

1 • 외우지 말자. 왜? 외워도 잊어먹으니까

if절에 대해 시작하기 전에 절대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가정법 과거완료=If+주어+had+p.p, 주어+조동사 과거형+have+p.p] 이런식으로 말이에요. 달달 외우고 있다고 해도 영작할 때는 막상 도움이 안 되었던 걸 인정하고 넘어가자구요.

2 • 가정문과 조건문은 다르다

A. 네가 원한다면 사거라.

If you want, you can buy it.

B. 만약 내일 시간이 있으면 축구를 볼 거다.

If I have time tomorrow, I will watch a soccer game.

C. 만약 내가 부자라면, 그 집을 살 거야.

If I were rich, I would buy the house.

[A], [B]는 조건문이고, [C]는 가정문입니다.

조건문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것들을 조건으로 말한 것입니다. '네가 원한다면', '내일 시간이 있으면', '나와 결혼해 준다면' 등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반면에 가정은 사실과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2002 월드컵에서 한국이 우승했다면' 등등을 가정해 보는 것이지요. 그럼 [C]에서 나는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닙니다. 가정문은 사실의 반대를 말한 것이니까 부자가 아니라서 그 집을 못 산다는 거죠.

3 • 조건문의 시제

네가 원한다면 사거라.

If you want, you can buy it.

조건문은 시제 상으로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미래의 조건일 경우 현재형으로 써준다는 것 말고는 별것 없습니다.

만약 내일 시간이 있으면 축구를 볼 거다.

If I have time tomorrow, I will watch a soccer game.

'내일 시간이 있다면' 이라 했으니까, If I will have time tomorrow라고 미래형으로 해야 할 것 같지만 will을 생략하고 현재형으로 합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조건문에서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밍업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가정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위밍업까지 하고 if 가정법을 설명하려니 뭔가 대단한 내용이 나오나 싶죠? 딱
것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가정문을 만들 땐 시제를 하나씩 앞당겨 쓰자.

가정법은 사실의 반대라고 했습니다. 사실의 반대니까 시제도 사실과는 다르게
써야겠죠?

거두절미하고 예문으로 봅시다.

내가 지금 너라면, 그녀를 만나러 갈 거야.

‘내가 너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네요. 그래서 가정문으로 쓰는 것인데,
문장의 의미상으로는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정문을 만들 땐
시제를 하나씩 앞당겨 쓰니까 과거형으로 고쳐야 합니다.

If I were you, I would meet her.

(가정문에서 if 절의 be동사는 과거형을 만들 때 모두 were를 씁니다.)

한 시간 먼저 출발했다면 늦지 않았을 텐데.
A B

문장 의미상으로 과거니까 시제를 하나씩 앞당겨서 대과거와 과거완료로 쓰면
됩니다. A가 B보다 앞선 시제니까 A를 대과거로 쓰고 B를 과거완료로 합니다. (if
부분은 대과거로 써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If we had started one hour before, we would have not been late.

❗ 대과거란?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인 대과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보다 더 앞서서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Everyone had gone to bed when he arrived home.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상황이 있네요. A.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B. 그가 집에 도착했다.
내가 집에 도착한 시점도 과거이지만, 모두 잠자리에 든 시점은 그것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입니
다. 이때 (B)의 시제가 바로 대과거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장이 과거시제가 아니라면, 대과거는 존
재할 수 없습니다.

예문을 하나 더 볼까요?

너와 결혼했다면 지금 행복할 텐데.
A B

문장의 의미를 보면 A는 과거고, B는 현재죠? 그럼 가정문으로 바꾸면 A는 대
과거, B는 과거가 되겠네요.

If I had married you, I would be happy now.

시제를 하나씩 앞당기기! 가정문 영작할 때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문법을 영작의 관점에서 뜯어보았습니다. 문장의 알짜배기(주어/동사/목적어/보어)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들을 조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꾸며주는 말과 꾸밈 받는 말의 관계를 배워서 어떤 식으로 수식하는지도 살펴보고요.

이상에서 영작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마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나오는 Part 2는 영작에 필요한 테크닉을 배우는 장입니다. Part 1만 잘 소화해도 얼마든지 영작을 할 수 있지만, Part 2에서 영작 테크닉을 다뤄보면 영작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그럼 Part 2에서 뵙죠.

Self-wri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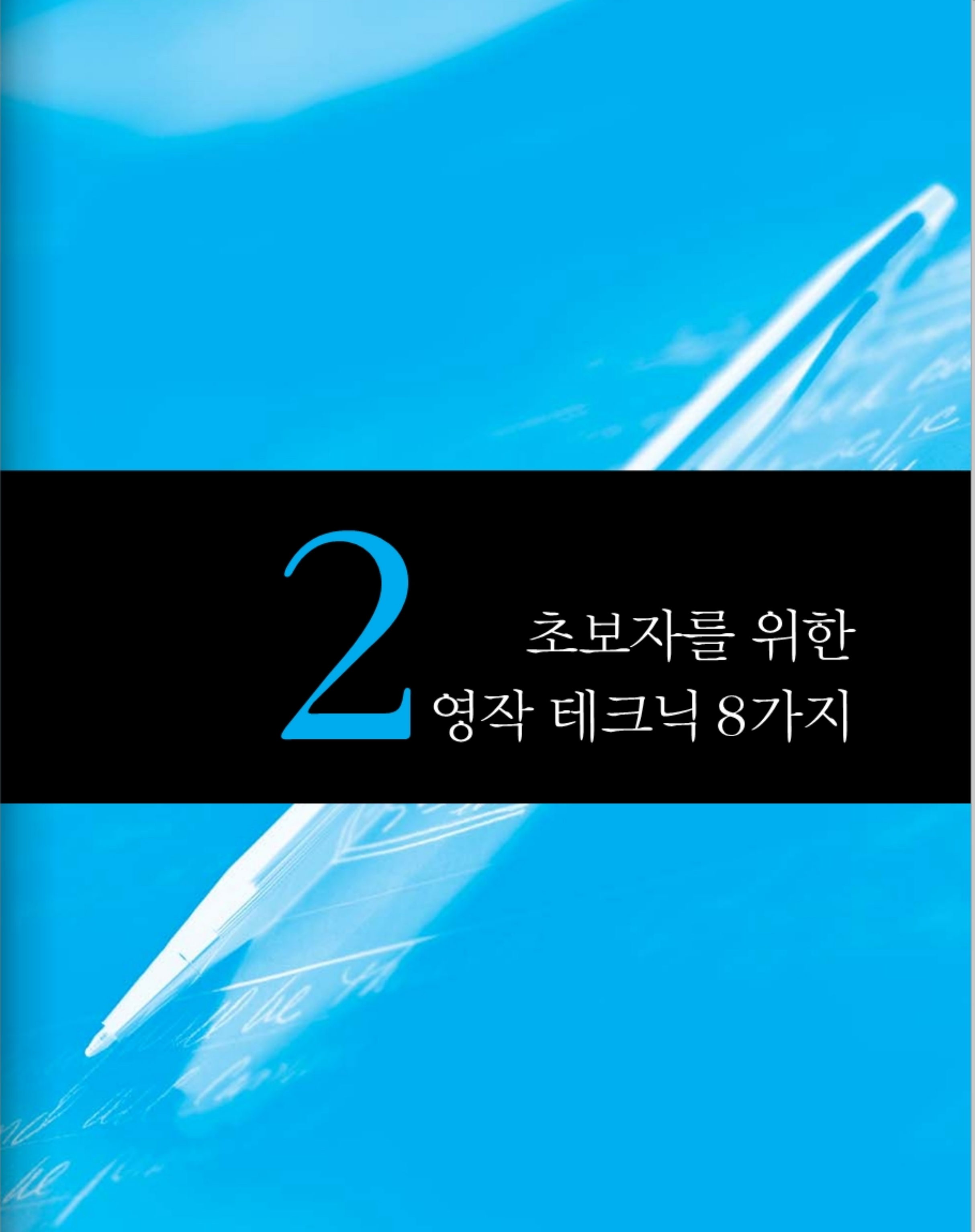
1 싫으면 버려.

2 비가 안 오면 소풍이나 가자.

3 내가 선생님이라면 영어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진 않을 거야.

4 제시간에 도착했더라면 그녀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5 네가 말한 대로 했더라면 지금 난 부자일 텐데.



2 초보자를 위한 영작 테크닉 8가지

쉬운 영작을 위한 Basic Process

Part 1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알짜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Part 1이 영어 문장을 이루는 '알짜배기' 들을 다루었다면, Part 2는 영작을 쉽게 하기 위한 테크닉에 대한 것입니다.

단어를 아무리 많이 외워도 영작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법책을 몇 권씩 때도 영작을 하려면 왜 이리 힘들까요?

토익 점수가 높아도 영작이 쉽게 안 되는 것은 단어 탃도 아니고 문법 탃도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회원님들과 영작을 공부해 오면서 깨달은 것인데요, 초보를 위한 영작 해결책은 의외로 쉬운 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풀어써라~!** 입니다. 영작하려는 우리말을 쉽게 풀어 쓰는 것이 영작을 쉽게 하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이 간단한 한마디가 얼마나 Powerful한지 Part 2를 공부하면서 계속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Part 2는 '우리는 영작 고수처럼 영작을 잘하지 못한다' 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초보자의 입장에서 영작 테크닉을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자구요.

어렵지 않으니 미리 겁먹지 마세요. 아래 제가 제시하는 <초보자를 위한 3단계 영작 순서>만 따른다면 쉽게 Part 2를 익히고 실전 연습인 Part 3으로 넘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초보자를 위한 3단계 영작 순서'가 뭔지 잠깐 살펴볼까요?

초보자를 위한 3단계 영작

영작 3단계는 '변형 → 토막 → 배열' 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제 1단계 : 변형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영작이 여전히 어려운 것은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작을 쉽게 하려면 우리말을 영어식으로 변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작 초보들은 머릿속 생각을 바로 영어로 표현하지 못할 테니까, 일단 우리말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꼼꼼히 따져보는 겁니다. 내가 쓴 우리말 문장이 '영작' 을 위한 쉬운 표현인지 말입니다.

아래 예문을 한번 볼까요?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새롭기 때문이다.

영작을 할 때 초보들은 무의식적으로 한국식 표현을 영어로 그대로 옮기려 하기 쉽습니다. 위 문장에서 '~는' 이 붙은 '이유는' 을 주어로 하여 The reason을 우선 쓰고, The reason을 꾸며주는 관계사절을 만들고, '때문에' 이니까 because로 연결해야 하는데 어디에다 연결해야 하나... 쓰기 전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좀더 쉽게 표현할 순 없을까요? 우선 의미상으로 위 문장을 두 개로 구분해 보지요.

나는 일본만화를 좋아합니다. 왜? 새롭기 때문에. 다시 표현해보면,

변형 나는 일본 만화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만화는 새롭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해놓으니 이것을 영어로 옮기는 것은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바로 이 변형의 단계가 <초보자를 위한 3단계 영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식으로 풀 수 있어야 영어로 쉽게 옮길 수 있으니까요.

변형 단계에서는 문장을 쉽게 하기 위해 주어 '나'를 찾아서 넣어줬습니다.

제 2단계 : 토막

1단계에서 '변형'한 문장을 영작하기 위해선 알짜배기 별로 문장을 토막 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문을 읽을 때 '끊어읽기'를 하는데, 이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짧은 문장은 상관없지만, 긴 문장 일수록 필요한 단계입니다.

토막 나는/일본 만화를/좋아합니다/왜냐하면/일본 만화는/새롭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토막을 내는 요령은 Part 1에서 배운 문장의 알짜배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주어 부분, 동사 부분, 목적어 부분, 보어 부분, 수식어 부분 등으로 말이죠.

제 3단계 : 배열

마지막으로 토막 낸 문장을 영문법에 맞는 순서대로 배열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문법에서 '어순'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지요. 나열된 의미들을 제대로 된 위치에 가져다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Part 1에서 문장의 형식을 설명할 때 배열하는 법을 배웠죠? (기억이 안 나는 분은 Part 1, Unit 11 참고)

배열 나는/좋아합니다/일본 만화를/때문입니다/일본 만화는/새롭기

자, 이제 영어식으로 배열된 문장에 영어 단어만 대입해 주면 영작이 완성됩니다.

영작 I like Japanese cartoon because it is fresh.

어떤가요? 영작의 큰 흐름이 느껴지나요? 1단계 즉, 변형만 잘 하면 뒤의 2, 3단계는 크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나름대로 요령이 있습니다. Part 2에서는 이런 요령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왜 우리말을 영작하기가 어려운지, 어떻게 쉽게 풀어 쓸 수 있는지 등의 영작 테크닉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2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꼭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Part 1은 가벼운 마음으로 휘리릭 읽어 봐도 영작에 큰 도움이 되지만, 이제 시작하는 Part 2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Part 2의 예문은 직접 영작을 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초보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해설을 보기 전에 예문을 직접 풀어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끄끙대고 고민하는 시간이 길수록 영작 실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시죠?

그럼 시작합니다.

안 보이는 주어 찾아서 보여주기

영작 해보기 (제한시간 6분)

1 아파서 학교에 가질 못했어.

2 6시까지는 꼭 제출해야 한다.

3 우리말에서 안 보이는 주어(subject)를 찾아서 보여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4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수영은 할 수 없다.

5 오랫동안 운전(driving)을 해서 힘들었지만, 푸른 동해를 보니 매우 기뻐다.

6 친구들한테 메일이 많이 온다.

영작 가이드

앞의 예문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바로 주어가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주어가 없다고 해서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그대로 영어로 만들자니 좀 어렵습니다. 우리말은 주어 없이도 얼마든지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영어는 주어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말 문장에서 안 보이는 주어를 찾아서 보여주는 것이 영작의 첫걸음이다.

'주어를 찾아서 넣어야 한다'란 말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 영작에서는 초보자들이 의외로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영작할 때 뭐부터 써야 할지 감 잡을 때엔 주어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주어를 뭐로 시작할지부터 생각하고 풀어 나가면 쉽게 영작이 됩니다.

영작기법
25

숨어 있는 주어를 찾아서 보여주자.

영작 따라하기

1 아파서 학교에 가질 못했어.

누가 아프죠? 너무 쉽네요. '내가' 아프니까 당연히 주어는 '나'가 되겠죠.

변형 아파서 나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

토막 배열 나는 갈 수 없었다 학교에 왜냐하면 아파서

영작 I couldn't go to school because I was sick.

2 6시까지 꼭 제출해야 한다.

상대방이 있어야 명령이나 부탁을 하겠죠? 문장의 주인공은 바로 '너'입니다. 대부분의 명령문은 you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변형 너는 6시까지 꼭 제출해야 한다.

토막 배열 너는 꼭 제출해야 한다 그것을 6시까지

영작 You should submit it by 6 o'clock.

3 우리말에서 안 보이는 주어를 찾아서 보여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문장은 밑줄 친 부분이 주어인데요, 이걸 그대로 영작하려니 어렵습니다. 영작하기가 쉽게 변형이 필요한데요, 가만히 보니 누군가에게 충고하는 문장이군요. 그럼 연습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 문장을 읽는 당신, '너'가 되겠죠?

변형 너는 우리말에서 찾기 힘든 주어를 찾아서 보여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토막 배열 너는 필요하다 연습이 주어를 찾아서 보여주는 우리말에서 찾기 힘든

영작 You need to practice finding and showing subject which is difficult to find in Korean.

4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수영은 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 나는 수영을 할 수 없다'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주어가 두 개인 문장이니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영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늦었다.'는 Part 1에서 나왔던 '시간'을 표현하는 형식 주어 it을 써서 영작하면 되겠네요.

변형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나는 수영을 할 수 없다.

토막 배열 오늘은 늦었다. 그래서 나는 수영을 할 수 없다.

영작 It is too late today. So I can't swim.

5 오랫동안 운전을 해서 힘들었지만, 푸른 동해를 보니 매우 기뻐다.

문장이 길다고 겁먹지 마시다. 내가 한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이 주어가 되겠죠.

변형 나는 오랫동안 운전을 해서 힘들었지만, 나는 푸른 동해를 보니 기뻐다.

토막 배열 나는 힘들었지만 오랫동안 운전해서, 나는 매우 기뻐다, 푸른 동해를 보니

영작 Although I suffered from long driving, I was very excited at seeing blue East Sea.

6 친구들한테 메일이 많이 온다.

Mail comes from my many friends.라고 쓰면 될까요?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메일을 받는 주체(주어)가 누군가요? '나'입니다. '내가' 메일을 받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변형 나는 친구들한테 많은 메일을 받는다.

토막 배열 나는 받는다 많은 메일을 친구에게서

영작 I get a lot of mail from friends.

Self-writing

1 저녁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아파.

2 다음부터 제시간에 미팅에 참석해라.

3 해가 너무 밝아서(bright) 눈이 부시다.

4 남산(mountain Namsan)에 오르면서 가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 전화 받느라 지쳤다.

Unit 02

애매한 땀말 명쾌하게 만들기

영작 해보기 (제한시간 5분)

1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

2 도와주어야겠다.

3 나는 김영달이라는 사람이다.

4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 저는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영작 가이드

우리말에는 한 단어로 딱 끊어지지 않는 '이중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끝맺는 말에 이중 표현이 많은데요. 우리말의 끝맺음(영어의 '동사'에 해당되겠죠?)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기란 무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하게 되다' (하다+되다)를 do+become으로 하면 정말 엉뚱하게 되죠. 조금만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순 없을까요? 간결한 표현을 떠올리면 한두 단어로 쉽게 영작이 되거든요.

하게 되다 → 하였다

우리말 '하게 되다'의 오묘한 표현을 영어로 그대로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쉬운 영작을 위해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자구요. 초보가 영작을 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하고픈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지,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가 아니니까요.

영작기법

26

이중 표현의 맺음말은 간단하게 정리하자.

영작 따라하기

1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

'하게 되었다'는 이중 표현이죠? 간단하게 '하였다'로 바꿔 봅시다.

변형 늦게 도착하였다.

토막 배열 나는 도착했다 늦게

영작 I arrived late.

2 도와주어야겠다.

'도와서, 주는' 게 아니죠? 그냥 '도와주다' 동사 하나로 해결하자구요.

변형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토막 배열 내가 도와주겠다 너를

영작 I will help you.

3 나는 김영달이라는 사람이다.

'~라는'이라는 표현 때문에 as나 named를 떠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as나 named로 표현하자니 어렵게 느껴지는군요. 영작할 때 어렵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면 쉽게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쉽게 '난 누구이다'라고 해도 의미 전달이 충분하지 않나요?

변형 나는 김영달이다.

토막 배열 나는 이다 김영달

영작 I'm Young Dal, Kim

4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든다? 생각이 난다? '든다', '난다' 등의 표현은 불필요한 이중 표현들입니다. 동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세요. '생각이 듭니다'의 원래의 뜻이 뭔가요? '생각한다'라는 것이 원래의 뜻이겠죠?

변형 나는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막 배열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어려울 거라고

영작 I think it will be difficult.

5 저는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다’란 말을 찬찬히 봅시다. ‘해보다+싶다’ 이렇게 두 개의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역시 ‘하고 싶다’라는 표현 하나로 가능합니다.

변형 나는 여행을 하고 싶다.

토막 배열 나는 하고 싶다 여행을

영작 I want to travel.

Self-writing

1 내겐 그것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2 가까운 일본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건 별로 좋지 않은 행동(behavior)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5 그 그림을 복도(corridor)에 전시해두었습니다.

동사는 뜻만 통해도 된다

영작 해보기 (제한시간 5분)

1 나는 일본 만화(Japanese cartoon)를 즐겨보는 편이다.

2 나는 바다를 보고 났을 잃고 말았다.

3 그녀는 산을 탔다.

4 나는 저녁상을 차렸다.

5 그것 땀에 열 받아 죽겠다.

영작 가이드

우리말을 그대로 영작에 적용하면 영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선물을 돌린다’라는 예를 살펴볼게요. 초보, 고수 모두에게 어려운 영작인데요. 초보들은 한영사전에서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돌린다’를 영어사전에서 찾아보고 turn, spin, roll 등을 이용해 영작하려 하는데, 완성하고 나면 정말 엉뚱한 문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영작을 좀 하는 분들은 ‘선물을 돌린다’는 표현을 고스란히 영작하기 위해 영어속담, 관용어구, 숙어 등등을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생소한 표현을 이용해 영작을 하지요. 하지만 숙어, 관용어구 등을 많이 쓴다고 좋은 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사자성어, 유행어, 속담 등을 써서 글을 쓰다가 오히려 어색한 표현이 되기 쉬운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이런 문장을 영작할 때는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나고요? ‘선물을 돌린다’의 기본이 되는 동사의 뜻을 살펴보면, ‘선물을 나눠준다’는 얘기죠? 더 간단히는 ‘선물을 준다’가 되고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돌리다**

→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다**

→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다**

→ give presents to people

영작기법

27

우리말 동사 부분은 기본 뜻만 전달하자.

영작 따라하기

1 나는 일본 만화를 즐겨보는 편이다.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즐거보는 편이다'입니다. '~하는 편이다', 이걸 그대로 영작하자니 휴, 한숨이 나오네요. 핵심적인 뜻만 영작해 봅시다.

'즐거보는 편이다' → 즐기다 → 좋아하다' 가 되겠네요.

변형 나는 일본 만화를 좋아한다.

토막 배열 나는 좋아한다 일본 만화를

영작 I like Japanese cartoon.

2 나는 바다를 보고 넋을 잃고 말았다.

'넋을 잃고 말았다', 이 표현도 영어로 하자니 정말 난감하군요. 의미를 단순화시켜서, 바다의 멋진 광경에 '감탄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변형 나는 바다 전경을 보고 감탄했다.

토막 배열 나는 감탄했다 바다 전경에

영작 I admired the sea view.

3 그녀는 산을 탔다.

'산을 타다' 를 ride a mountain이라고 쓸까요? '산을 오르다' 라는 뜻이니 climb을 쓰면 됩니다.

변형 그녀는 산을 올랐다.

토막 배열 그녀는 올랐다 산에

영작 she climbed a mountain

4 나는 저녁상을 차렸다.

'상 차린다' 는 말, 어렵네요. '준비하다' 라고 해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됩니다.

변형 나는 저녁을 준비했다.

토막 배열 나는 준비했다 저녁을

영작 I set dinner / prepared dinner

5 그것 땀에 열 받아 죽겠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요. 한국어 학원에 한두어 달 다니더니 '~해 죽겠다' 란 표현을 쓰더라구요. 우리가 무심결에 많이 쓰는 말인데요,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써 줍시다. 열 받아 죽을 만큼 화가 났다는 얘기니까, 그냥 '화가 나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변형 나는 그것에 화가 나다.

토막 배열 나는 화가 나다 그것에

영작 I'm angry with it.

Self-writing

1 군인들이(soldiers) 훈련(train)에 임하고 있다.

2 장관(minister)의 명령(order)이 떨어졌다.

3 수도(faucet)가 얼어붙었다.

4 나는 기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5 그녀와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Unit 04

안 보이는 목적어 찾아서 보여주기

영작 해보기 (제한시간 5분)

1 그는 이것에 만족했다.

2 나는 너의 계획(plan)이 궁금해.

3 밑줄 친(underlined) 문장(sentence)에 주의하세요.

4 1편(volume 1)은 봤는데 2편(volume 2)은 볼 수 없었다.

5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영작 가이드

목적어는 문장의 알짜배기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어 쓰는 것이 뭐가 어렵나, 하실 수도 있지만 영작할 때 매우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우리말에서 그냥 '~을/를'에 해당하는 부분만 찾아서 써주면 될 것 같지만, 목적어가 안 보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Part 1에서 보았듯이 목적어는 문장의 알짜배기로서 주어, 동사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적어가 잘 안 보이면 영작하려는 우리말을 놓고 어느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지 한번 곰곰이 따져 보세요. 숨어 있는 목적어를 찾아 내면 영작하기가 무지 편해집니다.

영작기법
28

숨어 있는 목적어를 찾아서 보여줘라.

영작 따라하기

1 그는 이것에 만족했다.

위 문장에는 목적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의미를 가만 살펴보니 '이것'이 목적어네요.

변형 그는 이것을 만족하다

토막 배열 그는 만족하다 이것을

영작 He was satisfied with it.

2 나는 너의 계획이 궁금해.

'너의 계획이 궁금해'니까 '계획이'를 주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말 '~이/~가' 부분이 영어에서도 주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뜻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궁금해 한 것은? 바로 '너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너의 계획'이 숨어있는 목적어입니다.

변형 나는 너의 계획을 궁금하다.

토막 배열 나는 궁금하다 너의 계획을

영작 I am wondering about your plan.

3 밑줄 친 문장에 주의하세요.

동사의 목적어나 대상이 되는 부분을 '목적어'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문장에서 동사 '주의하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문장'이 되겠죠?

변형 밑줄 친 문장을 주의하세요.

토막 배열 주의하세요 밑줄 친 문장을

영작 Pay attention to the underlined sentence.

4 1편은 봤는데 2편은 볼 수 없었다.

조사 부분을 잘 보세요. '은/는'이라고 해서 주어로 처리하면 안 되겠죠? 의미를 보니 '1편을 봤고 2편을 못 봤다'란 뜻이네요.

변형 나는 1편을 봤다 그러나 2편을 볼 수 없었다.

토막 배열 나는 봤다 1편을 그러나 볼 수 없었다 2편을

영작 I saw volume 1 but I couldn't see volume 2.

5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 문장은 단순히 목적격 조사 '을/를'을 통해서 목적어를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쓰여 있는지 의미상으로 동사의 대상이 된다면 목적어이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문장에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가 동사의 대상입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는 말인데 의미를 약간 살리기 위해 '심지어'라는 부사를 같이 써줘 봅시다.

변형 심지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

토막 배열 나는 잡지 못했다 심지어 한 마리 물고기를

영작 I couldn't catch even one fish.

Self-writing

1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그는 사소한 일(small things)에 신경을 쓴다.

3 그의 사랑이 그림습니다.

4 이 편지도 같이 보내줘.

의미를 압축하여 간단하게 바꾸기

영작 해보기 (제한시간 6분)

- 1 제품을 주문 (order)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 제가 계획 (plan)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present).
- 3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 (value)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 4 식탁 밑에 놓여 있는 신발이 맘에 든다.
- 5 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을 판매해야 했다.
- 6 그들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했다 (pray for).

영작 가이드

간단한 글은 영작 하겠는데, 길고 복잡한 글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어를 뭐로 할지, 동사는 또 어떤 것으로 할지, 또 접속사로 연결할 것인지, 관계사로 연결할 것인지... 정말 복잡하기만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글은 최대한 짧게 변형하세요. 짧게 하고자 하는 말만 써도 의미전달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긴 표현을 어떻게 짧게 바꾸냐고요? 강력한 테크닉을 알려 드릴게요. **표현을 압축해 보는 겁니다.** "에게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영작 따라하기

1 제품을 주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가면 복잡해 보입니다. 이 글도 가만히 보면 '당신은 제품을 주문하다(1)+내가 감사드립니다(2)'의 두 개의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군요. (1)번 문장이 (2)번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 보이시죠? 그럼 '당신은 제품을 주문하다'를 간단히 해볼까요? '당신의 제품 주문'이 되겠네요. 이제 영작하기 쉬운 형태로 의미가 압축되어 간단해졌습니다.

변형 당신의 제품 주문을 감사드립니다.

토막 배열 감사합니다 당신의 제품 주문을

영작 Thanks for your order.

영작기법

29

수식하는 문장이 길면 간단한 한두 마디로 바꾸자.

2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이 예문도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가 있는 형태네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제 계획'으로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형 나는 제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토막 배열 나는 발표하겠습니다 제 계획을

영작 I will present my plan.

3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문장을 압축할 땐 생략해도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세요. 복잡한 수식 문장 일수록 생략할 만한 것이 많답니다. 이 글에서는 '추구한다'와 '무엇인지'를 생략하면 간단하게 영작할 수 있습니다.

변형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아봤다.

토막 배열 나는 알아봤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영작 I checked his values.

4 식탁 밑에 놓여 있는 신발이 맘에 든다.

문장을 간단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전치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식탁 밑에 놓여 있는 신발'을 '식탁 밑의 신발'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변형 나는 식탁 밑의 신발이 맘에 든다.

토막 배열 나는 맘에 든다 식탁 밑의 신발이

영작 I like the shoes under the table.

영작기법
30

위치, 장소, 이유 등의 수식어절은 전치사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하자.

5 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들을 판매해야 했다.

한두 개의 단어가 많은 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접두사 un-, in- 등등이 붙어 있는 복합어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런 단어를 잘 찾아 쓰면 쉽게 영작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들을'을 '안 유명한 제품들을'로 바꿔주면 간단해지네요.

변형 나는 안 유명한 제품들을 판매해야 했다.

토막 배열 나는 팔아야 했다 안 유명한 제품들을

영작 I had to sell unpopular products.

영작기법
31

복합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간단하게 하자.

6 그들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했다.

우리말 '내려달라고'를 빼도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전치사 이용하기'를 적용해 봅시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한 것'이나 '비를 기원한 것'이나 같은 뜻이니까 pray for rain이라고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변형 그들은 비를 기원했다.

토막 배열 그들은 기원했다 비를

영작 They prayed for rain.

Self-writing

1 제 의견(opinion)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이렇게 늦게 배달(delivery)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3 신속하게 서비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 집 앞에 있는 쓰레기(garbage)를 좀 치워줘(clean up).

5 믿을 수 없는 사고(accident)들이 계속 일어난다.

6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 불신(distrust)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Unit 06

수식어를 제대로 이용해 복잡한 문장 간단하게 하기

영작 해보기 (제한시간 6분)

1 이것은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the Eiffel tower)입니다.

2 호수 밑에는 수천 개의 돌들이 있어 오페라 하우스(the Opera house)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3 빅벤(The Big Ben)은 영국의 상징(symbol)으로 국회의사당(the House of Parliament)에 달려 있습니다.

4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The Empire State Building)은 뉴욕 맨하튼(Manhattan, New York)에 있으며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 중의 하나입니다.

영작 가이드

Unit 5에서 복잡한 말을 간결하게 압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Unit 6도 간단하게 문장을 만드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수식어를 잘 변형하면 문장을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수식어를 변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것은,

- a) 전치사를 이용하여 간단히 하기
- b) 명사로 간단히 하기
- c) 관계사로 간단히 하기

입니다. 위의 세 가지 방법을 염두에 두고 영작해 보세요. 해설부터 보지 마시고 먼저 직접 해보세요.

영작 따라하기

1 이것은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을 영작할 때 ‘~에 있는’에 신경을 쓰다 보면 be located in을 쓰기 쉽습니다. 관계사절을 이용해서 영작해보면,

This is the Eiffel tower which is located in France.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문장은 간단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에 있는’이라는 표현을 located in이라 하지 말고 그냥 in을 쓰면 어떨까요? 전치사 in에는 이미 장소를 나타내는 뜻이 있으니까 located를 생략해도 뜻이 통합니다.

변형 이것은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입니다.

토막 배열 이것은 에펠탑이다 프랑스에 있는

영작 This is the Eiffel tower in France.

2 호수 밑에는 수천 개의 돌들이 있어 오페라 하우스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앞의 [1]에서 ‘~에 있는’을 전치사 in으로 간단히 했죠? 여기에서는 under를 사용하면 ‘호수 밑에는 수천 개의 돌들이 있어’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변형 호수 밑의 수천 개의 돌들이 오페라 하우스를 지탱합니다.

토막 배열 호수 밑의 수천 개의 돌들이 지탱한다 오페라 하우스를

영작 Thousand of stones under the lake support the Opera house.

3 빅벤은 영국의 상징으로 국회의사당에 달려 있습니다.

앞에서는 전치사를 활용해 문장을 간단하게 표현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쉼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쉼표가 별로 안 쓰여서 큰 기능을 하지 않는데, 영어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작할 때 가장 잘 쓰이는 쉼표의 활용을 배워보죠. 위 문장을 다음처럼 변형해 보겠습니다.

변형

영국의 상징	빅벤은	국회의사당에	달려	있습니다.
A		B		

‘상징으로’란 말이 영작하기 어려웠는데, 위처럼 정리하니 좀 편해졌죠?

토막 배열 빅벤, 영국의 상징,은 국회의사당에 달려 있습니다.

A가 B를 수식하니까 B 뒤에 놓았는데, 가만 보니 ‘영국의 상징’ 앞뒤로 콤마(,)가 쓰였군요. 콤마(,)를 명사 앞뒤에 써서 수식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상징’이 빅벤을 수식해 주니까 ‘빅벤(,) 영국의 상징(,)’ 이렇게 재배열한 것입니다.

영작 The Big Ben, the symbol of England, is hanging on the House of Parliament.

❗ 전치사 on

- ① 어떤 대상에 붙어 있는 경우에 on을 씁니다.
- ② 꼭 위에 있어야만 on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책상 밑에 붙어 있는 껌도 on을 씁니다.

4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뉴욕 맨하튼에 있으며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 중의 하나입니다.

이 예문을 잘 하신 분은 곧 영작 중급으로 올라설 수도 있겠네요. 문장이 좀 길죠. 다 음처럼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뉴욕 맨하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 중의 하나입니다.

The Empire State Building is located in Manhattan, New York.
It is one of the famous buildings in America.

의미가 통하기는 하는데, 좀더 세련된 표현을 만들어 볼 순 없을까요?

Part 1에서 배운 것 중 관계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문장에서 겹쳐지는 부분인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주어로 하고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관계사로 연결해보 지요.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뉴욕 맨하튼에 있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변형 뉴욕 맨하튼에 있는 엠파이어스테이트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 중의 하나 입니다.

토막 배열 뉴욕 맨하튼에 있는 엠파이어스테이트는 이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 중의 하나

The Empire State Building, which is located in Manhattan New York, is one of the famous buildings in America.

which is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 The Empire State Building, located in Manhattan, New York is one of the famous buildings in America.

관계사가 생략되면 located 앞에 콤마(,)를 넣어서 구분을 쉽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에서처럼 located를 생략하고 전치사 in으로 연결해줘도 무방합니다.

→ The Empire State Building in Manhattan, New York is one of the most famous buildings in America.

Self-writing

1 이것은 서울에 있는 남대문입니다.

2 이 카페에는 많은 회원(member)들이 있어 서로 도와줍니다.

3 사자 동상(status)은 우리 학교의 상징으로 정문에 있습니다.

4 63빌딩은 여의도(Yuido)에 있으며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Unit 07

앞뒤 사정을 명확히 밝혀야
쉽게 영작할 수 있다

영작 해보기 (제한시간 5분)

1 반 정도는 저금(save) 해두어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2 나중에 제가 어려워지면 저를 도와주세요.

3 이것은 만국박람회(the international fair)를 기념으로 세운 탑입니다.

4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영작 가이드

지금까지는 우리말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서 영작하는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이제부터 공부할 영작기법은 '문장 논리'에 관한 것입니다. 왜 문장논리냐고요? 뭐,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쓰자는 말인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풀어서 써야 하나요? 그건 문맥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 문장으로 영작하다가 막히면 풀어서 써보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자, 계속 강조했듯이 이번에도 예문을 직접 한번 영작해 보세요. 영작하실 때 문장의 전후관계 즉, 앞뒤 사정을 살펴보고 쉽게 풀어보세요. 그래도 쉽게 풀어 쓴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우선 '영작 따라하기'의 1번을 먼저 참고해 보세요. 그 다음의 2·3·4번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작 따라하기

1 반 정도는 저금해두어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저금해두어 나중에 쓰겠다', 좀 어렵나요? 무슨 말인지 잘 뜯어봅시다. 앞뒤 관계를 살펴보니 '반 정도는 저금하다 +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겠다'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부분은 and로 연결하면 되겠죠?

변형 나는 반을 저금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토막 배열 나는 저금할 것이다 반을 그리고 쓰겠다 필요할 때

영작 I will save half of the money and use it when I need it.

영작기법
34

전후 관계가 명확한 문장으로 바꾸자.

2 나중에 제가 어려워지면 저를 도와주세요.

문장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입니다. '~하면'이 나왔으니까 가정법인가요?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가정문을 쓰면 안 됩니다. 현실에서 가능한 내용은 조건문으로 쓴다는 것 기억하시죠? 조건문에서 미래의 조건은 현재형으로 쓴다는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문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앞뒤 관계가 명확한 문장이 되겠네요.

변형 제가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세요.

토막 배열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어려울 때

영작 Please help me when(/if) I'm in trouble.

3 이것은 만국박람회를 기념으로 세운 탑입니다.

이번 예문은 문장의 뜻을 확실하게 만들면 영작이 쉽게 됩니다. '기념으로'의 확실한 표현은 뭐죠? '기념하기 위해'라고 하면 되겠네요.

변형 이 탑은 만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토막 배열 이 탑은 세워졌다 만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영작 This tower is built in memory of the international fair.

! 위 문장은 아래처럼 영작해도 됩니다.

This is a tower (which is) built in memory of the international fair.

그럼 둘 중 어느 것이 더 낫냐고요?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더 간결한 문장이 좋지 않을까요?

4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짧은 예문이지만 그대로 영작을 하려니 막히네요. '돈을 내다 + 사용하다'의 구조 인데요. 이 두 문장의 논리 관계가 어떻게 되죠? 그것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한단 말이네요.

변형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합니다.

토막 배열 너는 돈을 내야 한다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영작 You have to pay to use it.

Unit 7에서 다룬 내용은 영작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뜻이 함축되어 있는 말을 바로 영작하려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장의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풀어 써준다면 영작이 쉬워질 겁니다.

Self-writing

1 좋지 않은 기억(bad memory)들에서 벗어나 새 출발(start over)을 하고 싶다.

2 그놈이 또 전화를 하면 나를 불러.

3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차례다.

4 미리 예약(reservation)을 하셔야 이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영작 해보기 (제한시간 5분)

- 차가 막혀서 미팅에 늦었다.
- 푸른 바다를 보니 마음이 평안(peaceful)해졌다.
- '나는 안 돼'라는 선입관(prejudice)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미래를 망칩니다(ruin).
- 우리 회사가 부도(bankrupt)났다는 소식에 모두 충격을 받았다.
- 어젯밤에 감기약(cold medicine)을 먹었더니 아침에 다 나았다.

영작 가이드

우리말과 달리 영어가 고유하게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로, 영어 문장에서는 어떠한 사물이나 상황이 주어가 되어 문장을 이끄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예문을 한번 볼까요?

저녁에 커피를 마셨더니 잠이 안 온다.

의미상 이 문장의 주어는 '나'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영어에서는,

저녁에 마신 커피가 날 잠 못지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말은 사람 중심인데 영어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 때문에 잠이 안 온다'를 '커피가 날 못지게 한다'라고 변형해서 영작할 줄 안다면 초보딱지는 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영어식 사고방식에 근접한 영작은 영어에 많이 노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이렇게 사물, 상황을 주어로 영작을 하면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의 예문을 우리말 표현대로 영작을 해보면,

a) 저녁에 커피를 마셨다. 그래서 잠이 안 온다.

I have coffee in the evening so I wouldn't sleep.

b) 나는 잠이 안 온다 왜냐하면 저녁에 커피를 마셨기 때문이다.

I can't get a sleep because I had coffee at evening.

이렇게 두 가지로 영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되는 좋은 영작입니다. 그런데 다음처럼 커피를 주어로 만들어 관계사로 연결하면 좀더 영어다운 문장이 됩니다.

The coffee which I have in the evening prevents me from sleeping.

어때요? 좀더 간결하면서도 세련되게 느껴지지 않나요?

영작 따라하기

1 차가 막혀서 미팅에 늦었다.

‘차가 막혔기 때문에’로 풀어놓으니 자연스럽게 because가 떠오르나요? because의 유혹을 버리고 이번 Unit의 핵심을 떠올려서 사물을 주어로 만들어 봅시다. ‘차 막힘이 날 늦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변형 차 막힘이 날 미팅에 늦게 만들었다.

토막 배열 차 막힘이 만들었다 나를 늦게 미팅에

영작 Traffic jam made me late for meeting.

❗ 그럼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미팅에 늦었다.’는 어떻게 할까요? ‘차 막힘’을 강조하는 형용사 **terrible**을 추가하니까 간단해지네요.

Terrible traffic jam made me late for meeting.

2 푸른 바다를 보니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 문장을 ‘푸른 바다를 보았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졌다’로 하면 너무 장황하고, 초보 냄새가 나는 영어가 됩니다.

‘푸른 바다를 보는 것이 날 평안하게 만들었다.’처럼 하니 좀더 영어다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푸른 바다를 보는 것이(Seeing the blue sea...)’를 ‘푸른 바다의 전경이(The blue sea’s view...)’라고 바꿔보니 더 세련되어 보이네요.

변형 푸른 바다의 전경이 나를 평온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토막 배열 푸른 바다의 전경이 만들었다 나를 평온하게 느끼도록

영작 The blue sea’s view made me feel peaceful.

3 ‘나는 안 돼’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미래를 망칩니다.

자, 이번 글은 어떤 사물을 주어로 만들까요? ‘나는 안 돼라는 선입관’을 주어로 만들어 볼까요?

변형 ‘나는 안 돼’라는 선입관이 당신의 미래를 망칩니다.

토막 배열 ‘나는 안 돼’라는 선입관이 망칩니다 당신의 미래를

영작 A prejudice, like ‘I can’t do it’, ruins your future.

4 우리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에 모두 충격을 받았다.

이제는 무엇을 주어로 해야 할지 금방 감이 오나요? 여기서는 ‘우리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주어로 하면 되겠네요.

변형 우리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이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토막 배열 우리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이 충격을 주었다 모두에게

영작 The news that our company went bankrupt shocked everybody.

5 어젯밤에 감기약을 먹었더니 아침에 다 나았다.

‘어젯밤에 먹은 감기약’을 주어로 해 보죠. 감기약, 두통약, 멀미약 등등 모두 다 주어가 될 수 있어요.

변형 어젯밤에 먹은 감기약이 아침에 날 낫게 했다.

토막 배열 어젯밤에 먹은 감기약이 만들었다 나를 낫게 아침에

영작

The cold medicine which I took last night made me get over it in the morning.

어때요? '사물주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감이 오나요? 원어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사물주어를 씁니다. 이러한 사물주어는 몇몇 동사와 특히 잘 어울리는데요. 앞의 예문에서 다루지 않은 동사들을 아래에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사물주어로 잘 쓰이는 동사

1. 2 hours of driving will take you home. (take)

차 타고 두 시간만 가면 너의 집이야.

2. What brought you here? (bring)

여기 왜 왔니?

3. A car accident stopped my trip. (stop)

차 사고가 나서 더 이상 여행을 못했다.

4. Red signal keeps me waiting. (keep)

빨간 신호가 날 기다리게 한다.

5. Distrust prevents us from getting close. (prevent)

불신 때문에 우리는 가까워 질 수 없다.

사물주어로 쓰이는 동사들은 방해나 금지의 뜻 그리고 원인 제공의 뜻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영문 글을 읽을 때 사물주어의 표현법을 유심히 살펴보고 영작할 때 적용해 보세요. 나의 영작이 보다 자연스럽게 영어다워졌다는 생각이 들거예요.

Self-writing

1 잭키가 해체(break up) 되어서 정말 슬퍼.

2 술을 마셨더니 머리가 아프네.

3 지하철 공사(subway construction) 때문에 차가 많이 막힌다.

4 내가 시험에 합격(pass the exam) 했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무척 기뻐하셨다.

5 반지를 끼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나를 결혼한 사람으로 오해한다.

A blue background with a white pen writing cursive text. The pen is positioned diagonally, and the cursive text is visible in the upper right and lower left corners. The central part of the image is a black horizontal band containing the chapter number and title.

3

나도
짧은 에세이를
쓸 수 있다

Part 3 소개

이제 실제로 영작을 연습할 차례입니다. 앞에서 Part 3을 위해서 Part 1, 2를 공부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몇몇 예문만 가지고 영작을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나씩 통째로 영작을 해보죠. 이제부터 영작할 내용들은 영작책을 꾸미기 위한 예문이 아니라 Daum 카페 회원분들이 실제로 영작을 요청하신 것들입니다. 회원들의 영작 고민을 같이 풀어가 볼까요?

실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작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굳이 따져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Part 2에서 배운 대로 ‘우리말 자체를 영작하기 쉽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영작 초보님들이 쉽게 간과해 왔던 부분입니다. 영작이 어려운 이유가 의례히 영문법과 표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말을 그대로 영작하려다 보니 사전을 뒤적여 가면서 생소한 표현들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표현, 즉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은 영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영작이란, 기초적인 영어 표현을 가지고 우리말 원문을 쉽게 변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꼭 마음속에 새겨두시다.

“우리말을 쉽게 변형하는 것이 영작의 1순위이다!”

Unit 01

제 소개를 합니다

영작 해보기

1 나는 한국에 사는 김영달이라고 합니다. 한국대학에 올해 입학한
↳ 영작기법23 (91page), 영작기법26 (112page)

신입생이며, 전공은 경영학입니다. **2** 흥미 있는 분야는 인터넷 마케
↳ 영작기법25 (107page)

팅으로 앞으로 이 분야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3** 취미는

등산하기, 영화 보기,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기입니다. **4** 차분하면서
↳ 영작기법25, 영작기법25

도 적극적이며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해서 평소에 사교적이라는 말을
영작기법20 (77page)

자주 들어왔습니다. **5** 제 성격 중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성실입니다.

6 그래서 제가 맡은 임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깔끔하
↳ 영작기법22 (85page), 영작기법25

게 해내는 편입니다.

영작 따라하기

[부탁의 말]

영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곳 <영작 따라하기>에서 제가 표현한 내용은 얼마든지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영작 따라하기>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제가 영작을 할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어떤 기준으로 단어들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코너는 한글로 된 원문을 보고 영작을 할 때 저의 머리 속에서 수행되는 영작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제 머리 속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릴 테니 찬찬히 읽어 보세요. 물고기를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한국에 사는 김영달이라고 합니다. 한국대학에 올해 입학한 신입생이며, 전공은 경영학입니다.

변형 내 이름은 김영달이고 나는 한국에 삽니다. 나는 경영을 전공하는 한국대학의 신입생입니다.

영작 My name is Kim Youngdal, and I live in Korea. I am a freshman at Hanguk University, majoring in Business.

해설 '올해 입학한 신입생'을 줄여서 '신입생'으로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열되는 부분을 영작할 때 and가 너무 많이 쓰이면 재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을 majoring...으로 수식어구 처리를 해주니 문장이 조금 성숙(?)해 졌네요.

2 흥미 있는 분야는 인터넷 마케팅으로 앞으로 이 분야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변형 나는 인터넷 마케팅에 흥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를 좀더 배우고 싶습니다.

영작 I am interested in Internet marketing, and I want to study more about this field.

해설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던가요? '흥미 있는 분야는'을 주어로 해서 영작을 하자니 막막한 겁니다. 우리말 '은/는'이 있다고 해서 전부 주어로 하면 안 되죠. 찬찬히 살펴보세요. 누가 흥미가 있고 누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죠? 바로 '나'지요. '나는 인터넷 마케팅에 흥미가 있다: I am interested in Internet marketing' 그리고 '좀더 배우고 싶다: I want to study more'. 이렇게 하니 정리가 되죠?

3 취미는 등산 하기, 영화 보기,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기입니다.

변형 나의 취미들은 등산 하기, 영화 보기 그리고 홈페이지 만들기입니다.

영작 My hobbies are climbing mountains, watching movies and creating homepages.

해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 가지를 나열할 때는 콤마(,)를 사용했고, 맨 마지막엔 and 쓰는 것을 눈여겨보세요. 또한 나열한 항목들은 '동작의 행위'로 동명사로 형식을 통일시켰습니다.

4 차분하면서도 적극적이며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해서 평소에 사교적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변형 나는 차분하고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교적인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작 I am even-tempered and active, and I am known as a sociable person since I like making new friends.

A

해설 긴 문장을 크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A는 수식 부분으로 사교적인 사람의 이유가 됩니다. 수식하는 문장이 길면 뒤로 빼는 것 잊지 않으셨죠? 접속사 since는 '~하기 때문에'란 이유의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5 제 성격 중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성실입니다.

변형 제 장점 중 하나는 성실입니다.

영작 One of my good points is sincerity.

해설 우리말에선 '성격'이란 단어가 잘 쓰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이다'를 영어식으로는 '그는 화를 잘 낸다'로 표현하며 굳이 characteristic을 쓰지 않습니다. '화를 잘 낸다'라는 것 자체에 성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깐요. 따라서 '자랑할 수 있는 성격은 성실입니다'를 '장점은 성실입니다'라고 변형하는 것이 영작하기 쉽겠네요.

'제 장점 중 하나는: One of my good points is'는 틀리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주어가 one이니까 동사는 is이고, 장점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my good points처럼 복수형으로 써줘야 합니다. 장점이 하나 밖에 없다구요? 그럼 the only my good point이라고 해야겠죠.

6 그래서 제가 맡은 임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깔끔하게 해내는 성격입니다.

변형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영작 With my sense of responsibility, I always try to do my job perfectly in any situation.

해설 원문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죠? 우선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봅시다. '일을 완벽하게 하려 한다: try to do my job perfectly'가 주된 내용이고 여기에 살을 붙이면 되겠네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in any situation'은 수식어니까 뒤에 놓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with my sense of responsibility' 역시 수식어구네요. 뒤에 놓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까지 계속 수식어구를 뒤에다 댔으니깐 이번에는 변화를 줘서 앞에다 두었습니다. 전치사구는 가끔씩 앞에 두고 써도 됩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거나 문장을 단조롭지 않게 하기 위해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Key Point

- ① 여러 가지를 나열할 땐 콤마로 각각을 나누고 맨 마지막엔 and를 쓴다.
- ② 사람의 성격을 묘사할 땐 characteristic을 남발하지 말고 적당한 형용사를 써준다.

▶ 대학 생활과 관련된 표현

1학년 freshman | 2학년 sophomore | 3학년 junior | 4학년 senior | 대학원생 graduate student | 학부생 undergraduate | 재학중 studying at, attending | 휴학중 taking a break | 중간고사 mid-term examination | 기말고사 final examination | 성적 score, record | 학점 credit, unit | 하숙 boarding, lodging | 등록금 tuition fees

▶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형용사

패기 있는, 야심만만한 ambitious | 의존할만한, 믿을만한 dependable | 근면한, 성실한 hardworking | 지저분한 messy | 조용한 quiet | 수줍어하는, 쑥시 shy | 정력적인 energetic | 깔끔한 neat | 신뢰할만한, 책임감 있는 responsible | 사교적인 sociable | 정직한 honest | 낙관적인, 긍정적인 optimistic | 이기적인 selfish | 열심히 공부하는 studious | 친절함, 정다운 friendly, kind | 민감한, 예민한 sensitive | 수다스러운 talkative | 재미있는 funny | 인내심 있는 patient | 알뜰한 thrifty | 창의적인 creative | 관대한 generous | 게으른 lazy | 매력적인 charming, magnetic | 솔직한, 대담한 outspoken | 말수가 적은, 수줍은 reserved | 순진한 nave | 괴짜의 weird | 태평스러운, 수더분한 easygoing | 외향적인, 활발한 outgoing | 깐깐한 uptight | 자신감 넘치는 confident | 쾌활한, 명랑한 cheerful | 편견 없는, 포용력 있는 broadminded, open-minded

영작 해보기

1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언니, 동생, 나 이렇게 모두 5명입니

↓, 영작기법 5 (27page)

다. 2 아버지는 은행에 다니시는데, 우리에게 아주 엄하세요. 3 반

↓, 영작기법 27 (117page), 영작기법 32 (134page)

면 어머니는 자상하게 저희들을 많이 챙겨주십니다. 4 언니는 공부

↓, 영작기법 22 (85page), 영작기법 27

↓, 영작기법 19 (72page)

를 잘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 남동생은 어려서 장

영작기법 26 (112page)

↓, 영작기법 15 (64page)

난을 많이 치는 우리집 귀염둥이구요. 6 우리 가족은 주말이 되면 집

↓, 영작기법 6 (31page)

근처 산으로 등산을 가거나 근사한 곳에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갑니다.

영작 따라하기

1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언니, 동생, 나 이렇게 모두 5명입니다.

변형 나의 가족에는 5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동생 그리고 나

영작 There are five members in my family: father, mother, elder sister, younger brother and me.

해설 '몇 명이 있다', '몇 개가 있다'란 표현은 there is/are...로 씁니다. There are five members in my family.에서 members는 '명수'를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냥 there are five in my family 하면 안 됩니다. '내 가족은 5이다'란 말이 되니까요.

그리고 콜론(:)을 써서 우리 가족을 부연 설명했습니다. 예문 중 '이렇게 모두'를 콜론으로 써서 처리하니 '영어답다'란 느낌이 드네요.

2 아버지는 은행에 다니시는데, 우리에게 아주 엄하세요.

변형 1. 나의 아버지는 은행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아주 엄합니다. / 2. 은행원인 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주 엄합니다.

영작 1. My father works for a bank, and he is very strict with us. / 2. My father, a banker, is very strict with us.

해설 직장 '~에 다니다'는 말을 원어민들은 '~을 위해 일한다'라고 합니다. 1)처럼 문장도 짧은데 and로 연결하기 좀 어색하면, 2)에서처럼 콤마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직업을 부연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하다'가 영어로 strict with us인지 strict to us인지 헷갈리실 텐데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전 많이 찾아보고 전치사 활용을 접하는 수밖에요.

3 반면 어머니는 자상하게 저희들을 많이 챙겨주십니다.

변형 반면, 나의 어머니는 우리를 친절히 보살피신다.

영작 On the other hand, my mother takes care of us with kindness.

해설 '챙겨준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영사전에서 '챙기다'를 찾으니 '물건을 챙기다' 등이 예문으로 있고 collect, gather 등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작하려는 뜻하고 거리가 좀 있네요. 여기서 '챙겨주다'의 기본 뜻은 뭘까요? '돌보다'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take care of를 쓰면 되겠군요. 그리고 '친절히'는 with kindness(전치사구)라고 했는데요, kindly(부사)와 같은 뜻입니다. 문장의 맨 뒤에 수식어를 쓸 때는 되도록 부사보다는 전치사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4 언니는 공부를 잘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변형 뛰어난 학생인 나의 언니는 날 많이 돕습니다.

영작 My elder sister, who is an excellent student at school, helps me a lot.

해설 이 문장은 '주어+동사'가 2개 있습니다. '언니는 공부를 잘한다 / 언니는 날 도와준다'. 앞에서 배운 관계사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Part 1, unit 12 참고) 여러분 중에서 혹시 '언니는 공부를 잘한다.'를 My elder sister studies well.이라 영작한 분은 없나요? 이 표현은 '언니는 공부를 참 요령 있게 한다'는 뜻이니 주의하세요. '언니는 뛰어난 학생이다'라고 영작해야 우리말의 '공부를 잘한다'와 비슷한 표현이 됩니다.

5 남동생은 어려서 장난을 많이 치는 우리집 귀염둥이구요.

변형 나의 장난기 많은 남동생은 우리집 귀염둥이입니다.

영작 My mischievous younger brother is our loving sweetheart.

해설 '장난을 많이 치는'을 '장난기 많은: mischievous'라는 형용사로 처리하니 영작이 간단해지네요.

6 우리 가족은 주말이 되면 집 근처 산으로 등산을 가거나 근사한 곳에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갑니다.

변형 주말에, 우리 가족은 집 근처 산으로 등산을 가거나, 근사한 곳에서 외식을 합니다.

영작 On weekends, my family goes on a hike to a nearby mountain, or eats out at some great places.

해설 '주말에, 등산, 외식을 하는 것은 늘상 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주말이 되면'을 when it become weekends라고 할까요? 우리말 '~이 되면'을 그대로 영작하지 말구요. 그냥 '주말에는'으로 간단히 합시다. 그리고 '등산하러 가다'는 go on a hike 또는 go hiking이라고 합니다. 또 '외식'은 eat out이구요. 몇몇 표현이 나왔는데 생소하다구요? 사전을 찾아 보면 다 나오는 표현들이니 너무 겁먹지 마시구요. 단어장에 적어 놓고 몇 번 써보면 나중에는 사전 없이도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표현을 많이 알고 있다고 영작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썸이야 사전을 찾는 수고를 조금만 하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전을 찾아봐도 영작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영작 요령'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 듯이 영작 요령의 핵심은 '우리말 구조를 영어식으로 변형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구조를 영어식으로 바꾸지 않고 우리말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을 나열한다고 해서 영작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Key Point

- ① 우리 가족은 5명이다 → 우리 가족에는 5명의 멤버가 있다
- ② 은행에 다닌다 → 은행을 위해 일한다
- ③ 챙겨준다 → 보살피다: take care of
- ④ 주말이 되면 → 주말에는

▶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표현

할머니/할아버지 grandmother/grandfather | 증조할머니/증조할아버지 great-grandmother/great-grandfather | 손자/증손자 grandson/great-grandson | 장모, 시어머니 mother-in-law | 장인, 시아버지 father-in-law | 며느리 daughter-in-law | 사위 son-in-law | 양어머니/양아버지 stepmother/stepfather | 숙모, 이모, 고모 aunt | 숙부, 이모부, 고모부 uncle | 조카딸 niece | 조카 nephew | 남매 sibling

영작 해보기

1 오늘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서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작기법 25 (107page)

2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좋았습니다. 3 한국 영

영작기법 34 (138page)

화를 볼까 외국 영화를 볼까 친구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한국

영작기법 12 (56page)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4 원빈이 주인공인 <우리형>을 봤는데 가

영작기법 9 (46page), 영작기법 23 (91page), 영작기법 25

슴 찡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5 친구들 모두 영화가 재미있었다고 만

영작기법 10 (50page), 영작기법 29 (127page)

족해했으며 기말고사가 끝나면 또 영화를 보러 오자고 약속했습니다.

6 이렇게 시험을 모두 끝내고 보는 영화가 난 세상에서 가장 좋습니다.

영작기법 10 (50page)

영작 따라하기

1 오늘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서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변형 중간고사가 오늘 끝나서,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작 As my midterm exams ended today, I went to see a movie with my friends.

해설 '~함에 따라', '~때문에'란 표현은 접속사 as를 쓰면 됩니다. 이유나 원인의 접속사를 because나 since만 쓰지 말고 as도 종종 써보세요. 문장이 풍성해집니다. 여기서 go to는 go and do 즉, '~하러가다'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see a movie 하러 간 것이지요.

2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좋았습니다.

변형 평일 오후이기 때문에 극장은 붐비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기뻐했습니다.

영작 Because it was weekday afternoon, the theater was not crowded, so we were glad about that.

해설 원문은 몇 단어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많은 말을 하고 있네요. 원문처럼 한 문장으로 영작을 해보려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럴 땐 문장을 나누고 문장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극장은 붐비지 않았다: the theater was not crowded' 그래서 '우리는 기뻐다: we were glad' 이렇게 기본 틀을 만들 수 있겠네요.

3 한국 영화를 볼까 외국 영화를 볼까 친구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한국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변형 우리는 한국 영화를 볼 건지 외국 영화를 볼 건지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한국 영화를 보기로 동의했습니다.

영작 We quarreled over whether we would see a Korean film or a foreign film, but finally, we agreed to see a Korean film.

해설 긴 원문의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실랑이를 벌였다', '한국 영화를 보기로 했다' 이렇게 2개의 기본 틀로 나뉩니다. '실랑이를 벌였다'는 간단히 '다투었다'라고 표현해볼까요? '다투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quarrel이 나오는데요, A라는 대상을 놓고 다투는 것을 'quarrel over A'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는 거죠?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이네요, 그래서 영작을 해보면, We quarreled over whether we would see a Korean film or a foreign film.라고 했습니다. whether를 단순히 '~인지'로만 외었다면 이 문장 영작할 때 적용 못했을 겁니다. whether A or B는 A, B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영화를 보기로 했다'는 말은 '한국 영화를 보기로 동의했다'라고 변형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agree to 구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agree to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행동을 동의하는 것이니까 -ing형보다는 to부정사가 어울리네요. 그리고 agree with는 '사람'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 We agreed to start at once. 즉시 출발하기로 합의했다.
- I cannot agree with you on the matter. 그 일에 대해 나는 당신에게 동의할 수 없어요.

4 원빈이 주인공인 <우리형>을 봤는데 가슴 찡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변형 그것은 원빈이 주연한 <우리형>이다. 그리고 나는 그 영화에 의해 감동받았습니다.

영작 It was "My Brother" starring Won Bin, and I was very touched by it.

해설 '<우리형>을 봤다'를 It was "My Brother"라고 영작했습니다. We saw "My Brother"라고 하면 안 되나요? 물론 가능하지만, 앞것이 좀더 세련된 표현입니다. 앞 문장에서 한국 영화를 보기로 했다는 것을 말했으니 It was "My Brother"라고 하면 읽는 사람은 당연히 it을 우리가 본 한국 영화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형>은 원빈이 주연을 했습니다. 주연이라는 표현은 starring이라고 하구요, <영화제목 starring 배우이름>의 어순으로 영작합니다. 그리고 '찡한 감

동을 느꼈다'를 그대로 영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매우 감동받았다'로 하면 되겠군요.

5 친구들 모두 영화가 재미있었다고 만족해했으며 기말고사가 끝나면 또 영화를 보러 오자고 약속했습니다.

변형 우리 모두 영화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말시험 후 하나 더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영작 We were all satisfied with the movie, and we promised to see another one after the final exam.

해설 문장이 길습니다. 복잡할수록 문장의 요점이 뭔지 파악해야 합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는 만족했다 / 또 보러 오자'네요. 자, 이러한 기본 틀에다가 수식을 하나씩 붙여보죠. '친구들 모두'는 간단히 we라고 하고, '재미있었다고 만족해했다'를 그냥 satisfied로 줄여 봅시다. 그리고 약속은 미래의 행동이니까 동사 promise의 목적어로 to부정사를 썼습니다.

6 이렇게 시험을 모두 끝내고 보는 영화가 난 세상에서 가장 좋습니다.

변형 나는 이렇게 시험을 치른 후에 영화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영작 I really like seeing movies after taking exams like this.

해설 원문에 충실하게 영작을 하려니 관계사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수식하는 구문을 관계사로 연결하자니 자신이 없어요? 그럼 쉽게 풀어서 써보죠. '나는 시험을 치른 후에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이지요. 관계사를 써서 영작하기에 만만하다 싶으면 관계사로 영작하고, 난해하다 싶으면 여러 문장으로 쪼개는 겁니다. take exam은 우리말로 '시험치다'라는 뜻인데, 문법적으로 설명하자면 after의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동명사 taking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 나오는 동사 구문은 반드시 '명사 형식'으로 변형시켜줘야 한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after take exam이 아니라 after taking exam으로 말이지요.

Key Point

- ① 한국 영화를 볼지 외국 영화를 볼지: whether we would see a Korean film or a foreign film
- ② 관계사로 영작하는 게 자신이 없으면 문장을 나누자.

▶ movie/film/cinema

‘영화’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movie/film/cinema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지요.

- **movie**: moving picture를 줄인 말입니다. motion picture라고도 하며 영미권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영화 보러 가다’는 go to the movies입니다.
- **film**: ‘독창적 예술 작품’ 혹은 비평적·미학적 시각에서 본 영화를 말합니다. a film by Steven Spielberg처럼 창작자의 고유 예술작품임을 강조할 때 자주 씁니다. ‘영화제’를 굳이 film festival이라고 쓰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cinema**: 본래 극장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영화’로까지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현재 영미권 국가를 제외한 세계 각국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Unit 04

소개팅에 나갔는데...

영작 해보기

- 1 크리스에게, 오늘은 소개팅을 나갔어. 2 저번 남자친구와 헤어진
↳ 영작기법25 (107page) ↳ 영작기법25

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간 소개팅을 한 적은 없었지. 3 오래

간만에 미니스커트를 입었더니 지하철에서 조금 불편했어. 4 약속
↳ 영작기법25, 영작기법30 (126page), 영작기법34 (138page)

장소에 도착하니 상대방 남자가 미리 기다리고 있더라고. 5 웬지 낯
↳ 영작기법5 (27page), 영작기법6 (31page), 영작기법23 (91page)

익어 보여서 이름과 동네를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동창인거 있지.
↳ 영작기법11 (54page), 영작기법19 (72page), 영작기법24 (98page), 영작기법25

6 이렇게 만나니 반갑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좋은 시간을 보냈
↳ 영작기법25

어. 7 그리고 날 배웅해주는 그 친구에게 전화번호를 남겨 줬단다.
↳ 영작기법17 (65page), 영작기법25, 영작기법34

그럼 몸조심하고 안녕~!

영작 따라하기

1 크리스에게, 오늘은 소개팅을 나갔어.

번역 크리스에게, 나는 오늘 소개팅을 나갔어

영작 To Chris, I went on a blind date today.

해설 Chris는 Christopher(남자), Christiana(여자), Christine(여자)의 애칭입니다. 혼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소개팅은 blind date라고 합니다. 안면이 없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것은 예측하기 힘들죠? 멋진 사람일지, 폭탄일지. 마치 눈가리개를 하고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거랑 같지 않나요? 그런데 소개팅을 blind date라고 달랑 외워놓으면 영작할 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go on a blind date(소개팅 나가다)라고 외워야 영작할 때나 회화할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2 저번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간 소개팅을 한 적은 없었지.

번역 그 소개팅은 나의 첫 번째 소개팅이다. 1년 전 저번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영작 It was my first blind date since I had broke up with my last boyfriend almost a year ago.

해설 이 문장을 잘 살펴보세요. 영어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원문을 유심히 보면 '1년 동안 소개팅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속뜻은 '헤어진 후 1년 만에 소개팅을 한다'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변형시켜주니 자연스럽게 since 구문이 떠오르네요.

3 오래간만에 미니스커트를 입었더니 지하철에서 조금 불편했어.

번역 나는 오랫동안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았었다. 그래서 나는 지하철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영작 I hadn't put on a short skirt for quite a long time, so I felt a little uncomfortable on the subway.

해설 한 문장에 두 가지의 정보가 들어 있군요. '오래간만에 미니스커트를 입었다'와 '불편했다'. 우선 앞부분을 먼저 해보죠. '오래간만에'를 영작하는 것이 좀 까다롭습니다. '오래간만에 뭘 했다'란 표현은 영어에서는 그냥 '오랫동안 뭘 안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예문을 잠깐 볼게요.

오래간만에 널 보는구나.

➡ I haven't seen you for a long time. (직역: 너를 오랫동안 못 봤다.)

오래간만에 네 목소리를 듣네.

➡ Long time, no talk. (직역: 오랫동안 대화가 없었어.)

오래간만에 날씨가 좋다.

➡ It's a long time since we had such a fine day.

(직역: 날씨가 좋았던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에게 우리는 '오래간만에 널 보는구나'라고 하는데 원어민은 '너를 그간 오랫동안 못봤네'라고 말합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오래간만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것은 '오랫동안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았다'라고 해야 의미전달이 됩니다. 참 어렵죠? 이렇게 영어식으로 사고하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영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숙어나 슬랭을 많이 안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조금 불편했어'는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표현해주면 좋겠네요.

4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상대방 남자가 미리 기다리고 있더라고.

번역 내가 만나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파트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영작 When I arrived at the meeting place, there was my partner waiting for me.

해설 약속 장소를 appointment place라고 하면 좀 어색합니다. 약속 장소는 약속을 해서 만나기로 한 장소지요? 그래서 '만남의 장소: meeting place'라고 하면 됩니다. 상대방 남자를 my partner라고 했네요. 그리고 partner를 꾸며주기 위해 동명사 구문인 waiting for me를 썼구요.

5 웬지 낯익어 보여서 이름과 살았던 동네를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동창인거 있지.

변형 그가 낯익어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이름과 살았던 곳을 물어봤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것을 발견했어.

영작 Since he looked somewhat familiar, I asked his name and where he lived. Then I realized that we had gone to elementary school together.

해설 원문을 보니 주어가 숨어 있지요? 잘 찾아서 보여 줍시다. 그리고 원문이 복잡하니 둘로 나누어 보죠. '물어봤다' + '학교 동창생이더라'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죠? 근데 왜 물어봤죠? 낯익어 보였기 때문이죠? (Since he looked somewhat familiar) 그리고 이름과 어디 살았는지를 물어 봤다는데, '어디 살았는지'는 where he lived로 관계사를 이용해 표현해 주었습니다. 많이 쓰이는 관계사 용법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학교 동창생을 영작할 때 굳이 '동창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려 애쓰지 말고 '학교를 같이 다녔다' 라고 해줍니다.

6 이렇게 만나니 반갑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좋은 시간을 보냈어.

변형 나는 그를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어색하게 느꼈지만, 나는 그 시간이 좋았어 어쨌든.

영작 Although I felt both pleased and awkward to meet him like this, I enjoyed the time anyway.

해설 although를 '비록 ~일지라도' 라고만 외우지 말고 '~했지만' 으로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반갑고 어색했던 것은 '나'니까 주어로 I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내가 누구를 만난 거죠? 그를 만난 거죠! to부정사 구문을 이용해서 '그를 이렇게 만나니: to meet him like this' 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문장을 꾸며주기 위해 맨 마지막에 anyway를 썼는데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7 그리고 날 배웅해주는 그 친구에게 전화번호를 남겨 줬단다. 그럼 몸조심하고 안녕~!

변형 그는 날 배웅해 줬다 집에 그리고 난 그에게 내 전화번호를 줬다. 조심해~ 안녕!

영작 He escorted me to my house, and I gave him my number. Take care~ bye!

해설 '날 배웅해주는 그' 이것을 그대로 영작하려면 관계사를 써야겠네요. 별로 어렵지 않으면 관계사를 써주는 것이 좋지만 이 원문은 관계사를 쓰려하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굳이 관계사를 써서 영작을 하면, I gave him who escorted me to my house my number. 이렇게 하면 되지만 좀 어색해 보입니다. 차라리 두 문장으로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날 배웅해 줬다', '그리고 난 그에게 내 전화번호를 줬다' 어때요? 할 만 하죠?

Key Point

- ① 소개팅에 나가다: go on a blind date
- ② 오늘 1년 만에 소개팅을 했다 → 1년 동안 소개팅을 안했다
- ③ 이 사람은 내 초등학교 동창이다 → 난 이 사람과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다

▶ 데이트와 관련된 표현

사귀다 go with someone ex) How long did you go out with your husband before you got married? | 연애하다 fall in love with someone | 데이트 약속을 하다 made a date | 바람맞히다 stand a person up | 삼각관계 a triangular love affair | (관계가) 깨지다 broken ex) Their engagement was broken off because of their parents' opposition. | 차다 dump ex) My girl friend has dumped me because I'm a poor salaried worker. | 연애결혼을 하다 marry for love | 바람을 피우다 have a secret love affair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합시다

영작 해보기

1 크리스씨 안녕하세요? 수영을 잘 한다니 부럽네요. 2 전 솔직히

↳ 영작기법 25 (107page)

말하면 물에 겨우 뜨는 수준 정도인데. 3 대학교 갓 입학했을 때만

↳ 영작기법 26 (112page)

↳ 영작기법 20 (77page), 영작기법 25.

해도 농구를 자주 했었는데 요즘은 도서관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운

영작기법 34 (138page)

동량이 적어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4 게다가 여자친구 만날 때마

↳ 영작기법 25, 영작기법 27 (117page)

다 뱃살이 신경 쓰여서 어제 헬스클럽에 등록했습니다. 5 아놀드슈

워츠제네거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체중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 영작기법 25

요. 6 어제 1시간 정도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온몸이 뻣근해서 죽겠

↳ 영작기법 35 (142page)

습니다. 7 바빠서 매일 가기는 힘들겠지만, 꾸준히 다닐 거예요.

↳ 영작기법 25

영작 따라하기

1 크리스씨 안녕하세요? 수영을 잘 한다니 부럽네요.

번역 크리스씨 안녕하세요? 나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수영을 잘해서.

영작 How are you Chris? I envy you so much because you swim well.

해설 '수영을 잘 한다니 부럽다'의 뉘앙스를 모조리 살리자니 어렵네요. 우선 왜 크리스씨가 부러운지 살펴봅시다.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부럽죠? I envy you so much because you swim well. 원문만큼 표현이 세련되진 못하지만 의미만큼은 잘 전달되었습니다.

2 전 솔직히 말하면 물에 겨우 뜨는 수준 정도인데.

번역 솔직히 말하면, 나는 겨우 뜹니다.

영작 Frankly speaking, I can barely float.

해설 '겨우 뜨는 수준 정도'는 쉽게 말하면 '겨우 뜬다'입니다. '겨우'에 해당되는 단어로 barely를 썼는데요, barely는 hardly, scarcely와 같이 '거의 ~하지 않다'의 뜻으로 잘 쓰입니다. 3가지를 비교하자면 hardly와 scarcely는 완전 부정에 가깝고, barely는 부정의 강도가 조금 약합니다.

3 대학교 갓 입학했을 때만 해도 농구를 자주 했었는데 요즘은 도서관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운동량이 적어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번역 내가 신입생일 때 나는 자주 농구를 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니까.

영작 When I was a freshman in the university, I used to play basketball often. However now, I'm worried that I don't exercise that much, since I spend a lot of time in the library.

해설 좀 기네요. 어떻게 토막을 낼까 생각해 봅시다. '나는 농구를 했었다' 와 '나는 걱정이다' 이렇게 둘로 나누면 되겠네요. '내가 학교를 입학했을 때' 를 when I entered the university라고 하지 말고 '내가 신입생이었을 때' 라고 영작해 봅시다.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시간이 많다.' 를 영작할 때 시간이 많으니까 time is big 또는 time is many 뭐 이런 식으로 영작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표적인 콩글리쉬입니다. 주어는 time이 아니라 I입니다. 숨어 있는 주어를 잘 찾아야죠. '나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많이 쓴다: I spend a lot of time at library' 라고 영어식으로 변형해야 영작이 됩니다.

4 게다가 여자친구 만날 때마다 뱃살이 신경 쓰여서 어제 헬스클럽에 등록했습니다.

변형 나는 여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뱃살이 걱정된다. 그래서 나는 어제 피트니스센터에 가입했다.

영작 Whenever I meet my girlfriend, I worry about my potbelly, so I joined the fitness center yesterday.

해설 '신경이 쓰인다' 를 어떻게 할까요? '신경' 을 한영사전을 찾아 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이럴 땐 '신경 쓰이다' 의 핵심을 공략해야 하죠. 음, '걱정이 되다' 라고 하면 되겠군요. worry about을 쓰면 됩니다. '~할 때마다' 는 whenever이고 '헬스클럽' 은 Health Club이 아니라 Fitness Center입니다. 그리고 '등록하다' 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enroll, register가 나오는데 예문을 살펴보니 출생을 등록하고, 명부에 이름을 올린다 등등 좀 official한 느낌을 주네요.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단어로 '가입' 을 검색해 보니 joi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나올 듯싶습니다.

5 아놀드슈워츠제네거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체중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변형 나는 아놀드슈워츠제네거처럼 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약간의 체중은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영작 Not that I'm planning to be like Arnold Schwarzenegger, but I need at least to lose some weights.

해설 that은 '그만큼', '그렇게' 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I don't like it that much' 는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니까 외워두면 좋습니다. 따라서 not that...은 '~만큼은 아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at least는 생략해도 되는데, 표현을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 썼습니다.

6 어제 1시간 정도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온몸이 뻐근해서 죽겠습니다.

변형 어제 1시간의 운동이 지금 나의 몸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영작 An hour of exercise yesterday made my body ache all over now.

해설 사물이나 상황도 주어가 될 수 있다고 Part 2, Unit 8에서 배웠죠? '1시간의 운동이 나의 몸을 아프게 만들었다' . 우리말로만 어색하지만 원어민한테는 전혀 어색한 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하죠. 사물/상황 주어로 영작이 잘 안되면 물론 '나' 를 주어로 해서 영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제 1시간 운동했다' 그리고 지금 몸이 아프다' 이렇게요. 그래서 주어는 'An hour of exercise' 가 됩니다. 이때 1 hour of exercise라고 하지 마세요.

7 바빠서 매일 가기는 힘들겠지만, 꾸준히 다닐 거예요.

변형 나는 피트니스센터에 매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운동을 계속하려 노력할 겁니다.

영작 I won't be able to go to the fitness center everyday, but I will try to keep exercising.

해설 이 문장도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네요. 주어를 넣고 이에 맞는 동사도 생각해 보세요. '꾸준히 다닌다' 는 말이 영작하기 어려우면 '계속 운동할 거예요' 로 바꾸면 쉬워집니다. 꾸준히, 계속 뭔가를 할 땐 keep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Key Point

- ① 겨우, 가깝스로: barely
- ②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다 → 학교에서 시간을 많이 쓴다: spend a lot of time at school
- ③ 신경 쓰인다 → 걱정된다: worry about
- ④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I don't like it that much
- ⑤ 계속, 꾸준히: keep

I kept waiting for her. 그녀를 계속 기다렸다.

▶ 건강과 관련된 표현

건강해 보이는 healthy-looking | 건강을 유지하다 maintain(/preserve) one's health | 운동 부족으로 through lack(/want) of exercise, through insufficient exercise | 운동을 지나치게 하다 take too much exercise | 중병 a serious illness | 불치의 병 an incurable(/fatal) illness | 병문안 a visit to a sick person | (병을) 고치다/ 치료하다 cure, treat a disease | 열이 높다 have a (high) fever | 한기가 느껴진다 I feel cold. (/ It feels cold to me.) | 어질어질하다 dizzy | 가렵다 itch | 콧물이 흐르다 I have a runny nose. | 귀가 아프다 I have an earache. | 나는 병에 잘 걸린다. I am prone to illness.

Unit 06

졸업을 한 후에 뭘 할까?

영작 해보기

1 졸업을 앞둔 요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전
↳ 영작기법22 (85page), 영작기법25 (107page)

공이 경영학이라서 마케팅에 관심이 많고 취업도 관련 회사로 하고 싶
↳ 영작기법9 (46page), 영작기법22, 영작기법25

습니다. 3 외국계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실
↳ 영작기법8 (40pages) 영작기법25

력을 늘려야겠죠. 4 요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다 그런 이
↳ 영작기법11 (54page) 영작기법25

유 때문입니다. 5 회사에 취직이 되면 몇 년 직장에서 경험을 많이
↳ unit 17 (96page), 영작기법25

한 다음에 내 사업체를 차릴 겁니다. 6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e-
↳ 영작기법13 (61pages), 영작기법25

marketing에 관심이 많아서, 온라인 마케팅 전문 회사를 차리고 싶습

니다. 7 물론 지금은 먼 미래의 막연한 바람처럼 보이겠지만, 하루하
↳ 영작기법25

루 열심히 노력한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죠.

영작 따라하기

1 졸업을 앞둔 요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형 며칠(/몇 주) 남지 않아서 졸업 전에, 요즘에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 걱정합니다.

영작 With a few days(/weeks) left before my graduation, I worry about my future these days.

해설 좀 어렵죠? 초급수준이라기 보단 중급에 가깝습니다. 좀 어렵지만 이제 설명할 내용들은 사용 빈도가 무지 많으니 잘 보세요.

‘졸업을 앞둔’을 with a few days(/weeks) left before my graduation이라고 했습니다. 명사도 없이 갑자기 웬 with냐고요? 전치사 with는 ‘~하면서’의 부대상황의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with는 동반의 의미가 있습니다. I studied with him. (그와 같이 공부했다.)처럼 같이 따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 동반의 의미를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면서’, ‘~하여서’의 뜻이 수궁이 가지요. 예문 하나 볼까요?

‘밤이 되어서 우리는 집으로 출발했다.’ With night coming on, we started home. ‘어때요? 동반, 수반, 부대상황의 느낌이 들지요? 자 그럼,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를 with not much time left라고 쓰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진로’는 my future라고 해야 의미가 통합니다. ‘진로’라는 뜻을 직역해서 course, direction 등의 단어를 쓰면 어색해집니다.

2 전공이 경영학이라서 마케팅에 관심이 많고 취업도 관련 회사로 하고 싶습니다.

변형 내가 경영을 전공하기 때문에, 나는 마케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분야에서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영작 Since I'm majoring in Business Administration, I'm interested in marketing and I want to get a job related to that field.

해설 영어식 변형만 제대로 하면 별 어려움 없이 영작이 가능하네요. 주어는 ‘전공이’가 아닌 ‘나’ 이구요. 내가 지금 경영을 전공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 형이 아닌 -ing형을 썼습니다. ‘관련 회사로 취업하다’는 ‘관련 분야에서 직장을 갖다’로 표현했네요. get a job이 be employed보다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I'm interested in marketing and I want to get a job related to that field에서 밑줄 친 부분은 원래 which is가 생략된 관계사절로 job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3 외국계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을 늘려야겠죠.

변형 나는 외국 회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어 실력을 향상해야 합니다.

영작 I want to join a foreign company, so I should improve my English skills.

해설 ‘외국계 회사’는 간단히 ‘외국 회사’로 하고, ‘입사’는 join입니다. ‘영어 실력을 늘린다’는 improve my English skills로 쓰구요.

4 요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변형 그것이 요즘 내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영작 That's why I'm studying English hard these days.

해설 Part 1(영작기법 11)에서 의문사를 이용해 목적어를 만드는 것을 보았는데, 의문사로 보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밑줄 친 why 이하의 절이 that is의 보어가 되죠? 목적어가 되든, 보어가 되든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때 That's why...만 입버릇처럼 나오면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익혀 두세요.

It's important. That's why I ask you memorize it. (그것은 중요하다. 그

게 내가 너에게 그것을 외우도록 요청하는 이유이다.)

5 회사에 취직이 되면 몇 년 직장에서 경험을 많이 한 다음에 내 사업체를 차릴 겁니다.

변형 내가 취직을 하면, 나는 몇 년간 직장 경험을 얻을 겁니다. 내가 나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영작 If I get a job, I will acquire on-the-job experience for several years before I start my own business.

해설 '취직이 되면'은 조건이지 가정이 아닙니다. 조건문을 영작할 땐 딱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미래의 시제를 현재형으로 쓰는 것! '취직이 되면'은 미래의 일이지만 If I get a job처럼 현재로 써야 합니다.

'경험을 많이 한 다음에 내 사업을 할 거다'를 and를 쓰지 않고 before를 써서 '사업을 하기 전에 경험을 쌓을 거다'라고 영작했습니다. 이 예문처럼 before를 써서 and를 대신해 보는 연습을 몇 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쓴 영어가 달라 보일 겁니다.

맨 마지막, '사업체를 차린다'는 말은 '나의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라고 해줍니다. '~를 차린다'는 set up을 쓰면 되는데, start my own business가 좀더 나의 의지를 보여 주는 표현입니다.

6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e-marketing에 관심이 많아서, 온라인 마케팅 전문 회사를 차리고 싶습니다.

변형 나는 인터넷 기반의 e-marketing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차릴 것입니다.

영작 I'm interested in e-marketing based on internet, so I will set up an online marketing company.

해설 이 원문도 역시 주어가 생략되어 있네요. 주어만 잘 찾아 써도 영작이 쉬워집니다. 주어를 I로 놓고 긴 문장을 분해해, 기본 틀이 뭔가 봅시다.

'나는 e-marketing에 관심이 많다: I'm interested in e-marketing', '회사를

차리다: I will set up a company' 기본 틀이 만들어졌죠? 여기에 수식어구를 넣으면 되겠네요.

'인터넷에 기반으로 하는: based on internet', '온라인 마케팅 전문회사: online marketing company'

이번 예문에서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이 있는데요. 앞 문장에서는 '회사를 차린다'를 start my own business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set up을 썼습니다. start my own business란 표현을 한번 써주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으려고 set up을 쓴 겁니다. 같은 표현을 여러 번 쓰면 글이 유치해지기 쉽습니다.

7 물론 지금은 먼 미래의 막연한 바람처럼 보이겠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한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죠.

변형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바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매일 열심히 노력하면 내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작 (I know) it just looks like a wish for the future, but (I believe) my dreams will come true if I try hard everyday.

해설 이 문장에서도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it looks like just a wish가 기본 틀이고, 두 번째 문장은 my dreams will come true가 기본 틀입니다. 여기에 수식어구를 넣으면 되겠죠?

It just looks like a wish for the future, but my dreams will come true if I try hard everyday.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 영작이지만, I know하고 I believe를 넣어보면 문장에 생동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try는 '시도하다'라는 뜻 말고도 '노력하다'란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Key Point

- ① with: ~하면서, ~하여서
밤이 되어서 우리는 집으로 출발했다. ∴ With night coming on, we started home.
- ② 취업하다: get a job
- ③ That's why 주어 + 동사: 그것이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입니다
- ④ and 대신 before로 영작하기
- ⑤ 내 사업을 시작하다: set up a business, start my own business

▶ 직업과 관련된 표현

약사 pharmacist | 목수 carpenter | 조각가 sculptor | 기자 reporter | 배관공 plumber | 치위생사 microbiologist | 재단사 tailor | 비서 secretary | 판매원 salesperson | 광부 coal miner | 도살업자 butcher | 형사 detective | 수의사 veterinarian | 집사 butler | 가정부 housemaid | 미용사 hair-dresser

Unit 07

야, 바다 여행이다!

영작 해보기

1 드디어, 동해에 도착했다. 파라솔이 드리워진 하얀 백사장 정말
↳ 영작기법 15 (64page) 영작기법 25 (107page)

아름다웠다. 2 하지만, 시간이 늦어서 수영은 할 수 없었다. 그 대신
↳ 영작기법 25

등대박물관에 가서 등대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얻고 왔다. 3 수영
을 할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바다 경치를 볼 수 있어서
↳ 영작기법 3 (21page), 영작기법 25

좋았다. 4 하룻밤이 지나고, 나는 그렇게 기다리던 바다에 들어가기
↳ 영작기법 27 (117page)

위해 튜브에 바람을 넣고, 선크림을 발랐다. 5 그리고 나서 희고 고
↳ 영작기법 2 (18page), 영작기법 20 (77page)

운 모래를 밟으며 나는 저 푸른 바다를 향해 뛰어갔다. 바다 속에 뛰어
드는 순간, 너무 시원했다.

영작 따라하기

1 드디어, 동해에 도착했다. 파라솔이 드리워진 하얀 백사장이 정말 아름다웠다.

변형 드디어 우리는 동해에 도착했다. 파라솔이 있는 백사장이 아름답게 보였다.

영작 Finally, we arrived at the East Sea. The white sand beach with parasols looked beautiful.

해설 누가 도착했죠? 내(/우리)가 도착했습니다. '파라솔이 드리워진 백사장'은 '파라솔이 있는 백사장'으로 바꾸고 with를 쓰면 영작이 간단해지네요.

2 하지만, 시간이 늦어서 수영은 할 수 없었다. 그 대신 등대박물관에 가서 등대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얻고 왔다.

변형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다 수영을 하기에는. 그 대신, 우리는 등대박물관에 갔다 그리고 등대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영작 However, it was too late to swim. Instead, we went to the lighthouse museum and gained information about the lighthouse.

해설 too ~ to가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too ~ to가 나오면 해석은 잘하는데, too ~ to를 이용한 영작은 쉽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too ~ to를 '너무 ~해서 ~하지 못하다'로만 외워왔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만 달라져도 too ~ to를 못 쓰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뭔가를 못하는 상황 즉,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을 할 수 없었다'라고 알아두면 too ~ to를 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어서, 수영을 할 수 없었다'는 too ~ to를 써서 too late to swim이라 하면 됩니다. 사실 too late to swim은 '수영을 하기엔 너무 늦었다 (그래서 수영을 못했다)'입니다. 원어민들은 '수영을 하기엔 너무 늦었다'이 말만 가지고도 '음, 수영을 못했나 보군'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늦어서 수영할 수 없었다'라고 하지 말고 '수영하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합시다. 바로

이게 영어식 사고방식입니다.

• I'm too full to have desert. 디저트를 먹기엔 너무 배가 부르다. (그래서 못 먹겠다)

3 수영을 할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바다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변형 1. 우리가 수영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바다 경치를 보게 되어서 좋았다.

2. 비록 우리가 수영은 할 수 없었지만, 바다 경치를 보게 되어서 좋았다.

영작 1. It was so sad that we couldn't swim, but it was good to see the seascape.

2. Although we couldn't swim, it was good to see the seascape.

해설 '우리가 수영을 못한 것이 아쉬웠다'는 원래는 That we couldn't swim was so sad.인데 주어가 기니까 가짜주어 it으로 놓고 that절을 뒤로 뺐네요.

위에서는 '수영을 할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지만'을 두 가지로 영작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만 전달되면 뉘앙스가 조금 차이 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good to see는 '보게 되어서 좋다'란 뜻의 표현으로 자주 쓰이니까 외워 두세요.

• It was good to see you. 널 보게 되어서 좋았어.

4 하룻밤이 지나고, 나는 그렇게 기다리던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 튜브에 바람을 넣고, 선크림을 발랐다.

변형 다음날, 나는 튜브에 바람을 펌프해 넣고 온몸에 선블락을 발랐다, 마침내 내가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영작 The next day, I pumped air into the tube and applied sunblock all over my body before I finally got into the sea.

해설 '하룻밤이 지나고'를 그냥 '다음날: the next day'로 했습니다. 선크림은 콩글

리시니까 그대로 쓰지 말고 sunblock 또는 sunscreen으로 합시다. 그리고 기왕이면 apply sunblock처럼 함께 어울리는 동사까지 익혀두세요. 마지막 부분은 and 대신 before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Part 3, Unit 6 참조)

5 그리고 나서 희고 고운 모래를 밟으며 나는 저 푸른 바다를 향해 뛰어갔다. 바다 속에 뛰어 드는 순간, 너무 시원했다.

변형 그리고 나서 나는 바다를 향해 희고 고운 모래 위로 뛰어갔다. 그리고 바다 속에 뛰어 들어 갔을 때 시원했다.

영작 Then, I ran on white, soft sand toward the beach. It felt cool when I plunged into the sea.

해설 '모래를 밟으며 뛰어갔다'는 모래 위에서 뛰어간 거니까 ran on the sand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쉬워 보이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feel은 '느끼다'니까 I feel...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It feel...이라고 했군요. feel은 '(사람이) 느끼다' 뿐만 아니라 '(물건이) ~한 느낌이 들다'의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즉, 감정, 느낌, 상황 등을 표현할 땐 사람을 주어로 써서 I am feeling very depressed.처럼 쓰고, 사물을 주어로 해서는 It felt cool.(날씨가 시원하게 느껴졌다.), When the clay feels like putty, it is ready to use.(찰흙이 진탕처럼 느껴지면 써도 된다.)처럼 씁니다.

거리, 명암, 날씨, 기후 등의 표현은 it을 주어로 쓰니, 물이 시원한 것도 It felt cool in the water.라고 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바다 속에 뛰어 드는 순간 너무 시원했다.'는 It felt cool when I plunged into the sea.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I felt cool when I plunged into the sea.이라고 하면 '바다 속에 뛰어 들 때 난 내가 멋있다고(cool) 느꼈다'라는 뜻이 됩니다.

Key Point

- ① too late to swim: 수영하기엔 너무 늦다 (그래서 수영을 못했다)
- ② 하루가 지나고 → 다음날: the next day
- ③ It felt cool outside. 밖에선 서늘하다.
I felt cool outside. 밖에선 내가 멋있게 느껴진다.

▶ 여행과 관련된 표현

도보로 여행하다 travel on foot | 도보 여행 a walking tour a hike | 여행사 travel agency | 여행일정 an itinerary | 무전여행 traveling without money | 세계 일주 여행 around-the-world trip globe-trotting | 수학여행 a school excursion (/ school field trip) | 숙박 시설 accommodations | 시내 관광 city sightseeing | 관광버스 sightseeing bus, tour buss | 여행지, 행선지 destination | 민박 guest house tourist home, hostel, apartelle, villas | 1박 여행 overnight trip | 3박 4일 여행 trip for 4 days and 3 nights | 해외여행 overseas travel trip(/travels) abroad | 국내 여행 domestic tour | 출장 business trip | 답사 field trip | 왕복 승차권 round-trip ticket return ticket | 창 옆 좌석 window (seat) | 통로 쪽 좌석 aisle (seat) | 분실물 보관소 a lost-and-found office | 여행자 수표 traveler's check | 수하물 상환증 claim tag | 세관 신고서 customs declaration form | 세관 the customs

영작 해보기

1 나는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되면, 음식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 영작기법9 (46page), Unit 16 (93page)

하면 내 취미가 요리일 정도로 음식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2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고 있으며 방송

↳ 영작기법35 (142page)

에서도 고급 음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고급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

↳ 영작기법17 (66page), 영작기법25 (107page)

습니다. 4 우선 재능 있는 요리사들을 고용해서 고급 음식을 제공할

↳ 영작기법23 (91page) 영작기법25

것입니다. 5 두 번째로 각 식당의 실내를 테마별로 꾸며 손님들이 좋

↳ 영작기법22 (86page) 영작기법25

은 분위기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손

↳ 영작기법17

님이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영작기법25

것입니다.

영작 따라하기

1 나는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되면, 음식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취미가 요리일 정도로 음식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번역 내가 로또에서 1등을 하면, 나는 음식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음식에 매우 관심이 있고 나의 취미가 요리입니다.

영작 If I win the first prize in lotto, I will start a food business because I am very interested in food and my hobby is cooking.

해설 '당첨되다'는 win the prize이니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되다'는 win the first prize in lotto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로또에 당첨되면 음식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가정법을 써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은 확률이 적긴 해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니 조건문으로 하면 됩니다.

원문은 두 문장인데 because를 써서 한 문장으로 영작했습니다. because는 항상 복문(주어 2개 이상, 동사 2개 이상) 형태로 써야 합니다. I was late. Because it rained. (×)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I was late because it rained. (○) 이렇게 써야 합니다. because를 쓸 때 종종 실수를 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나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크다'에서 '관심이 크다'는 우리식 표현법이니 '나는 음식에 매우 관심이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관심이 있다'는 be interested in이라고 하면 되고, 또 '관심이 크다'고 했으니 very interested라고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2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고 있으며 방송에서도 고급 음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형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음식의 질을 양보다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우리에게 고급 음식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작 These days, many people put the quality of food before quantity, and the media provides us with a lot of information about high-quality food.

해설 '요즘' 은 these days라고 합니다. these day라고 실수하기 쉽죠. 그리고 '양보다 질을 중요시 한다' 는 prefer를 써서 prefer the quality of food than(/to) quantity라고 해도 되고, 동사 put을 써서 '양을 질 앞에 두었다: put the quality before quantity' 라고 해도 됩니다.

3 따라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고급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번형 따라서 나는 전문적이고 고급의 음식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영작 Therefore, I would like to provide special and high-quality food to people.

해설 '사람들에게 고급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 를 문자 그대로 영작을 하니 I want to make a business which provides high-quality food to people 이렇게 됩니다. 간단히 '나는 사람들에게 고급 음식을 제공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4 우선 재능 있는 요리사들을 고용해서 고급 음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번형 우선, 나는 재능 있는 요리사들을 고용할 것입니다 고급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영작 First, I will hire some talented cooks to offer high-quality food.

해설 '재능이 있는 요리사' 를 봅시다. '재능' 은 talent를 쓰면 되는데 영미인들은 talent를 보통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았다고 생각해서 'talented cook' 라고 하지

요. 요리사는 cooker(밥통)라 하기 쉬운데, 그냥 cook입니다.

'요리사를 고용해서 음식을 제공할 것이다' 를 그대로 영작하려면 and를 사용해야 되는데, and를 너무 남발하면 글이 유치해지니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요리사를 고용할 것이다' 라고 바꾸는 것이 좋겠네요.

5 두 번째로 각 식당의 실내를 테마별로 꾸며 손님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번형 나는 나의 식당을 여러 디자인 테마로 장식할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그들의 음식을 좋은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영작 I will decorate my restaurant with various design themes, so customers can enjoy their meals in a good atmosphere.

해설 문장이 기네요. '나는 실내를 꾸밀 것이다' 그래서 '손님들이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누니 영작하기가 쉽네요. '테마별로 식당을 꾸미다' 는 '식당을 꾸미다 여러 디자인 테마로' 라고 하면 되고, '좋은 분위기' 는 good atmosphere라고 합니다. atmosphere는 '대기', '공기' 라는 뜻 외에 '분위기' 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6 마지막으로 손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번형 마지막으로 나는 손님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식당에서 왕처럼 느낄 것입니다.

영작 Lastly, I will give my customers the best service, so they would feel like royalty in my restaurant.

해설 앞의 문장과 구조가 비슷하네요. 역시 둘로 나누어 볼까요? '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손님들이 왕처럼 느낀다' 구조상으로는 별 어려움이 없죠? 두 번째 문장에 they will이 아니라 they would를 썼네요. 보통 would는 will 보다 어투가 약합니다. will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는데 I will go라고 하면 갈 확률이 90% 정도구요, I would go는 60% 정도입니다. 그리

고 '왕처럼 느낀다'는 feel like royalty라고 합니다. feel like a king은 여성을 차별하는 말이라서 잘 쓰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to부정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Lastly, I will give my customer the best service to make them feel like royalty in my restaurant.

앞의 5번 문장도 한 문장으로 영작해 보세요.

Key Point

- ① 당첨되다: win the prize
- ② because는 항상 복문으로
I was late. Because it rained. (×)
I was late because it rained. (○)
- ③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다: put the quality before quantity
- ④ 재능 있는: talented
- ⑤ 좋은 분위기: good atmosphere

▶ 음식점과 관련된 표현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What would you like?, What will it be? | 주문받으세요. Can you take our order, please? | (외국에서 의) 주문서 an order sheet an indent | 계산서를 가져오시오 Check/(Bill), please. | 팁을 5,000원 주다 tip (a waitress) 5,000won | 식사 시중을 들다 serve at table | 예약하다 make a reservation | 예약석 a reserved seat | 고급 레스토랑 a smart restaurant

Unit 09

한국 제일의 명절 추석

영작 해보기

1 음력 8월 15일 추석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입니다. 2 다
↳ 영작기법32 (134page)

른 말로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 추석에는 송편을 빚는데 송
↳ 영작기법25 (107page) ↳ 영작기법23 (91page) 영작기법25

편은 깨, 팥, 콩 등을 넣어 반달모양으로 빚어서 만듭니다. 4 또한 추

석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합니다. 5 추석날 하

는 놀이로는 강강술래가 있습니다.

영작 따라하기

1 음력 8월 15일 추석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입니다.

변형 음력 8월 15일은 추석입니다, 한국의 주요 명절 중 하나인

영작 August 15th of the lunar calendar is Chuseok, one of the major holidays in Korea.

해설 먼저 구조를 보면 이 원문은 두 개의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음력 8월 15일은 추석이다.', '추석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이다.' 두 번째 문장을 관계사를 이용해 수식어구로 바꾸면 되겠네요.

August 15th of the lunar calendar is Chuseok which is one of the major holidays in Korea. 여기에서 which is를 생략하고 쉼표(.)를 넣어서 구분을 하면 좀더 영어다워집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을 수식어구로 하면 안 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Chuseok is one of the major holidays in Korea (which is) falling on August 15th of the lunar calendar.

falling on은 '~에 해당되는'이라는 뜻인데 좀더 자연스러운 글을 위해 삽입했습니다.

음력이라는 표현을 영작할 때 좀 생소했죠? '음력 1월 6일'은 January 6th of/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음력을 쓰다'는 follow the lunar calendar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August 15th is Chuseok, one of the major holidays in Korea.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를 one of the major holidays라고 했는데 '대표적인(representative)' 대신에 '주요한(major)'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추석이 한국의 명절을 대표한다'는 말이 어색하네요. 영작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말부터 잘 써야 합니다.

2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변형 추석은 또한 한가위라고 불립니다.

영작 It is also called Hangawee.

해설 문장에 주어가 안 보이지요? 주어는 '추석'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Chuseok을 명시했으니까 이번에는 It으로 추석을 대신하죠. It is also called Hangawe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You can also call it Hangawee.라 해도 되는데, 원어민은 이렇게 쓰기를 더 좋아합니다.

3 추석에는 송편을 빚는데 송편은 깨, 팥, 콩 등을 넣어 반달모양으로 빚어서 만듭니다.

변형 추석에 사람들은 반달모양의 송편을 만듭니다, 깨, 팥, 콩을 넣어서.

영작 On Chuseok, people make crescent-shaped Songpyeon stuffed with sesame, red beans and beans.

해설 이 원문은 변형을 잘 해야겠는데요. 누가 송편을 빚죠? 사람들이죠? 그리고 '빚는다'는 말 대신 '만든다'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추석에 사람들은 반달모양의 송편을 만듭니다. 깨, 팥, 콩을 넣은' 이렇게 변형하면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People make a Songpyeon.입니다. 여기에 수식어를 붙이면 되겠네요. '송편'을 수식하는 말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반달모양이다', 또 하나는 '깨, 팥, 콩 등을 넣었다'. 수식어가 두 개니까 하나는 송편 앞에 두고 다른 하나는 뒤에다 둥시다. 보통 짧은 수식어를 앞에 두면 좋으니까, People make crescent-shaped Songpyeon stuffed with beans, sesames, and red beans. 그리고 추석은 특정한 날이니까 전치사 on을 써서 on Chuseok이라고 합니다.

4 또한 추석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합니다.

변형 또한 모든 식구가 모여 그들의 조상들께 '차례'라는 의식을 치르고 그들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영작 Also, all family members gather to hold rituals called 'charae' for ancestors and then visit their graves afterward.

해설 문장의 전후 사정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가족이 왜 모이죠?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기 위해서죠? 차례를 지낸다는 hold rituals called 'charae' for ancestors이라고 하고, 성묘는 visit ancestors' graves입니다. 성묘는 차례를 지낸 다음에 하니까 afterward라는 부사를 써줬습니다. 쓰지 않아도 뜻은 통합니다.

5 추석날 하는 놀이로는 강강술래가 있습니다.

변형 추석을 위한 놀이 중 하나는 강강술래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영작 One of the recreational activities for Chuseok is called 'Ganggangsullae'.

해설 '놀이로'를 '놀이 중 하나'로, '추석날 하는 놀이'는 '추석을 위한 놀이'라고 바꾸니까 영작하기가 조금 수월해 집니다.

Key Point

- ① 음력 1월 6일: January 6th of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음력을 쓰다: follow the lunar calendar.
- ② 온 가족: all families (×) → 모든 식구: all family members (○)
- ③ ~라고 하는: called

▶ 명절과 관련된 표현

국경일 a national holiday | 법정 공휴일 a legal holiday | 음력설 the lunar New Year's Day | 명절 기분 a festive mood | 제사를 지내다 perform a religious service (/ sacrificial rite) | 제삿날 a sacrificial day | 세배를 하다 wish each other a happy New Year, exchange New Year's greetings, perform a New Year's bow | 세배상 the New Year's feast (served to visitors) | 세뱃돈 the New Year's gift of money given to one's juniors a handsel

▶ 미국의 주요 명절

전몰장병 기념일 Memorial Day; Decoration Day: last Monday in May | 노동절 Labor Day: first Monday in September | 새해 New Year's Day: January 1 | 성페트릭데이 Saint Patrick's Day: March 17 |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 July 4 |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Fourth Thursday in November | 할로윈 축제 Halloween: October 31 | 크리스마스 Christmas Day: December 25

Unit 10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영작 해보기

1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평범한 여대생으로 살아가다 대학교 4

학년이던 2000년 여름, 교통사고로 큰 화상을 입은 이지선입니다. 2

화상의 정도가 너무 심해 예전의 예뻐던 그녀의 모습은 전혀 찾아 볼
L. 영작기법25 (107page), 영작기법30 (126page)

수가 없습니다. 3 예쁜 모습은 아니라도 사람의 모습이고 싶은 지선
L. 영작기법23 (91page)

은 여러 번 성형수술을 했지만 일그러진 얼굴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

다. 4 하지만 그녀는 그의 노력과 가족의 사랑으로 이 상황을 극복했
L. 영작기법22 (85page)

습니다. 5 그녀의 이야기는 유명해져서 뉴스와 다큐멘터리로 방송
L. 영작기법34 (138page)

이 되기도 했습니다. 6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
L. 영작기법9 (46page)

했습니다. 7 내가 그녀를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녀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영작 따라하기

1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평범한 여대생으로 살아가다 대학교 4학년이던 2000년 여름, 교통사고로 큰 화상을 입은 이지선입니다.

변형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이지선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여름, 그녀가 4학년일 때, 그녀는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영작 The person I respect the most is Lee Jiseon. She was an average college student, but in the summer of 2000, when she was a senior, she got burned in a car accident.

해설 문장이 길고 복잡해서 그대로 영작하기가 벅칩니다. 좀 쉽게 나누어 보죠. 문장을 나눌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전체 글의 주어를 찾는 것이며 어떤 접속사로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원문을 크게 나누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이지선이다', '그녀는 화상을 입었다' 이렇게 둘입니다. 두 문장의 관계가 인과관계도 아니고, 종속관계도 아니니까 접속사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이지선입니다.'는 The person (whom) I respect the most is Lee Jiseon.라고 합니다. '제일 ~하느'는 the most를 써서 영작을 하는데, 이 표현은 은근히 영작하기 힘든 표현 중 하나입니다. 아래 예문을 보면서 the most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세요.

-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the game I like the most
-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 the subject I hate the most
-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이다.: The subject I hate the most is

math.

두 번째 문장은 '그녀는 화상을 입었다'가 기본 틀인데 상황을 충분히 묘사하기 위해 변형을 많이 했네요. '그녀는 평범한 여대생이었다. 그러나 2000년 여름, 그녀가 4학년일 때, 그녀는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었다' 이렇게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변형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accident는 '사고'라는 뜻인데 '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injured in a car accident입니다. by a car accident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차 사고라는 상황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in을 쓴 겁니다.

- be injured in a traffic accident

2 화상의 정도가 너무 심해 예전의 예뻐던 그녀의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변형 심한 화상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예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작 Because of her serious burn injury, she doesn't look pretty anymore.

해설 '화상의 정도가 너무 심해'를 '심한 화상 때문에'로 바꾸고, '예전의 예뻐던 그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를 '그녀는 더 이상 예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보죠. 영작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죠?

3 예쁜 모습은 아니라도 사람의 모습이고 싶은 지선은 여러 번 성형수술을 했지만 일그러진 얼굴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형 그녀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정상으로 보이기 위해, 그러나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영작 She received plastic surgery to look 'normal' at least, but it was not easy to change her disfigured face.

해설 원문의 의미를 먼저 파악합시다. 성형수술을 했는데 바뀌지 않았다고 하네요. 왜 성형 수술을 했죠? 적어도 정상처럼 보이려구요. 그런데 일그러진 모습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았답니다. 원문의 영작은 이러한 줄거리를 죽 이어 나가면 될 것 같

습니다. '성형수술'은 영어로 plastic surgery라 합니다.

4 하지만 그녀는 그의 노력과 가족의 사랑으로 이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변형 하지만 그녀는 이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그의 노력과 그녀의 가족의 사랑으로,

영작 However, she overcame the situation with her efforts and the love from her family.

해설 전치사 with는 그녀의 노력과 가족의 사랑을 동반해서 극복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썼습니다. through를 써도 무방한데 by는 안 됩니다.

- Korea **overcame** poverty **through** industry and thrift. (○)
- Korea **overcame** poverty **by** industry and thrift. (×)

5 그녀의 이야기는 유명해져서 뉴스와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변형 그녀의 이야기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영작 Her story became famous so news and documentaries about it were broadcasted.

해설 원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네요. 그리고 접속사로 연결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영어식으로 변형하니 영작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6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변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의해 감동받았습니다.

영작 And many people were moved by her story.

해설 감동받았다'는 be moved입니다. 전치사 by를 쓴 것을 눈여겨보세요.

7 내가 그녀를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녀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변형 내가 그녀를 존경하는 주된 이유는 그녀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영작 The main reason why I respect her is her optimistic way of thinking.

해설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the reason why 주어+동사'는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며 why가 관계사로 쓰였습니다. 'the reason why 주어+동사'를 통째로 익혀 두세요. 정말 많이 쓰인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주된 이유: main reason'라고 했고요, '사고방식'은 way of thinking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원문의 '~때문입니다'는 생략을 했네요. 왜 because나 since가 없죠? 우리말에서는 '그녀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녀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입니다'처럼 '이유'와 '때문입니다'가 한 세트로 같이 쓰이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reason하고 because를 같이 쓰지 않죠.

• The reason why I like you is that you are pretty. (○)

• I like you because you are pretty. (○)

• The reason why I like you is because you are pretty. (×)

reason에는 이미 because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because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영어는 의미의 중복을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Key Point

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the person I respect the most

② 차 사고로 다치다: be injured in a traffic accident

③ 성형수술을 받다: receive plastic surgery

④ 극복하다: overcome the situation with(/through) her efforts

⑤ 감동받았다: be moved

⑥ reason은 because의 뜻을 포함하고 있음.

The reason why I like you is because you are pretty. (×)

The reason why I like you is that you are pretty. (○)

▶ 사건/사고와 관련된 표현

사고를 일으키다 cause an accident | 교통사고 a traffic accident | 차 사고 car accident | 철도 사고 a railroad mishap/(calamity) | 화재가 나다 a fire breaks out there is a fire | 화재경보기 a fire alarm
홍수 flood | 가뭄 drought ex) 매년 이 무렵에는 홍수가 난다. We suffer from flood at this time(/ in this season) of the year. | 가뭄이 계속되어 저수지 바닥이 갈라졌다. The long drought exposed the cracked floor of the reservoir. | 폭우 a torrential rain, a pouring rain, a heavy rain, a raining cats and dogs | 태풍 경보를 발하다 issue/(give) a typhoon warning | 도둑 thief, burglar | 도난사건 burglary | 경찰과 보험 회사에 도난 신고를 했다. I filed a theft report to the police and to my insurance company.

Unit
11

나의 하루

 영작 해보기

1 나는 매일 아침 7시쯤 일어납니다. 샤워를 하고 시간이 있으면 아침 식사를 합니다. ↳ 영작기법6 (31page)

2 그리고 어머니 차를 타고 9시 30분쯤 학원에 갑니다. ↳ 영작기법17 (65page), 영작기법25 (107page)

3 학원수업이 끝나면 친구를 만나거나,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습니다. ↳ 영작기법25

4 오후에는 영화를 보거나, 공부를 하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 영작기법10 (50page), 영작기법25

5 그리고 6시가 되면 격일로 요가와 피아노 레슨을 갑니다. ↳ 영작기법25

6 레슨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식사를 하고 티브이를 보거나 책을 읽니다. ↳ 영작기법25

다가 12시쯤 잠을 잡니다.

영작 따라하기

1 나는 매일 아침 7시쯤 일어납니다. 샤워를 하고 시간이 있으면 아침 식사를 합니다.

변형 나는 아침 7시쯤 일어납니다. 나는 샤워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땐, 아침을 먹습니다.

영작 I get up about seven every morning. I take a shower and when I have time, I eat my breakfast.

해설 첫 번째 문장은 구조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네요. 표현을 살펴보면, 7시쯤 일어나는 것은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행동' 이니까 현재형을 써서 get up이라고 했습니다. get up은 '일어나다' 이고, wake up은 '(외부 자극에 의해) 잠에서 깨다' 입니다. 뉘앙스가 좀 다르죠? 또한 자고 있는 다른 사람을 깨울 때도 wake를 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은 every in the morning이 아니라 every morning입니다. 두 번째 문장도 구조적으로 무난하군요. '시간이 있으면 아침을 먹는다' 는 접속사 when으로 연결했습니다. when 대신 if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하루에 대해서 쓴 이 글은 전반적인 나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현재시제' 로 영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 그리고 어머니 차를 타고 9시 30분쯤 학원에 갑니다.

변형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학원으로 태워다줄을 줍니다 9시30분쯤

영작 Then my mother gives me a ride to the private academy about 9:30.

해설 우리말로 '차로 바래다준다' 는 표현을 영어로는 'give a ride' 라고 하는데 무척 잘 쓰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친구야, 차로 나 좀 기차역에 데려다줘.' 를 영작 하면, Hey dude, please give me a ride to the station.이라고 하는데 태워줄(ride)을 달라(give)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좀 생소하네요. 아무튼, 어머니 차로 학원에 간다는 것은 어머니가 바래다준다는 이야기니까 my mother gives

me a ride라고 영작하면 되겠네요. '학원' 은 private academy라고 합니다.

3 학원 수업이 끝나면 친구를 만나거나,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습니다.

변형 수업 후, 나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습니다.

영작 After the class, I either meet a friend or go home and have lunch.

해설 학원 수업 후에, 친구를 만나거나 집에 온다고 합니다. 선택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either...or...를 쓰면 쉽게 영작이 됩니다.

• You must either call or write to him. (너는 그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써야한다.)

neither...nor...랑 헷갈리는 분이 많으신데요, neither는 either not, nor은 or not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 You must neither call nor write him. (너는 그에게 전화도 편지도 하지 말아야한다.)

4 오후에는 영화를 보거나, 공부를 하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변형 오후에는, 나는 자유시간을 씁니다 공부를 하거나 영화를 보면서.

영작 In the afternoon, I spend my free time studying or watching a movie.

해설 '자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에서 '시간을 보낸다' 는 표현은 영어로 바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send a time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없죠? spend my free time이라 하면 되겠네요. '공부를 하거나 영화를 보면서' 는 studying, watching a movie처럼 동명사로 처리하여 붙이면 됩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표현 몇 개 더 소개하자면, 혼났을 땐 have a bad time, 힘들었을 땐 have a hard time이라고 합니다. 매우 잘 쓰이는 것이니까 꼭 외워 두세요.

5 그리고 6시가 되면 격일로 요가와 피아노 레슨을 갑니다.

변형 저녁 6시에, 나는 번갈아서 요가와 피아노 레슨을 갑니다 격일로.

영작 At 6 P.M, I alternately go to yoga and piano lessons every other day.

해설 '6시가 되면' 을 when it become 6이라 하면 안 되고, at 6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영작입니다. '격일로 요가와 피아노 레슨을 간다' 는 I alternately go to yoga and piano lesson every other day.이라고 하면 됩니다. alternately 는 '번갈아가며' 란 뜻이고, every other day는 '2일에 한번씩' 이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매번 다른 날' 이네요. 참고로 '4일에 한번' 은 every fourth day, '3일에 한번' 은 every third day, '격주' 는 every other week라고 합니다.

6 레슨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식사를 하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다가 12시쯤 잠을 잡니다.

변형 레슨 후 나는 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고 12시쯤 잠을 잡니다.

영작 After lesson I eat dinner at home, I watch TV or read some books and then go to bed at around midnight.

해설 주어 I가 여러 행동을 하네요. 집에 돌아오고, 식사 하고, TV 보거나 책을 읽고, 잠을 잡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을 '레슨 다음에 집에서 저녁을 먹는다' 라고 하여 After lesson I eat dinner at home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찍고 다른 행동들을 연결하면 됩니다. 다만, 마지막에 나오는 '잠을 자러 가는 것' 은 and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and와 then을 같이 써주면 확실하게 '맨 마지막' 분위기가 납니다.

go to bed는 '침대로 가다' 가 아니라 '잠자러 가다' 입니다. '침대로 가다' 는 go to the bed입니다. the는 실질적인 사물 앞에 써 주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go to the school은 '학교에 가다' 이고, go to school은 '수업 하러 가다' 입니다.

Key Point

- ① get up: 일어나다
wake up: 잠이 깨다, 남을 깨우다
- ② 차로 바래다 주다 → 차 태워다줄을 주다: give someone a ride
- ③ You must either call or write to him. 그에게 전화 하거나 편지를 써야 한다.
You must neither call nor write to him 그에게 전화도 편지도 하면 안 된다.
- ④ spend time: 시간을 쓰다
have a good time: 좋은 시간을 갖다
have a bad time: 혼나다
have a hard time: 고생하다
- ⑤ every other day: 2일에 한번
every fourth day: 4일에 한번
every third day: 3일에 한번
every other week: 2주에 한번
- ⑥ go to bed: 잠자러 가다
go to the bed: 침대로 가다

▶ 일상생활과 관련된 표현

일어나다 wake up, get up | 샤워하다 take a shower, take a bath | 면도하다 shave | 화장하다 put on makeup | 옷을 입다(/벗다) get dressed(/undressed) | 잠자리를 준비하다 make the bed | 아침(/점심/저녁)을 먹다 make breakfast(/lunch/dinner) | 학교가다 go to school | 일하러가다 go to work | 설거지하다 do the dishes | 빨래하다 do the laundry | 숙제하다 do homework |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Smoking? Non-smoking?

영작 해보기

1 담배는 인체에 해롭습니다. 2 특히 여성의 흡연은 사회적으로 큰

↳ 영작기법1 (16page)

↳ 영작기법1, 영작기법25 (107page)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담배 피우는 것

↳ 영작기법1

을 비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4 그러나 여성 흡연은

남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5 흡연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유산을 하거나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6 2세를 위해 여성들은 이점을 꼭 명심합시다.

영작 따라하기

1 담배는 인체에 해롭습니다.

변형 흡연은 인체에 해롭습니다.

영작 Smoking is very harmful to the body.

해설 흡연에 관한 글이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설명하니까 현재형으로 영작합니다. '담배는 인체에 해롭습니다'는 '담배 피우는 것은 인체에 해롭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해롭다'는 be harmful to인데, 이처럼 구문을 같이 익혀둬야 영작할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bad를 쓸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be bad for라고 해야 합니다. 형용사에 따라 전치사가 달라졌네요.

Smoking cigarettes is very harmful to the body.

Smoking is bad for the body.

2 특히 여성의 흡연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형 특히, 나는 생각합니다 여성의 흡연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영작 In particular, I think that women's smoking is a big social issue.

해설 문장의 주어가 안 보이네요. 누가 생각하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니까 I think를 쓰고, 뭘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말을 해줍니다. 여성의 흡연이 문제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주어와 동사가 모두 들어간 문장 형식(절)이니까 that으로 연결해야겠네요. 원문에서 '큰 문제가 된다'에서 '된다'를 신경 쓰다 보니 become이 생각나요? 우리말에서 '된다'는 습관처럼 쓰이는 말이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여성의 흡연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3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담배 피우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변형 어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여자가 담배 피우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영작 Some people argue that criticizing women's smoking is gender discrimination.

해설 '주장하다'는 argue라고 합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기니까(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음) 2번 문장처럼 that으로 연결해 봅시다. '비난하다'가 criticize이니, '비난하는 것'은 동명사를 써서 criticizing이라고 하면 됩니다. 성차별은 gender discrimination이라고 하는데, discrimination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여러모로 자주 쓰이는 단어니까 외워두세요. 참고로 '인종 차별'은 racial discrimination입니다.

4 그러나 여성 흡연은 남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변형 그러나, 흡연은 여성에게 더 위험합니다 남성에게 보다.

영작 However, smoking is more dangerous for women than for man.

해설 원문을 변형만 잘 하면 어렵지 않네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현재시제를 쓰는 것에 유의하세요.

5 흡연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유산을 하거나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변형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흡연 여성이 임신을 하면, 유산과 기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작 It is said that if a smoking woman is pregnant, the possibility of miscarriage and deformation is very high.

해설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였죠? 그래서 it is said...라고 했네요. people say...라고 해도 됩니다. '유산'은 miscarriage, '기형'은 deformation이구요. '확률이 높다'는 '가능성이 높다: possibility is high'라고 합니다.

6 2세를 위해 여성들은 이 점을 꼭 명심합시다.

변형 그들의 아기들을 위해, 여성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작 For their babies, women should keep this in mind.

해설 '2세'는 아이들이란 뜻이니까 간단하게 babies로 하면 되구요. '이것을 명심하다'는 keep this in mind입니다. 즉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Key Point

- ① 인체에 해롭다 → 건강에 나쁘다: bad for health
- ② 확률이 높다: possibility is high
- ③ 명심하다: keep something in mind

▶ 의사 표현과 관련된 표현

합의하다(/합의하지 못하다) agree to (/disagree) | ~에 반대하여 be at odds with | 논쟁 argument, contention, dispute | 충돌하다 conflict | 저는 ~라고 믿습니다 I'm convinced that... |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strongly oppose | 고려하다 take into consideration | 다르게 생각합니다 think differently |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look at it from another perspective

나의 이성 친구를 소개합니다

영작 해보기 [A]

1 내 여자친구는 키가 작고 약간 통통합니다. 2 피부는 하얗고 약간

의 주근깨가 있습니다. 3 가끔 안경을 쓰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아주
↳ 영작기법 25 (107page)

귀엽습니다. 4 그녀의 긴 생머리는 그녀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

다. 5 정장보다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더 잘 어울립니다.
↳ 영작기법 25

영작 해보기 [B]

6 내 남자친구는 키가 크고 보통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7 피부가

까무잡잡해서 건강해 보입니다. 8 그리고 모자를 자주 쓰는데, 생일
↳ 영작기법 25, 영작기법 35 (142page) ↳ 영작기법 22 (85page) 영작기법 25

때 내가 선물해 준 빨간 야구 모자를 쓸 때가 가장 멋있습니다.

영작 따라하기

1 내 여자친구는 키가 작고 약간 통통합니다.

변형 내 여자친구는 작고 약간 통통합니다.

영작 My girlfriend is short and a little chubby.

해설 '키가 작다'고 해서 'height(키)'가 떠올랐나요? 그냥 short라고 하면 됩니다. '통통하다'는 chubby라고 합니다. fat은 '굉장히 뚱뚱하다'란 뜻이니,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원어민 청소년들에게 "You look fat."이라고 하면, 그 말을 들은 학생은 집에서 영영 운답니다. 이 글 역시 현재시제형으로 영작했는데, 사람에 대한 묘사는 진행형으로 쓰면 안 되겠죠?

2 피부는 하얗고 약간의 주근깨가 있습니다.

변형 그녀는 주근깨가 있는 하얀색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작 She has white skin with some freckles.

해설 '그녀는 주근깨가 있는 하얀색 피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변형하니 감이 오나요? She has white skin with some freckles. 이처럼 '주근깨가 있는'은 with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만약 her skin을 주어로 하고 싶으면 Her skin is white (and) with some freckles.이라고 하면 됩니다.

3 가끔 안경을 쓰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아주 귀엽습니다.

변형 그녀는 가끔 안경을 씌니다 그리고 그녀는 안경을 쓰면 매우 귀엽게 보입니다.

영작 She wears glasses sometimes and she looks so cute with it.

해설 '안경을 쓰면'을 with it이라고 해 주었네요. with는 동반, 수반의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with glasses는 '안경을 쓰고 있는'이라는 뜻이 됩니다.

4 그녀의 긴 생머리는 그녀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변형 내 여자친구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그녀의 긴 생머리입니다.

영작 The most attractive part of my girlfriend is her long straight hair.

해설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그녀의 생머리이다' 처럼 변형하는 것이 좋겠네요. 최상급을 써서 강조를 하는 부분은 문장의 맨 앞에 뒤서 강조의 느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내 여자친구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the most attractive part of my girlfriend'로 바꾸는 것이 좋겠네요. part가 주어이니 동사 역시 is로 일치시켜줍니다.

5 정장보다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더 잘 어울립니다.

변형 그녀는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었을 때 좋게 보입니다. 정장을 입었을 때 보다.

영작 She looks much better in jeans and a T-shirt than in a suit.

해설 '잘 어울린다'는 look good입니다. You look good with this tie.라고 하면 '이 넥타이 너하고 잘 어울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원문은 비교급이니까 look better라고 했습니다. '정장보다는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더 낫다'라는 표현을 영작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비교할 때는 비교의 대상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장 입은 모습보다 청바지 입은 모습' 이렇게 해야지 '정장보다 청바지 입은 모습'이라 하면 안 됩니다. in jeans and a T-shirt와 in a suit을 비교해 줘야 한다는 거죠. in a suit는 '정장을 입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뜻으로 'dressed up'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 She is dressed up. 그녀는 옷을 잘 차려 입었다.

6 내 남자친구는 키가 크고 보통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형 보통 체격인 내 남자친구는 키가 큼니다.

영작 My boyfriend is tall with an average build.

해설 원문을 분석해보면 '내 남자친구는 키가 크다' + '내 남자친구는 보통 체격을 가

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작을 하면 'My boyfriend is tall' and 'My boyfriend has an average build' 이렇게 되는데, 전치사를 이용해 간단히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체격인 내 남자친구는 키가 크다: My boyfriend is tall with an average build.' 이렇게요. '보통 체격: with an average build'는 수식어구니까 맨 뒤에 놓았습니다.

7 피부가 까무잡잡해서 건강해 보입니다.

변형 그의 검은 피부는 그를 건강하게 보이게 합니다.

영작 His dark skin makes him look healthy.

해설 그는 건강해 보인대네요. 왜죠? 피부가 검어서. 이 문장을 영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물 주어를 써서 해보죠. (Part 2 Unit 8 참조)

'그의 검은 피부'를 주어로 해서 영작을 하면 His dark skin makes him look healthy.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He looks healthy because of his pretty dark skin. 이렇게 해도 되구요.

8 그리고 모자를 자주 쓰는데, 생일 때 내가 선물해 준 빨간 야구 모자를 쓸 때가 가장 멋있습니다.

변형 그는 모자를 자주 씩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지난 생일에 선물한 빨간 야구 모자를 쓰면 가장 멋있게 보입니다.

영작 He wears hats often, but he looks best with the red baseball cap that I gave him on his last birthday.

해설 원문의 '그리고'는 생략하는 것이 좋겠네요. and는 뭔가를 나열하거나 부연할 때 쓰는 말인데, 여기선 굳이 and를 쓸 상황은 아니니까요. 문장이 좀 길지만 주어, 동사만 제대로 선택해 주면 별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우선 주어는 he구요. 모자를 자주 쓴 다네요. 그런데 내가 선물해준 모자를 쓸 때 가장 멋있답니다. 정리해보니, He wears hats often, but he looks best 빨간 야구 모자를 쓸 때,

내가 선물해 준, on his last birthday.

B

A

이렇게 되는군요. 이제 [A], [B]만 해주면 되겠네요. 우선 [A]의 '모자를 쓸 때'를 전치사 with를 써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with the red cap. 그리고 [B]는 '모자'에 대한 설명이니 관계대명사 that를 써서, that I gave him 이렇게 하면 됩니다.

Key Point

- ① 전치사 with의 여러 쓰임새
- ② 비교는 동등한 것끼리!

▶ 사람의 외모를 묘사할 때 쓰는 표현

살찐, 비계가 많은 fat | 포동포동한 plump | 비만한 obese | 통통한 chubby |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overweight | 평균 신장(/체중) average height(/weight) | 곱슬머리의 curly | 금발의 blond | (머리가) 어깨 길이의 shoulder-length | 대머리의 bald | 턱수염 beard | 콧수염 mustache | 여윈, 수척한 thin | 뼈적 마른 skinny | 날씬한 slender | 사마귀 mole | 주근깨 있는 freckles

Unit 14

영화 이야기

영작 해보기

1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2 지금까지 본 영화 중 가장 흥미
↳ 영작기법25 (107page)

롭게 본 영화는 <살인의 추억>이다. 3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재구성
↳ 영작기법25

한 영화로, 긴장감도 있고 재미도 있고 배우들의 연기력도 아주 뛰어
났다. 4 그리고 최민식 주연의 <올드보이>라는 영화 역시 매우 좋았

다. 5 작가의 상상력과 배우들의 열연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6
↳ 영작기법9 (46page), 영작기법25

<올드보이>는 칸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는데, 한국 영화가 해외에서도
↳ 영작기법9, 영작기법25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영작 따라하기

1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변형 나는 좋아 한다 영화 보기를.

영작 I love watching movies.

해설 '~하는 것' 이 목적으로 오네요. 동명사를 써야겠죠? 그래서 I love watching movies.

2 지금까지 본 영화 중 가장 흥미롭게 본 영화는 <살인의 추억>이다.

변형 가장 흥미 있는 영화(내가 지금껏 본)는 <살인의 추억>이다.

영작 The most interesting movie that I've ever seen is 'Memoirs of a Murderer'.

해설 '가장 흥미롭게 본 영화' 는 the most interesting movie. 그리고 '내가 지금껏 본 영화' 이니 that I've ever seen을 써서 붙이면 됩니다. 이 표현에서 movie, interesting, seen 부분을 바꾸면 얼마든지 다른 표현도 가능하니 잘 익혀주세요. 예를 들어 '가장 나빴던 노래' 는 the worst song that I've ever listened 라고 하면 됩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영문 제목은 *Memoirs of a Murderer* 입니다.

3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재구성한 영화로, 긴장감도 있고 재미도 있고 배우들의 연기력도 아주 뛰어 났다.

변형 이것은 사실을 근거로 했다. 이것은 긴장과 재미로 가득했으며, 연기자들은 훌륭했다.

영작 It was based on a true story. It was full of tension and excitement, and the actors were really great.

해설 원문의 난이도가 좀 높네요. 우선 원문에서 글쓴이의 main idea가 뭔가 봅시다.

'영화는 사실을 근거로 했다' '긴장감도 있고 재미도 있다' '배우들의 연기가 뛰어났다' 이렇게 세 부분인데요. 원문은 이것들을 한 문장으로 처리했지만 영작할 땐 두 문장으로 하도록 하죠.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재구성한 영화' 는 간단히 '이 영화는 사실에 근거했다: it was based on a true story' 라고 영작했습니다. '긴장감도 있고 재미도 있다' 는 '이것은 긴장과 재미로 가득했다' 로, '배우들의 연기력도 아주 뛰어 났다' 는 '연기자들은 훌륭했다' 로 변형하니 영작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네요.

4 그리고 최민식 주연의 <올드보이>라는 영화 역시 매우 좋았다.

변형 그리고 올드보이, 최민식이 주연한, 역시 매우 좋았다.

영작 And 'Old Boy' starring Choi Minshik was also very good.

해설 '<올드보이>라는 영화' 를 그냥 '<올드보이>' 라고 간단하게 하니 영작이 쉬워지네요. And "Old Boy" was also very good. 이렇게 말이지요. 그리고 '최민식이 주연한 <올드보이>' 는 '영화제목 starring 배우이름' 이라 하면 되구요.

5 작가의 상상력과 배우들의 열연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변형 나는 감명받았다 작가의 상상력과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에.

영작 I was impressed by the imagination of the writers and the enthusiastic performance of the actors.

해설 주어는 I가 되겠군요. 뭘 느꼈다면, 작가의 상상력과 열연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가 대단하다고 느꼈다' 를 영작하려니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영어 사전에서 feel을 찾아 봐도 유사한 예문이 나오지 않네요. 그럼 '내가 ~에 의해 감명받았다(be impressed by)' 라는 표현을 써서 '나는 작가의 상상력과 배우의 열연에 감명받았다', 즉 '나는 감명받았다 by 작가의 상상력과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 라고 하니 쉬워지네요. 이번 예문처럼 사전을 찾아 봐도 적당한 표현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표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문 자체를 변형하세요. 자주 연습하다 보면 영작 요령이 생깁니다.

6 <올드보이>는 칸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는데, 한국 영화가 해외에서도 인정 받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번역 <올드보이>는 상을 받았다 칸영화제에서.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웠다 한국 영화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영작 'Old Boy' won a prize at the Canne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o I felt proud of the fact that Korean movies are being recognized around the world.

해설 원문이 길고 복잡하네요. 복잡할수록 구조를 잘 살펴야 하네요. <올드보이>는 상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자랑스럽다' 기본 틀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좀더 수식하는 내용을 추가로 붙여주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내가 왜 자랑스러웠던 거죠? '~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fact를 수식해주는 내용을 that절로 만들어 주고 the fact에다가 바로 연결합니다. So I felt proud of the fact that Korean movies are being recognized around the world. 이렇게요. '세계에서 인정받다'는 are being recognized around the world라고 했는데요, 이 문장의 시제를 보니 조금 헷갈리죠? 주절이 I felt로 시작하니까 Korean movies were being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are being으로 했네요. 비록 내가 느낀 것은 과거이지만, 한국 영화가 인정받는다는 사실은 현재에도 계속 진행중이거든요. 그래서 were가 아닌 are를 썼습니다. 그리고 around the world(전 세계적으로) 표현도 꼭 외워두세요.

• It is popular around the world.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

Key Point

- ① 가장 재미있었던 영화: The most interesting movie that I've ever seen
- ② 그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It was based on a true story.
- ③ ** 주연의 **영화: 영화 이름 starring 배우 이름
- ④ 상을 받다: won a prize
- ⑤ 전 세계적으로: around the world

▶ 영화와 관련된 표현

영화가 상영중이다 The movie is on at the ** Theater | 영화 보러 가다 go to the movies | 개봉영화 film on its first run, a newly released film | 영화평 a film review | 영화를 끝까지 보다 sit through a movie |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인해 눈물이 쏟아졌다. The last scene in the movie brought tears to my eyes | 그 영화는 박력이 없다. That film appeals little to the audience | 가장 감명 깊은 영화 one of the most impressive films | 영화를 찍다 take a motion picture, shoot picture, film | 그 영화는 호평을 받았다. The film is being well received by its audiences. | 그 영화는 매우 흥미 있었다. I've got a lot of fun out of the picture. / The picture thrilled me a great deal | 영화가 시작했다. The movie is (going) on. | 영화를 상영하다 show a movie | 영화가 막 시작하려 하고 있다. The film is about to begin. | 흥행의 대성공(/대히트) a box office hit(/success/riot)

영작 해보기

1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남쪽으로 가다가 왕자 모양의 조각상이 울고 있는 모습을 봤다.

↳ 영작기법 19 (72page)

2 왕자는 자신이 만난 불쌍한 사람들에게 대한

↳ 영작기법 19, 영작기법 22 (85page)

이야기를 제비에게 하였다. 3 그리고 나서 제비에게 자신의 몸에 있

↳ 영작기법 25 (107page)

는 보석을 떼어서 그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였다. 4 그러다 보

니, 어느새 왕자의 모습은 볼품없어졌지만, 제비는 왕자의 곁을 떠나

↳ 영작기법 34 (138page)

지 않았다. 5 그러다, 제비는 죽게 되고, 왕자 동상 역시 용광로에 들

어가게 되었다. 6 그러나 몸은 다 녹아도, 왕자의 심장은 녹지 않았다.

영작 따라하기

1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남쪽으로 가다가 왕자 모양의 조각상이 울고 있는 모습을 봤다.

변형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남쪽으로 날고 있는) 봤다 왕자 동상이 울고 있는 것을.

영작 One day, a swallow, which was flying to the south, saw the statue of the prince crying.

해설 원문의 핵심이 뭔가 한번 보죠. '제비 한 마리가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제비 한 마리가 동상을 봤다' 이렇게 두 문장인데, 주인공인 제비를 한번만 써서 영작을 해봅시다.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겠죠? '제비 한 마리가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동상을 봤다: a swallow, which was flying to the south, saw the statue' 여기에 수식어구를 붙이면 됩니다. 제비가 본 '왕자 모양의 동상'은 '왕자 동상'으로 간단하게 해줍니다. '왕자 동상'은 문장의 목적어인데요, 목적어인 동상을 보충설명해 주기 위해 목적보어로 '울고 있는: crying'이 왔습니다. 동사 see는 문장 속에서 'see + 목적어 + 목적보어(동사원형 또는 -ing형)'으로 활용이 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2 왕자는 자신이 만난 불쌍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제비에게 하였다.

변형 왕자는 제비한테 이야기했다 왕자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

영작 The prince told the swallow the story about the poor people that he had met.

해설 왕자는 제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그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작을 하면 the story about the poor people that he had met. 이렇게 되는데요, 왕자가 불쌍한 사람들을 만난 것은 제비한테 이야기 하는 것보다 더 과거이니까 대과거 had met을 썼습니다.

3 그리고 나서 제비에게 자신의 몸에 있는 보석을 떼어서 그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였다.

변형 그리고 나서, 그는 제비에게 자신의 보석들을 그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라고 부탁했다.

영작 Then, he asked the swallow to bring his gems to those people.

해설 문장의 주어는 왕자이지요? 왕자에 맞는 동사를 찾아봅시다. 왕자가 제비한테 보석을 가져다주라고 시켰으니 ask를 동사로 쓰면 되겠네요. '자신의 몸에 있는 보석을 떼어서' 가져다주라는데요, 영작하기 좀 어렵죠? 그냥 '그의 보석'이라고 간단히 해봅시다.

He asked the swallow to bring his gems to those people.

'가져다주다'를 bring으로 했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bring은 '가져오다', '데려오다'란 뜻인데, bring이 '동반'의 의미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져다주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4 그러다 보니, 어느새 왕자의 모습은 불품없어졌지만, 제비는 왕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

변형 그 결과로, 왕자는 초라해졌다, 하지만 제비는 왕자를 떠나지 않았다.

영작 As a result, the Prince became shabby, but the Swallow did not leave the Prince.

해설 '그러다 보니'란 말의 뜻은 '그 결과로'란 소리죠? as a result로 했습니다. 그리고 '불품없다'란 말은 영어사전을 찾아봐도 딱 맞는 표현이 없어서 '초라하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왕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왕자를 떠나지 않았다'로 간단히 했습니다.

5 그러다, 제비는 죽게 되고, 왕자 동상 역시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었다.

변형 결국, 제비는 죽었다, 그리고 동상은 용광로에서 녹여졌다.

영작 Finally, the swallow died, and the statue was melted in the furnace.

해설 '그러다'의 적당한 표현이 없으니 '결국'이라고 바꿔서 finally라고 해봅시다. '용광로에 들어가다'를 go(/enter) into furnace라고 하니 좀 어색하네요. 왕자 동상이 용광로에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용광로에서 녹여졌다'라고 합니다. the statue was melted in the furnace.

6 그러나 몸은 다 녹아도, 왕자의 심장은 녹지 않았다.

변형 그러나 왕자의 심장은 녹지 않았다.

영작 However, the prince's heart did not melt.

해설 원문에서 '몸은 다 녹아도'는 생략해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그냥 '왕자의 심장은 녹지 않았다'만, 영작을 하죠.
However, the prince's heart did not melt in the furnace.

Key Point

① see+목적어+동사원형/-ing형

I saw her go out. 나는 그녀가 외출하는 것을 보았다

I saw her knitting wool stockings. 나는 그녀가 털실로 스타킹을 짜고 있는 것을 보았다.

② bring은 동반의 의미가 있습니다.

He asked the swallow to bring his gems to those people

▶ 주요 동화책 영문 제목

백설공주 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 잠자는 숲속의 미녀 Sleeping Beauty | 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인어공주 The little mermaid | 미운오리새끼 The Ugly Ducking | 별거벗은 임금님 The Emperor's New Clothes | 정화 신은 고양이 Puss in a boots | 성냥팔이 소녀 The Little Matchstick Girl |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Alice in Wonderland | 이솝우화 Aesop's Fables | 신데렐라 Cinderella | 미녀와 야수 Beauty and the Beast

Part 3을 마치면서

저와 같이 Part 1, 2, 3에서 영작의 기초 학습과 실전연습을 해보셨습니다.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아 아쉽지만, 영작 요령에 대한 감은 잡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익힌 대로 우리말로 된 재미있는 이야기나 일기 등을 정해서 영어식으로 변형시켜보고, 이를 영작해 보세요. 몇 번만 해보면 여러분의 영작 실력은 탄탄해져 있을 겁니다.

그럼 간단히 <혼자서 영작 공부 하는 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1.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숙어/표현들을 정리하고 외우세요.

중·고등학교 교과서만 잘 소화해도 정말 멋진 영작을 할 수 있거든요.

2. 한글로 된 재미있는 이야기나 일기 등을 1번에서 외운 표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써 보세요. 이때 쉽게 영작할 수 있도록 영어식으로 변형하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3. 쉽게 풀어 쓴 우리말을 영작해 보시는 겁니다.

4. 막히는 부분은 사전을 찾아보고 예문이 어떻게 쓰였나 살펴봅니다. 예문의 단어만 살짝 바꿔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5. 어느 정도 영작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영자 신문, 토익 참고서 등등을 참고해 단어, 표현 등을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듭니다.

6.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익힐 땐 꼭 예문을 같이 보세요. 그리고 단어만 달랑 익히지 말고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보세요. 예컨대, '소개팅: blind date' 이렇게만 하지 말고, '소개팅에 나가다: go on a blind date' 이렇게 세트로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영작 실력이 향상되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부록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영작표현 모음

Self-writing Answers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영작표현 모음

accused of / accused for

I accused him of fraud. (○)

I accused him for fraud. (×)

나는 그가 사기를 쳤다고 고발했다.

accustomed to / accustomed with

I am accustomed to his way of speaking. (○)

I am accustomed with his way of speaking. (×)

나는 그가 말하는 방식에 익숙하다.

angry with / angry to

I'm angry with him. (○)

I'm angry to him (×)

나는 그에게 화가 났다.

➤ 사람에게 화가 나면 angry with이지만, 사물에 화가 나면 angry at입니다.

I'm angry at his way of speaking.

arrive at / arrive to

I arrived at his house very late. (○)

I arrived to his house very late. (×)

나는 매우 늦게 그의 집에 도착했다.

➤ 지역이나 나라 등 넓은 곳에 도착하면 arrive in을 쓴다.

I arrived in Seoul very late.

ashamed of / ashamed

I'm ashamed of my bad habit. (○)

I'm ashamed my bad habit. (×)

나는 나의 나쁜 습관이 부끄러웠다.

➤ ashamed of는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는 뜻이고, shy는 '쑥스럽다', '수줍다'라는 뜻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believe in / believe

I believe in God. (○)

I believe God. (×)

나는 신을 믿는다.

➤ believe in은 have faith in의 뜻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란 말이죠. 그러나 believe가 단독으로

쓰이면 사실유무에 관한 것으로 '사실이라 생각한다'란 뜻입니다.

I believe what you said to me.

congratulate on / congratulate for

I congratulate you on your graduation. (○)

I congratulate for your graduation. (×)

너의 졸업을 축하한다.

covered with / covered by

My desk is covered with paper. (○)

My desk is covered by paper. (×)

나의 책상은 종이로 뒤 덮였다.

➤ 종이에 의해서 뒤덮인 것이 아니라 종이로 뒤덮인 것입니다.

leave for / leave to

He left for Korea. (○)

He left to Korea. (×)

그는 한국으로 떠났다.

live on / live from

I live on my father's money. (○)

I live from my father's money. (×)

나는 아버지 돈을 먹고 산다. (아버지 돈으로 산다)

✚ 유사한 표현으로 feed on이 있습니다.

Cows feed on grass.

married to / married with

She was married to a businessman. (○)

She was married whit a businessman. (×)

그녀는 사업가와 결혼했다.

✚ 능동형으로 쓸 땐 전치사 없이 영작합니다.

She married a businessman.

pleased with / pleased by

I'm pleased with her. (○)

I'm pleased by her. (×)

나는 그녀 때문에 기뻐다.

✚ pleased with는 사람과 같이 쓰고 pleased at은 사건이나 사물과 같이 씁니다.

I'm pleased at what she said.

related to / related with

I'm not related to this matter. (○)

I'm not related with this matter. (×)

난 이 일과 관련 없다.

similar to / similar with

My cell phone is similar to yours. (○)

My cell phone is similar with yours. (×)

내 휴대폰은 너의 것과 비슷하다.

sit at a table / sit on a table

She is sitting at a table. (○)

She is sitting on a table. (×)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있다.

✚ sit on sofa, sit on chair는 가능합니다. on은 작은 장소를 꼭 집어 말할 때 쓰고, at은 on보다 조금

더 넓은 장소에 씁니다.

succeed in / succeed at

I'm sure you will succeed in your business. (○)

I'm sure you will succeed at your business. (×)

나는 네가 사업에서 성공할 것을 확신한다.

translate into / translate to

I translated it into English. (○)

I translated it to English. (×)

나는 그것을 영어로 번역했다.

used to -ing / used to R

I used to eating fast. (○)

I used to eat fast. (×)

나는 빨리 먹는 것에 익숙하다.

✚ used to의 목적으로 '~하는 것' 이 나오니까 -ing형을 쓴 것입니다. to 다음의 동사형은 무조건 원형이라고 외었다면 편견을 버리세요.

look forward to -ing / look forward to R

I look forward to getting a job. (○)

I look forward to get a job. (×)

나는 취직을 학수고대한다.

✚ 이 예문 역시 목적으로 '~을' 이 나오니까 -ing형을 쓴 것입니다.

take an hour / need an hour

It will take you 2 hours to finish it. (○)

It will need 2 hours to finish it. (×)

그것을 끝내려면 2시간이 필요하다.

make a mistake / do a mistake

I made a mistake in translation. (○)

I did a mistake in translation. (×)

번역에 실수를 하였다.

have my hair cut / cut my hair

I had my hair cut yesterday. (○)

I cut my hair yesterday. (×)

나는 어제 머리를 잘랐다.

this morning / today morning

I had a car accident this morning. (○)

I had a car accident today morning. (×)

오늘 아침 차 사고를 당했다.

ask for / ask

I went to ask her for some money. (○)

I went to ask her some money. (×)

나는 그녀에게 가서 돈을 좀 달라고 했다.

dream of / dream

She dreams of success. (○)

She dreams success. (×)

그녀는 성공을 꿈꾼다.

explain to / explain

I explained it to her. (○)

I explained her it. (×)

나는 그녀에게 그것을 설명했다.

listen to / listen

I'm listening to the music. (○)

I'm listening the music. (×)

나는 음악을 듣고 있다.

pay for / pay

How much do I have to pay for 1 bottle of coke? (○)

How much do I have to pay 1 bottle of coke? (×)

콜라 한 병에 얼마를 내야 하죠?

remind of / remind

This book reminds me of my father (○)

This book reminds me my father (×)

이 책은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상기시킨다.

reply to / reply

I won't reply to her. (○)

I won't reply her (×)

나는 앞으로 그녀에게 답장하지 않을 거다.

search for / search

I'm searching for my note. (○)

I'm searching my note. (×)

나는 지금 노트를 찾고 있다.

supply with / supply

I supplied her with accommodations. (○)

I supplied her accommodations. (×)

나는 그녀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었다.

wait for / wait

I'm waiting for her mail. (○)

I'm waiting her mail. (×)

나는 그녀의 메일을 기다린다.

play the piano / play piano

I enjoy playing the piano (○)

I enjoy playing piano (×)

나는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한다.

✚ 정관사 the는 확실하고 뚜렷한 뭔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피아노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물질이죠?

그래서 the가 붙습니다. 그런데 I like play baseball. 이 경우에는 the가 안 붙습니다. 야구는 추상

적인 개념의 경기라서 그런데요. 야구 경기가 손에 잡히는 무슨 물건이 아니잖아요.

sit 앉다 / seat 앉히다

Please sit at the table. (○)

Please seat at the table. (×)

테이블에 앉으세요.

wear 입고 있다 / put on 입다

He put on coat and went out. (○)

He wore coat and went out. (×)

그는 코트를 입더니 밖으로 나갔다.

He wears red coat. (○)

He put on red coat. (×)

그는 빨간 코트를 입고 있다.

✚ wear는 입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put on은 입는 행동을 나타내줍니다.

grow 자라다 / **grow up** 어른이 되다

He grew up in Seoul. (○)

He grew in Seoul. (×)

그는 서울에서 성장했다.

✚ grow는 '자라다, 기르다'의 뜻이며 여기에 up이 더해져서 '어른이 되다, 성장했다(나이를 먹다)' 등이 됩니다. up은 강조의 기능을 하는데 '위쪽으로 바짝 붙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up과 동사가 같이 나오면 뜻이 '강조'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예로 times up은 바짝 바짝 시간이 지나서 '시간 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made from / made of

This plastic dish is made from petroleum. (○)

This plastic dish is made of petroleum. (×)

이 플라스틱 접시는 석유에서 만들어진 거다.

✚ 재료의 원래 형태가 남아 있으면 made of를 쓰고, 원래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으면 made from을 씁니다.

see/look

I looked out of the door. (○)

I saw out of the door. (×)

나는 문 밖을 바라 봤다.

✚ look은 눈의 초점을 어디에다 뒀다란 뜻이고 see는 look으로 본 대상을 인식하다란 뜻입니다.

I look out of the door and saw the car.

listen/hear

I'm listening to music. (○)

I'm hearing music. (×)

나는 음악을 듣고 있다.

✚ hear은 그냥 들리는 것이고, listen은 의도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listen carefully라고는 해도 hear carefully라고는 못 하는 거죠.

Self-writing Answers

[Part 1]

Unit 01

1. Exercising is good for health.
2. Sleeping is necessary for humans. / Sleeping is necessary for man.
3. Playing the piano is pleasant.
4. Watching movies is my hobby.
5. It is difficult to stop smoking.
6. It is certain that he has gone to Paris.
7. It is true that they helped me.

Unit 02

1. It's true that we were a little late.
2. It's certain that she's rich.
3. What I studied today is math.
4. What he wants to say is this.
5. What Jen hates are cats.

Unit 03

1. It snowed yesterday.
2. It is very cold today.
3. It will be sunny tomorrow.
4. It takes time to get accustomed to new school.

5. It takes one hour from here to the train station.

Unit 04

1. There are three cats in the park.
2. There are mice under the desk.
3. There is a park in front of the city hall.
4. There are some books in my bag.
5. There is a restaurant by the book store.

Unit 05

1. They open even on Sundays.
2. I run for my health.
3. I'm having a meal.
4.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since I was 10 years old.
5. I have lost the watch that she bought me.

Unit 06

1. We don't have to leave now.
2. She may not come.
3. She can not be home now.
4. We could have won the game.
5. You couldn't have failed the exam.

Unit 07

1. She was ashamed that she looked fat.
2. I'm still afraid to sleep in my own bedroom.

3. I'm not satisfied with this result.
 4. We were surprised at the news.
 5. He was scared by the thunder.
 6. I was embarrassed that she refused my suggestion.
-

Unit 08

1. She decided to quit her job.
 2. He enjoys fishing.
 3. He is thinking of giving up teaching.
 4. He denied having said so.
 5. She demanded me to take him my home.
 6. He planned to leave Seoul on Sunday.
-

Unit 09

1. Please let me know how to use this phone.
 2. Write down what will you do after school.
 3. He has not decided yet when to leave.
 4. Tell me why you were late.
 5. I can tell tomorrow whether you pass the exam or not.
-

Unit 10

1. I don't think she is pretty.
2. We elected him chairperson.
3. I felt the car move.
4. I'm angry at him lying to me.
5. I told her not to go the party.

6. Is there anything exciting?
-

Unit 11

1. I swear.
 2. He is from Busan.
 3. He loves painting a picture.
 4. I gave her a ticket for concert.
 5. I never saw her running.
-

Unit 12

1. The soccer game which I saw last night was boring.
 2. Tell me about him who calls you everyday.
 3. Choose what you want.
 4. Let me know when you will leave.
 5. I know why he quit studying.
-

Unit 13

1. He learns very fast.
 2. This car is extremely expensive.
 3. Before we go to movies, we have to finish homework.
 4. While she was cooking, I cleaned the living room.
 5. Although he is rich, he doesn't think he is happy.
-

Unit 14

1. I love walking along a river.
2. This patient has no problem with going outside.

3. I love the man with red jacket.
 4. I persuaded her not to buy that stuff.
 5. You can't force me to do something I don't agree with.
-

Unit 15

1. The woman sitting at the desk is owner of this store.
 2. The woman choosing apples is my mother.
 3. A surprising news will be reported soon.
 4. I don't want to be an unsatisfied pig.
 5. Please separate the returned products from customers.
-

Unit 17

1. If you don't like it throw it away.
 2. If it doesn't rain, let's go picnic.
 3. If I were a teacher, I would not teach English that way.
 4. If you had arrived on time, you could have met her.
 5. If I had followed what you said, I would be a rich now.
-

[Part 2]

Unit 01

1. I ate too much for dinner (that) my stomach hurts.
2. Don't be late for the meeting next time.
3. The sun is so bright (that) my eyes hurt.
4. I get the feeling of autumn when I climb mountain Namsan.
5. I'm tired of getting so many phonecalls.

Unit 02

1. It is difficult for me.
 2. Close Japan is good enough for me.
 3. I don't think that is good behavior.
 4. I don't believe that kind of thing will happen.
 5. I displayed the painting in the corridor.
-

Unit 03

1. The soldiers are in training.
 2. The minister gave an order.
 3. The faucet is frozen.
 4. I'm very pleased.
 5. I talked to her briefly.
-

Unit 04

1. Thanks for your kind answer.
 2. He worries too much on small things.
 3. I miss his love.
 4. Please send this letter with it.
-

Unit 05

1.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opinion.
2. I can't stand such a late delivery.
3. Thank you for the quick service.
4. Clean up the garbage in front of the house.
5. Unbelievable accidents keep happening.

6. The biggest problem is the distrust of customers for our products.

Unit 06

1. This is Namdaemun in Seoul.
 2. Many members of this cafe help each other.
 3. A lion statue, the symbol of our school, sits by the main gate.
 4. The 63 building , located in Yuido, is the tallest building in Korea.
-

Unit 07

1. I want to forget the bad memories and start my life over.
 2. If he calls you again please let me know.
 3. Now is the time to act.
 4. You have to make a reservation if you want to buy it
-

Unit 08

1. The break up of Jackie makes me sad.
 2. Too much alcohol last night is now giving me a bad headache.
 3. Subway construction creates traffic jams.
 4. The news that I passed the exam pleased my mother.
 5. The ring that I'm wearing makes people think (that) I'm married.
-

[Part 3]

Unit 01

My name is Kim Youngdal, and I live in Korea. I am a freshman at Hanguk University, majoring in Business. I am interested in Internet

marketing, and I want to study more about this field. My hobbies are climbing mountains, watching movies and creating homepages. I am even-tempered and active, and I am known as a sociable person since I like making new friends. One of my good points is sincerity. With my sense of responsibility, I always try to do my job perfectly in any situation.

Unit 02

There are five members in my family: father, mother, elder sister, younger brother and me. My father, a banker, is very strict with us. On the other hand, my mother takes care of us with kindness. My elder sister, who is an excellent student at school, helps me a lot. My mischievous younger brother is our loving sweetheart. On weekends, my family goes on a hike to a nearby mountain, or eats out at some great places.

Unit 03

As my midterm exams ended today, I went to see a movie with my friends. Because it was weekday afternoon, the theater was not crowded, so we were glad about that. We quarreled over whether we would see a Korean film or a foreign film, but, finally, we agreed to see a Korean film. It was "*My Brother*" starring Won Bin, and I was very touched by it. We were all satisfied with the movie, and we promised to see another one after the final exam. I really like seeing movies after taking exams like this.

Unit 04

To Chris, I went on a blind date today. It was my first blind date since I had broken up with my last boyfriend almost a year ago. I hadn't put on a short skirt for quite a long time, so I felt a little uncomfortable on the subway. When I arrived at the meeting place, there was my partner waiting for me. Since he looked somewhat familiar, I asked his name and where he lived. Then I realized that we had gone to elementary school together. Although I felt both pleased and awkward to meet him like this, I enjoyed the time anyway. He escorted me to my house, and I gave him my number. Take care~ bye!

Unit 05

How are you Chris? I envy you so much because you swim well. Frankly speaking, I can barely float. When I was a freshman in the university, I used to play basketball often. However, now, I'm worried that I don't exercise that much, since I spend a lot of time in the library. Whenever I meet my girlfriend, I worry about my potbelly, so I joined the fitness center yesterday. Not that I'm planning to be like Arnold Schwarzenegger, but I need at least to lose some weights. An hour of exercise yesterday made my body ache all over now. I won't be able to go to the fitness center everyday, but I will try to keep exercising.

Unit 06

With a few days(/weeks) left before my graduation, I worry about

my future these days. Since I'm majoring in Business Administration, I'm interested in marketing and I want to get a job related to that field. I want to join a foreign company, so I should improve my English skills. That's why I'm studying English hard these days. If I get a job, I will acquire on-the-job experience for several years before I start my own business. I'm interested in e-marketing based on internet, so I will set up an online marketing company. (I know) it just looks like a wish for the future, but (I believe) my dreams will come true if I try hard everyday.

Unit 07

Finally, we arrived at the East Sea. The white sand beach with parasols looked beautiful. However, it was too late to swim. Instead, we went to the lighthouse museum and gained information about the lighthouse. Although we couldn't swim, it was good to see the seascape. The next day, I pumped air into the tube and applied sunblock all over my body before I finally got into the sea. Then, I ran on white, soft sand toward the beach. It felt cool when I plunged into the sea.

Unit 08

If I win the first prize in lotto, I will start a food business because I am very interested in food and my hobby is cooking. These days, many people put the quality of food before quantity, and the media provides us with a lot of information about high-quality food. Therefore, I would like to provide special and high-quality food to

people. First, I will hire some talented cooks to offer high-quality food. I will decorate my restaurant with various design themes, so customers can enjoy their meals in a good atmosphere. Lastly, I will give my customers the best service, so they would feel like royalty in my restaurant.

Unit 09

August 15th of the lunar calendar is Chuseok, one of the major holidays in Korea. It is also called Hangawee. On Chuseok, people make crescent-shaped Songpyeon stuffed with sesame, red beans and beans. Also, all family members gather to hold rituals called “charae” for ancestors and then visit their graves afterward. One of the recreational activities for Chuseok is called “Ganggangsullae”.

Unit 10

The person I respect the most is Lee Jiseon. She was an average college student, but in the summer of 2000, when she was a senior, she got burned in a car accident. Because of her serious burn injury, she doesn't look pretty anymore. She received plastic surgery to look “normal” at least, but it was not easy to change her disfigured face. However, she overcame the situation with her efforts and the love from her family. Her story became famous so news and documentaries about it were broadcasted. And many people were moved by her story. The main reason why I respect her is her optimistic way of thinking.

Unit 11

I get up about seven every morning. I take a shower and when I have time, I eat my breakfast. Then my mother gives me a ride to the private academy about 9:30. After the class, I either meet a friend or go home and have lunch. In the afternoon, I spend my free time studying or watching a movie. At 6 PM, I alternately go to yoga and piano lessons every other day. After lesson I eat dinner at home, I watch TV or read some books and then go to bed at around midnight.

Unit 12

Smoking is very harmful to the body. In particular, I think that women's smoking is a big social issue. Some people argue that criticizing women's smoking is gender discrimination. However, smoking is more dangerous for women than for man. It is said that if a smoking woman is pregnant, the possibility of miscarriage and deformation is very high. For their babies, women should keep this in mind.

Unit 13

My girlfriend is short and a little chubby. She has white skin with some freckles. She wears glasses sometimes and she looks so cute with it. The most attractive part of my girlfriend is her long straight hair. She looks much better in jeans and a T-shirt than in a suit. My boyfriend is tall with an average build. His dark skin makes him look healthy. He wears hats often, but he looks best with the red baseball

cap that I gave him on his last birthday.

Unit 14

I love watching movies. The most interesting movie that I've ever seen is "*Memoirs of a Murderer*". It was based on a true story. It was full of tension and excitement, and the actors were really great. And "*Old Boy*" starring Choi Minshik was also very good. I was impressed by the imagination of the writers and the enthusiastic performance of the actors. "*Old Boy*" won a prize at the Canne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o I felt proud of the fact that Korean movies are being recognized around the world.

Unit 15

One day, a swallow, which was flying to the south, saw the statue of the prince crying. The prince told the swallow the story about the poor people that he had met. Then, he asked the swallow to bring his gems to those people. As a result, the Prince became shabby, but the Swallow did not leave the Prince. Finally, the swallow died, and the statue was melted in the furnace. However, the prince's heart did not melt.

초보를 위한 영작기술은 따로 있다

유소영의 영작기술

문법은 웬만큼 아는데 영작은 어렵다? 단어나 표현은 많이 아는데 영작은 어렵다?

초보자들이 영작을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말을 영어식으로 쉽게 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자체를 영작하기 편하게 변형하고 재배열하면 얼마나 쉽게 영작이 되는지
이 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장의 알짜배기를 만드는 17가지 영작기법

Part1

영작에 필요한 문법을 영작의 관점에서 다룬 파트. 문장의 알짜배기,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와 수식어를 만드는 기법을 정리하고 연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쉬운 영작을 위한 8가지 테크닉

Part2

‘쉬운 영작을 위한 요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다룬 파트. 8가지 테크닉을 통하여 쉽게 영작하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나도 짧은 에세이를 쓸 수 있다

Part3

Part 1과 Part 2에서 익힌 영작 기술을 짧은 에세이를 통하여 연습합니다. 영작을 할 때 저자의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 영작과정을 자세히 보여주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정가: 11,000원

